

안정된 농촌생활 유지를 위한 취약농가 인력지원방안 연구

**A Study on the Helper System for the Needy
Rural Families in Korea**

(연구기관: 한신대학교)

2005. 12.



농 립 부



농 업 기 반 공 사

제 출 문

농림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안정된 농촌생활 유지를 위한 취약농가 인력지원방안 연구」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5년 12월

연구관리기관 : 농업기반공사 농어촌연구원
책임연구원 홍찬선
연구보조원 최 송

연구기관 : 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
책임연구원 김주숙
연구원 오미란
우수명

국 문 요 약 문

1. 과 제 명 : 안정된 농촌생활 유지를 위한 취약농가 인력지원방안 연구

2. 연구기간 : 2005. 8 ~ 2005. 12

3.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3.1 연구목적

본 연구는 농촌의 취약 농가를 위해 영농 및 가사의 인력지원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우선 사고, 질병, 장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사에 어려움이 생긴 농가의 영농도우미에 대한 욕구를 파악하고, 동시에 노령화 및 각종 질병으로 인해 가사수행이 어려워진 취약 농가의 가사도우미 욕구를 조사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취약농가의 인력지원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자원봉사센터, 자활후견기관이나 가정봉사원 파견센터 등의 관련자를 상대로 영농 및 가사도우미 참여 가능성을 조사하고, 나아가 도우미사업의 인력추진체계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번 조사를 통하여 취약한 농가의 영농 및 가사도우미 욕구를 파악하고 그 가능성을 타진하며 추진체계를 고찰하여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을 정착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3.2 연구 필요성

농촌은 현재, 농업종사자의 고령화 및 여성화 비율 심화로 농업이 위축되고 농가 삶의 질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전 인구 중 농어촌지역 비중은 1990년의 1,110만명에서 2000년 938만명으로 15.6%로 감소하였고, 농어가인구 비율은 1990년의 16.7%에서, 2000년에 9.2%, 그리고 2004년에는 7.5%로 감소하였다. 농촌지역의 고령화 현상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2004년 12월 31일 현재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농촌지역 15.6%, 도시지역 6.7%로 이미 농촌지역은 고령사회(Aged Society)에 진입해 있다.

농촌의 현실은 이렇듯 고령화되어가고 있지만 복지실태는 오히려 도시보다 훨씬 열악한 실정이다. 의료기관의 90% 이상이 도시에 집중되는(종합병원(93.6%), 병상수(89.5%), 의료인력(88%)) 등 의료·복지 인프라가 너무나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가족해체 및 농촌공동체의 공동화로 사회적 안전망이 허물어짐에 따라 농촌의 경우 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가 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농가가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거나, 즉각적인 노동력 보충이나 보호가 필요할 때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확보하기가 어렵다. 이로 인해 농사는 물론 생계에도 적지 않은 지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일시적으로 곤란에 처한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고, 사고나 장애시에 겪을

농사와 가사에의 어려움에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인력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상시적으로 농가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서 농가의 사고 및 장애 발생을 추정하여 영농도우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취약농가의 생활 현황 및 가사도우미 욕구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가 필요하며 동시에 농사지원 및 가사지원 참여자의 가능성을 파악하고 이를 추진할 인력 지원체계에 대한 조사연구가 필요하다.

4. 연구내용

이번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를 통한 문헌정리를 토대로 농가의 기본현황을 파악하고 1차 농가 욕구조사, 2차 도우미참여자 가능성 조사 및 3차 도우미지원체계에 관한 면담조사를 수행하였다. 1차 농가 조사는 전국 6개도에서 목적표집으로 선택한 철원, 안성, 청원, 김천, 익산, 무안 등 6개 시·군의 면 단위 마을에 전수조사를 통하여 영농도우미와 가사도우미의 욕구를 조사하였다. 조사 대상 지역은 어촌, 산촌 등이 포함되었으며 447 농가가 조사되었다.

또한 현재 각종 도우미제도와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기관의 영농도우미 및 가사도우미 지원인력으로 참여가 가능하다고 예상되는 관련자들에게 2차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지역은 1차 조사 지역 중 청원(청주포함)과 익산 두 곳을 임의로 선정하였고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배포조사 방식으로 조사하였는데 209명이 응답하였다. 3차 조사는 영농·가사 도우미 활동을 전개하였던 기관에 대한 인터뷰조사를 실시하여 지원체계의 수립에 필요한 구체적인 실행조직들의 의견을 보완하였다.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4.1 영농·가사 도우미 욕구조사 결과(1차 조사)

4.1.1 조사대상 농가의 일반적 특성

응답자는 남자가 57.0%로 여자보다 다소 많았으며, 평균 연령은 60.37세(표준편차 11.70)로 농촌 지역 일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고령화가 심화되어 있었다. 학력은 응답자의 54.0%가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무학 포함)으로 다소 낮았으며, 79.8%가 기혼이었다. 응답자들의 직업은 대부분 농림어업종사자였으며(89.7%) 가구원수는 평균 3.00명(표준편차 1.56)으로 매우 적었다. 세대 거주 유형은 부부세대만 살고 있는 경우가 32.9%로 가장 많았다. 특히, 독거노인이나 손자녀와 사는 노인, 노인 부부 등 노인 취약가구와 잠재적 취약가구가 30.2%나 되었으며, 65세 노인이 포함된 가구는 모두 65.3%나 되었다.

1) 농가의 영농현황과 생활실태

주 작목 1순위는 논·벼로 여전히 벼농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컸으며 경영규모는 평균 4,336평으로 나타났다. 농사 규모는 시설작목을 제외한 논·밭의 경우 농가간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소득 비중에서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83.1%로 매우 높았다. 지역별로는 철원이 가장 높고

도시와 인접한 안성의 경우 농업소득 비중이 낮게 나타났다. 조사지역 농가의 평균 소득은 연간 1,679만원(표준편차 1729.7)이며, 청원> 철원> 김천> 안성> 익산 순으로 나타났다.

생활비 지출내역 1순위로는 양육·교육비 > 의료비 > 주거비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노령인구가 높은 김천과 익산의 경우 생활비 지출내역 1순위가 의료비로 나타났다. 생활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월 평균 50만원 이하가 22.4%로 가장 많았다. 소득 대비 지출의 비교에 따른 생활만족도에 대해서는 6.1%만이 충분하다고 응답했으며, 74.5%가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응답 농가 중 부채가 없는 경우는 34.6%에 불과하였고, 가구당 평균 4,192만원(표준편차 4669.66)의 부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부채비율은 소득이 높은 지역일수록 높았으며 철원 > 청원 > 무안 순으로 나타났다. 부채의 원인으로 영농자금 마련 때문이라는 응답이 76.7%였고 다음으로는 자녀교육비 때문이라는 응답이 17.0%로 조사되었다.

2) 농가의 애로사항과 사고·질병 현황

농사짓는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낮은 수입, 농가부채 상환 등 경제적 측면의 문제가 47.4%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조사 대상자중 사고경험자는 65세 이상이 사례 백분율 기준으로 48.7%이었으며, 교통사고(57.3%), 각종 기계류에 의한 사고(29.9%)가 가장 많았다. 치료 중 입원경험자가 69.8%나 되었으며, 치료기간은 평균 12.05개월(표준편차 27.817)이었다. 후유증이 전혀 없다는 응답은 5.4%에 불과하였다. 사고시 거동 가능 정도의 경우 50.4%가 혼자서 거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농가 사고시 도움을 제공해 주는 이들이 전혀 없다는 응답이 71.8%이었으며, 도움 받은 경우 내용은 현금과 지지격려가 많았다.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었던 농가의 도움에 대한 만족도는 59.4%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1.2 영농도우미 욕구와 조건에 대한 응답자 요구

1) 영농도우미 욕구와 조건

응답자 중 지난 3년간 사고 경험 가구는 25.8%였다. 사고로 인해 62.7%가 농사일에 지장을 받았으며, 만약 사고가 발생할 경우 도움 받을 대상이 없다는 응답이 47.7%였다. 영농 및 출산도우미 제도에 대한 인지도에 있어서는 77.2%가 전혀 모른다고 응답했으며, 지역별로는 청원지역의 인지도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크게 높았다. 그러나 영농도우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83.3%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지역별로는 청원 > 무안 > 익산 순으로 나타났다. 영농도우미의 자격조건으로는 농사일 경험자를 선호하였다. 영농도우미의 1일 이용비용으로 평균 약 3.1만원(표준편차 2.058)정도면 활용하겠다고 응답했다.

2) 영농도우미 주관기관에 대한 의견

영농도우미 사업을 주관할 기관으로는 읍·면·동 사무소, 농협·축협이 적합하다는 응답이 높았다. 영농도우미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바로 바로 연결되는 체계구축, 숙련되고 능숙한 영농도우미 확보, 농민부담 최소화 등이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4.1.3 가사도우미 욕구와 조건

1) 가족원의 건강과 질병현황

노환, 장애, 그리고 질병을 앓고 있는 가족이 없는 경우는 42.0%만이 없다고 응답했다. 질병을 앓고 있는 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67.6%로 노환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응답자들의 질환은 1인당 평균 1.8개이며, 관절염, 노환, 좌골신경통, 고혈압이나 저혈압 등이 높았다. 응답자 중 78.8%가 병의원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64.4%가 많이 아픈 것으로 응답하였다.

2) 가사도우미의 욕구와 조건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혼자서 거동이 가능하다는 응답이 83.4%로 높았으나, 질환을 앓고 있는 가족이 있는 경우 환자에 대한 간병 등으로 인해 52.6%는 가사에 지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사도우미의 필요성 정도에 대해서는 전혀 필요없다는 응답이 37.0%로 가장 많았으며, 49.4%는 필요시 가족 구성원 중에서 도움을 받겠다는 응답이 높았다. 가사도우미의 필요성에 대하여 62.9%가 긍정하였다.

3) 가사도우미 주관기관 추진체계에 대한 견해

가사도우미 사업 주관기관으로는 읍·면·동 사무소, 농협·축협, 사회복지관 순으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김천의 경우 자원봉사센터와 농민단체를, 칠원과 무안의 경우 읍·면사무소를, 청원과 안성의 경우 농협·축협을, 익산의 경우 사회복지관을 다른 지역보다 더 선호하였다. 가사도우미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바로 바로 연결되는 체계 구축과 농민부담 최소화 비율이 높았다.

4.2 영농·가사도우미 참여예상자 및 지원체계 조사(2차 조사)

4.2.1 응답자의 일반적 사항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2차 조사의 응답자는 209명이었고 응답자의 소속기관을 보면 자활후견기관이 70.4%, 인력관리센터 4.3%, 실업종합지원센터 5.3%, 자원봉사센터 8.1%, 농협 12%이다. 응답자는 남자가 56명 27.2%, 여자 150명 72.8%로 여성의 비율이 훨씬 높다. 응답자 연령은 평균 45세이었으며 30대 22.9%, 40대 35.2%, 50대 35.8%로 비교적 젊은 인력들이었다. 응답자중 기혼자의 비율은 92.5%로 대부분이 기혼이었고 학력은 중졸과 고졸이 35.6%로 동일하게 나타났고 대졸 이하도 26.3%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응답자의 약 절반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현실은 매우 열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대상의 연령 구성은 실제로 농촌에서 농사일을 수행하기에는 적절한 연령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농업구조의 변화로 인해 여성의 일손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실정에서 볼 때 여성응답자가 많다는 것은 영농도우미와 가사도우미의 필요 요건을 확인하는데 좋은 구성이라고 볼 수 있다.

2) 농촌생활경험과 농촌정주에 대한 견해

농사경험이 전혀 없다는 응답은 34.1%,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농사경험을 했다는 응답은 58.0%로 농사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의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들이 농촌에 살 기회가 있다면 살아보고 싶다는 응답은 27.0%이고 고려해본다는 응답은 48.0%, 살지 않겠다는 응답은 24.0%로 현재 살겠다는 의지는 약해도 농촌의 생활조건이 변화한다면 농촌에 정착할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응답자들 중 다수는 농촌에 살게 될 장점으로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 30.9%, 자연친화적인 삶 37.7%로 응답했다. 농촌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응답자들이 인식하는 농촌의 어려움은 가장 크게 농가소득의 문제를 지적한다. 즉 농업을 주 소득원으로 하는 직업적 구조에 대한 희망은 매우 적다.

4.2.2 영농도우미 인지도와 필요에 대한 인식

1) 농가도우미 인지도와 필요도

영농도우미나 출산도우미에 대한 인지도는 모른다는 응답이 51.5%로 높다. 출산도우미에 대해서 33.2%만이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고 있었다. 그러나 농가의 사고나 장애로 인해 일시 농사일이 어려워진 농가를 도와주는 영농도우미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은 남성 80%, 여성 90.5%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 그 이유는 주로 도우미를 구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39.3% 농촌일이 힘들어서 갈려는 도우미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17.9%로 분석되었다. 이는 지원내용이 강화되지 않는 한 영농도우미 제도가 실행되기까지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2) 영농도우미의 자격과 참여조건

자격요건에 대한 의견은 농촌에 대한 애정을 38.3%로 가장 높게 응답했고 그다음 응답은 농사일 경험이 있어야 한다가 23.0%로서 농업을 전문 직업으로 인식하는 응답이 높았다. 영농도우미로서의 본인의 자격요건 준비정도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15.5%는 전혀 갖추지 않았다고 응답했고 조금, 대체로 그리고 상당히 갖추었다는 대답을 합하면 65.0%로서 응답자의 상당비율은 스스로 영농도우미로서 자격요건을 갖추었다고 생각하였다.

영농도우미에 참여할 의향에 대한 응답에서는 참여조건에 대해 자원봉사인 경우 참여할 의사는 22.9%로 응답하였으나, 일당의 비율을 4~6만원으로 인상할 경우 참여의사가 49.4%로 2배 이상 높아졌다. 따라서 영농도우미 제도가 실시되어 인력을 충분히 조달하기 위해서는 도우미들에 대한 차량제공과 4~6만원 정도의 일당지급, 농사기술에 대한 교육이 중요한 요건임을 알 수 있다.

3) 영농도우미 파견기관에 대한 견해

영농도우미 파견을 맡을 주관기관으로 가장 적절한 곳을 묻은 질문에는 자활후견기관을 30.6%가 지적했고, 읍·면·동사무소로 응답한 비율도 23.8%로 나타났다. 따라서 영농도우미파견에 있어서 공급자들의 척도는 직업적 전문성과 안정성에 비중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영농도

우미 파견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숙련되고 능숙한 농사기술, 필요할 때 연결되는 체계구축이 23.0%로 농업적 기술과 안정적인 공급을 주요 항목으로 응답하였다.

4.2.3 가사도우미의 조건과 참여요건에 대한 인식

1) 자원봉사의 필요성과 경험

우리사회와 이웃을 위해 자원봉사는 꼭 필요한가에 대한 의견에서 응답자의 84.5%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응답자들의 자원봉사 경험은 56.4%가 자원봉사 활동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험한 자원봉사 내용으로는 고아원, 양로원 방문봉사, 농촌봉사, 장애인이나 노인돌보기 등으로 가사도우미 서비스에 해당하는 내용이 많았다.

2) 가사도우미의 필요성

질병, 노환, 장애 등으로 인해 가사 일에 불편함이 발생한 농가에 대하여 가사 일을 도와주는 가사도우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55.2%나 되었으며, 대체로 필요하다는 응답까지 포함하면 가사도우미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확률은 92.1%로 나타나 매우 높았다. 가사도우미가 불필요할 것이라는 응답자에게 그 이유를 물어본 결과 농촌이 힘들어서 갈려고 하는 사람이 적다는 응답이 26.5%로 가장 많은 응답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이동이 어렵다는 이유도 23.5%로 매우 높았다. 따라서 가사도우미 사업에 많은 지원이 따르지 않는 한 인력수급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는 필요성은 있지만 가사도우미 인력수급에 있어서 어려움을 예상할 수 있다.

3) 가사도우미의 참여조건과 애로점

가사도우미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가를 몇 가지 조건별로 조사하였다. 가사도우미에 대한 참여의사는 지원조건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다. 완전 자원봉사 형태로 참여할 의향에 대해서는 참여의사가 있거나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응답이 15.1%에 불과하고 참여할 의사가 없다는 응답이 37.1%이다. 그러나 교통편이 제공된다면 참여하겠다는 의사는 25.4%로 완전자원봉사의 경우보다 10% 정도 참여의사가 높아졌다. 교통편과 점심을 제공할 경우 자원봉사 참여의향은 27.3%로 응답했고 교통편과 점심, 약간의 수고료를 지불할 경우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응답은 48.6%로 매우 높아졌다. 따라서 가사도우미 역시 완전 자원봉사에 의한 시스템 보다는 접근성을 강화하고 기본적인 수고비가 지급되어야만 인력의 확충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4) 가사도우미 활동의 애로점

가사도우미 참여활동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농가의 성격상 가사일과 농사일을 동시에 도와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40.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교통의 불편함에 대한 응답이 28.9%로 나타났다.

5) 가사도우미 파견기관에 대한 의견

가사도우미를 파견할 기관으로 가장 적절한 기관으로는 자활후견기관이 32.4%, 읍·면·동사무소가 23.0%로 나타나 영농도우미 파견과 유사한 응답결과가 나왔다. 향후 가사도우미 주관기관 예

정인 농협은 7.4%로 인지도가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가사도우미 활성화를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는 농사일에 전문성을 갖춘 도우미가 중요하다는 응답이 22.8%로 가장 높고, 적극적인 홍보와 더불어 필요할 때 언제나 구축될 수 있는 체계의 구축이 20.8%로 응답하였다. 농민부담의 최소화라는 응답도 14.9%에 이르렀다. 따라서 농가의 가사도우미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농사일에도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갖춘 가사도우미의 확충과 더불어 가사도우미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인력의 안정적 공급이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알 수 있다.

4.3 도우미 관리 예상 기관 운영자들과의 면담 조사 결과

1) 도우미 인력을 위한 교육 필요성

영농도우미에 있어서는 농사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이나 숙련에 대한 체계적인 습득이 필요하다. 영농도우미의 경우는 예상되는 인력을 위한 영농기술교육 과정을 반드시 수료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가사도우미에 있어서는 농촌의 취약농가의 경우 가사일 뿐만 아니라 목욕, 병수발의 기초적 도움, 말벗 등 종합적인 서비스 형태가 필요하기 때문에 농촌형 가사도우미의 역할에 대한 간단한 소양교육이 있어야 한다.

2) 도시 자원봉사 가사도우미의 조직화

농촌의 고령화현상과 맞벌이 강화추세로 인해 농촌에는 가사도우미로 활동할 봉사인력의 확충이 매우 어렵다. 도시부문에서 자원봉사센터나 여성단체에 속한 사람들과 연계된 네트워크를 통한 체계적 지원구조의 마련이 시급하다. 현재 가장 큰 어려움은 재정운영과 봉사인력 확보에서의 어려움이다. 따라서 인근 도시의 유희인력이나 봉사인력을 조직하여 연결하는 방안 등이 다양한 방식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3) 지원 체계들 간의 네트워크 구성

농가도우미 활성화를 위해서는 적극적 홍보활동과 더불어 지역 내의 관련된 기관간의 네트워크가 절실히 필요하다. 더구나 농가도우미의 초기 정착을 위해서는 지역인력 네트워크 추진체계 확립이 필수적이다. 농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농협은 그간 지역봉사 활동 등에 있어서 그 활동이 지극히 미미할 뿐 아니라 지역 내 봉사활동이나 인력지원기구와의 연대도 거의 없다. 또한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의 경우 본인 스스로 지원을 요청할 정보가 뒤늦기 때문에 읍·면·동사무소, 보건소 등과 복지지원체계 및 복지지원인력을 제공할 기관 사이의 긴밀한 네트워크가 절실히 필요하다. 특히 현재 농촌지역에 필요한 도우미체계는 시설이나 하드웨어적인 것만이 아니라 필요할 때 적시에 파견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 개념의 도우미가 보다 적극적으로 필요하며 지원체계간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필요한 대상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연결망이 중요하다.

4) 독자적 추진기구로서의 복지기관 필요성 검토

도시에서 농가도우미를 파견할 기구의 카운터파트 기구가 농촌지역에 있어야 하는데, 이를 맡을

기관으로서 응답자들은 읍·면사무소를 지적하였다. 만일 읍·면사무소가 지역사회복지센터의 기능을 가진다면 농가도우미 담당기관으로 적합할 수 있다. 또한 단위농협이 농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위농협도 농가도우미 담당기관으로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단위농협은 인력이 부족하고 복지전문기능을 갖추기 어렵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고 조사자가 면접한 단위농협 임원이 이 문제를 지적하였다.

농촌주민을 위한 지역사회복지관이 있다면 다양한 농촌복지 사업을 관장하고 농촌의 단위농협 및 도시 자원봉사기관과의 연계를 원활히 하면서 농가도우미를 파견하는 활동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농촌지역 내 가정복지 증진을 위해 읍·면 소재지 혹은 시의 외곽지대에 농촌종합사회복지관 시범운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5) 농가도우미 지원방식

지원방식에 있어서는 두 가지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는 지원액수에 대한 고려이고 둘째, 지원내용에 관한 것이다. 영농도우미의 지원액수에 있어서는 농사일이 고되기 때문에 액수가 지나치게 적을 경우 영농도우미 활동에 제약이 올 수 있을 것이다. 영농도우미의 경우는 4~6만원의 일당을 요구하고 있고, 가사도우미의 경우도 무료 자원봉사로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따라서 가사도우미의 경우에도 약간의 수고료 지급이나 실비 보상을 고려해야 한다. 자원봉사자 가사도우미도 가능할 수 있으나 농가의 수혜자 상황에 따라 유급 가사도우미도 필요할 수 있다. 가사도우미 지원내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제기된 것은 교통편이었다. 따라서 차량을 이용한 이동서비스가 동시에 제공되어야 한다.

6) 농가도우미 활동방식

농가에의 접근성과 교통편의를 고려할 때 가사도우미와 영농도우미 활동을 개별적으로 하기 보다는 마을단위로 활동이 이루어지면 효과적일 것이다. 특히 가사도우미의 경우 한명의 자원봉사자가 한 농가를 찾아 가는 방법은 교통측면이나 도우미활동 내용으로 보아 비현실적일 수 있으며 실제로 봉사자가 기피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마을 단위로 2-3명의 가사도우미를 파견하여 한 마을에서 동시에 여러 가정을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돌보게 하거나 여러 명의 가사도우미들이 집단적으로 마을의 수혜자들을 도와주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5. 결론

5.1 영농도우미 필요성 및 지원체계

조사대상 농가의 대부분이 고령화되어 있고 노인가구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질병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발생할 시 도움을 제공받을 수 있는 사회적 지지망이 취약하다. 따라서 농가의 사고와 장애로 인해 어려움이 발생했을시 영농에 결정적인 어려움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영농도우미의 필요성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농도우미 파견에 있어서 재정적인 지원이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다. 지원이 있을 경우 영농도우미 이용이 활발해 질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응답자들의 대부분이 영농 도우미의 요건으로 농사일에 대한 숙련도와 농사일의 성격상 시기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필요시에 즉각적인 파견이 가능해야 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따라서 영농도우미의 파견요구가 발생한 농가의 종류에 따라 작목별로 차별화된 영농도우미에 대한 사전 교육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축산·시설작목의 경우 일정 수준의 숙련도가 요구되기 때문에 영농도우미의 전문성 교육 및 인력관리가 중요하다. 축산의 경우 헬퍼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계절적 수급요인은 물론 당일 교통편 및 인력 규모 등에 있어서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운송체계에 이르기까지 통합적 지원망이 고려되어야 한다.

5.2 가사도우미의 필요성 및 지원체계

농가 가족원의 고령화·가족해체 등으로 인해 농가의 가정생활은 안정적이지 못하고 취약하다. 특히 현재 농가의 경우 보살핌이 필요한 농가의 경우 이웃의 자원봉사나 자녀들에 의한 지원으로 유지되기는 하나 거리상의 문제나 항상적 돌봄이 불가능하여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다. 이들 취약농가를 위한 정기적이고 일상적인 자원봉사자 가사도우미 체계가 필요하다.

가사도우미의 경우 집안일 뿐 만 아니라 고령자와 질환자의 비율이 높음을 고려해 환자 간병과 간단한 의료지식, 면담 및 정서서비스에 대한 교육이 사전에 필요하다. 고령화된 노인 가구의 경우 외로움에 대한 정도가 더 심할 수 있으며, 각종 질환 등으로 의료 정보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사도우미의 경우 단순히 가사노동에 해당하는 일뿐만 아니라 응급상황의 발생이나 기타 지원체계에 대한 연결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교육이 필요하다. 가사도우미 역할에 대해서 농가의 경우 가사 뿐만 아니라 농사도 같이 도와주는 것을 선호하며, 외부인에 대한 배타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가사도우미에 대한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모색되어야 한다.

가사도우미 인력충원에 있어서 도시부문에서 자원봉사센터나 농협 여성조직을 통한 자원봉사자의 농가 봉사가능성도 모색할 수 있다. 가사도우미 자원봉사자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도시부문 기관과 농촌 파트너의 연계 역시 중요한 방안의 일환이다. 특히 기존에 이웃들이 행했던 돌봄의 역할이나 인근 주민을 가사도우미로 활용한다면 배타성이나 긴급한 농사일 등에 대한 포괄적인 수요를 부분적으로 충족할 수 있는 방안으로 유용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효율적인 서비스의 제공과 인력확충을 위해서는 농촌지역의 관련 기관들 간의 네트워크가 중요하다. 그 동안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부족했던 농협은 자원봉사센터, 자활후견기관, 가정봉사원파견센터, 인력시장 및 종합적인 복지기관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네트워크를 유지하여 중복서비스가 아닌 효율적인 서비스가 되도록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6. 연구의 실용화 방안

1) 『도시-농촌의 지원체계』의 새로운 체계 시도

도시부분의 자원봉사자를 교육시켜 농가에 파견하여 봉사활동의 새로운 도-농 지원사업을 창출한다. 단순한 농가체험이나 관광이 아닌 생태, 농가 체험등과 봉사를 함께 할 수 있는 가족결연, 정기적 농가결연 자원봉사, 기타 필요시 봉사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농협의 여성조직, 자원봉사센터, 민간 여성조직 등의 '농가봉사지원단'을 추진하는 민간차원의 통합적 농촌네트워크를 구축에 기여한다.

2) 『농촌지역의 일자리창출의 적극적 모색』 시도

현재 농촌지역에 영농을 할 수 없지만 가사도우미는 가능한 인력이나 '자활후견센터'의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가사도우미'나 '영농도우미'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농촌지역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

3) 『농가인력지원제도에 대한 전문적 지원체계』 마련

농촌 인력 지원제도 추진기구의 시범적 운영을 위한 다양한 시스템을 활용한다. 현재 방안으로 농협·축협에 직할체제로 농가인력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방안, 농촌복지기관, 자활후견기관·가정봉사원파견센터 등 외부 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방식, 기존의 마을민이나 이웃지역민의 유희노동력을 활용하는 방식 등 다양한 지원체계를 시도하고 지역의 특성과 조건에 맞는 '인력지원제도 및 체계'를 확립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4) 『농촌형 영농·가사도우미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제도』 시범사업

영농도우미 및 가사도우미를 위한 교육 등에 대해서 기존 농업인 교육기관이나 지역의 평생교육원, 사회교육원, 농협이나 사회복지기관을 통한 전문교육제도를 통해 농가에 대한 도우미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제도 등을 모색하는 시범사업에 적용할 수 있다.

Summary

1. Title of project: A Study on the Helper System for the Needy Rural Families in Korea

2. Period: 2005. 8 ~ 2005. 12

3. Aim and necessity of research

3.1 Aim of research

This research is aimed at identifying the need of farming helpers through survey on rural families with difficulties due to accidents, diseases and impediments. It is also aimed at analyzing the need of home helpers in rural families due to illness and senility. With those to be concerned with a volunteer center, a self-supporting assistant organization, and a center for detaching home helpers, it will be researched on the participant possibility of home helpers and then examined the support system of helpers.

Through this research, the desire and possibility of rural families and home helpers will be grasped, and the support system for the rural families shall be provided.

3.2 Need for research

In Korean rural community agriculture shrinks and the residents' lives are deteriorated due to the high proportion of aged and female farmers. The population of rural area in 1990 was 11.1 millions and was 9.38 millions in 2000, which shows a decrease of 15.6%. In the ratio of rural population(farm and fishery household), it was 16.7% of total population in 1990, 9.2% in 2000 and 7.5% in 2004. The ratio of the old who are over 65 years old in 2004 is 15.6% in rural society and 6.7% in the city, which means the rural society is getting a aged society.

However, in spite of getting aging in rural society, there is much worse in education, medical service and social welfare than in the city. In the city, there are over 90% of medical centers, 93.6% of general hospitals, 89.5% of the wards, and 88% of people who are working for medical service.

For these reasons, there has been declining rural population, resulting insufficient extra labor force in the rural communities. When some problems occur in farm households, labor force

cannot be supplied immediately, which may cause hindrance to farming and daily lives. This situation calls for a support system for needy families faced with the problems mentioned above.

A survey on the farm households is prerequisite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support system. At the same time, there should be a research on the possibility of the helper for rural families.

4. Contents of research

The research consists of three parts: After the research on the documents existed, the first, need assesment of farm households, the second, the possibility of helper for needy families and the third, interviews with the staffs of related agencies.

The first part, th need assesment survey was executed in six rural villages in four Guns and two cities; Anseong, Cheongwon, Muan, Cheolwon, Iksan, Gimcheon. The field survey was processed from September to November 2005. 447 farm households were interviewed and put into analysis. The contents of survey is on family type, economic activity, disease and handicap of family members and needs for farming and home helper.

For the second research, Chungwon(including Chungju) and Iksan are random samples and 209 were questioned. For the third research, the organizations that are serving the helper activities were interviewed. The result is following.

4.1 Result of the first survey

1) General characters of respondents and households

Of those questioned, males are 57%. The average age is 60.37 (standard deviation is 11.37), which marks the tendency of aging. 54.0% of the respondents graduated only from elementary schools or received lower education. 79.8% are married. Although all are rural houses, 89.7% of respondents' occupations belong to agriculture, forestry or farming. The average number of family members is 3.00 (standard deviation 1.56). The percentage of families composed of husband and wife is 32.9%. 65.3% of families include old people over 65.

2) Agriculture and economic situation

The main crops are rice, facility crops and barley. By multiple responses, they are rice, barley and vegetables. The proportion of fruits is high in Gimcheon, rice in Muan, Anseong

and Cheolwon, vegetables in Iksan, and facility crops in Cheongwon. The average size of rice field is 4,336 *pyeong*. There is a wide range of variants between rural houses even in the same area. The average size of dry field is 1,845 *pyeong*. Agricultural income is a main income in 83.1%. The proportion is higher in remote Cheolwon, and lower in urbanized Anseong. The average income is 16,790 thousand won (standard deviation 17,297). The income is higher in Cheongwon and Choelwon, and lower in Gimcheon, Anseung and Iksan.

Living expenses are mainly spent for education, medical service and residence. There is high expense for medical service in Gimcheon and Iksan, education and debt repayment in Muan, medical service and education in Anseong, residence and debt repayment in Cheongwon. As for the living expenses, 22.4% is below 500 thousand won, and 35.6% is over 1,000 thousand won. The living expenses are higher in Cheongwon, Cheolwon and Muan. Only 6.1% answered that income is enough for living expenses, while 74.5% responded income is not enough. Only 34.6% have no debt. The average debt is 41,920 won (standard deviance 4669.66). The areas with higher income has more debts. As for the case of debt, 76.7% answered agricultural management and 17.0% answered education.

3) Farm households' difficulties, accidents and diseases

The most serious problems in farming is economic matters such as low income and repayment of debt, and of those questioned, 47.4% said. Medical matter is serious in Iksan, repayment of debt in Cheorwon, low income in Muan and Iksan. 79.8% indicates the difficulty of farming, which is high in Cheongwon and Iksan with low income. Economic support and provision of medical and educational service might be the resolution. Among those who have experienced accidents, 48.7% are over 65. Traffic accidents and accidents caused by mechanical devices are common. 69.8% were hospitalized and the average period of treatment is 12.05 month. Only 5.4% answered no treatment at all. 50.4% could not move by themselves when wounded. 71.8% answered that they received no aid at all. Among those who received aid, money and encouragement were the common methods. 59.4% were satisfied with the aids.

4) Requirement and conditions of rural helpers

25.8% of the families have suffered from accidents for the past 3 years. 62.7% of those who have experienced accidents had difficulties in farming. 47% of the families cannot expect aid when accidents occur. 77.2% are unaware of rural helpers. The percentage of awareness of the helper system in Cheongwon is higher than those of other areas. The residents, especially in Chŏngwon, are afraid that the helpers have no farming skills. In Cheolwon and Cheongwon, which is not easily accessible by traffic, the residents are afraid that a helper will not come quickly when needed. In Iksan, where income is the lowest, the burden of cost was high. In

Gimcheon, more people said that outsiders cannot be trusted. Generally people preferred those who have experience in farming. The average cost for a helper per day is 31 thousand won (2.058).

5) Opinions on institution presiding over farming helpers

Mainly the offices of Eup, Myon, Dong and farmers Cooperatives are considered to be the institutions to perform the task of rural helper project. In Gimcheon and Muan, more agricultural associations perform the task. In Anseong and Cheongwon, agricultural cooperatives are preferred. In Cheolwon, the Offices of Eup, Myon, Dong are preferred. To proliferate farming helper system. The efficient connection should be set up, skilled farming helpers need to be recruited, and the residents' burden should be minimized.

6) Family members' diseases

Only 42% of families are free from any handicap, disease and senile infirmity. 67.5% of those who belong to these cases are over 65. The average number of disease per person is 1.8. Arthritis, sciatica, high blood pressure and low blood pressure were merely found. 78.8% of respondents go to hospital and 64.4% are seriously sick.

7) Requirement and condition of home helpers

As for household management, 83.4% answered that they can manage by themselves. 52.6% have problem in domestic labor. 37% need no domestic aid. 49.4% choose family members for helper. 62.9% approved of the necessity of home helper. The percentage of necessity is higher in Cheongwon and Muan, and is lower in Cheolwon. 69.5% answered that they do not need any home helper for themselves. The percentage of this response is higher in Muan, and lower in Anseong and Cheolwon. In Gimcheon, reliance on family members is higher than other areas. In Muan a helper should work both for farming and domestic work. In Cheolwon, outsiders are not trusted.

8) Opinions on institution to manage home helpers

Mainly the offices of Eup, Myon, Dong and rural Cooperatives and social welfare centers are considered to be the institutions to perform the task of rural helper project. In Gimcheon voluntary activity center and agricultural associations are preferred. In Anseong and Cheongwon, cooperatives of stock raisers is preferred. In Cheolwon, the Offices of Eup, Myon, Dong are preferred. To proliferate domestic helper system, the efficient connection should be

set up, skilled farming helpers need to be recruited, and the residents' burden should be minimized.

4.2 Result of the second survey

The second survey for finding possibility of man power as helpers was executed in two areas: Iksan and Cheongwon.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The number of respondents in the second survey is 209. 76 residents(36.4%) live in Cheongwon, 11(5.3%) in Cheongju, and 122(58.4%) in Iksan. 70.4% of the respondents are working for self-assistant organization, 4.3% working for center for managing helpers, 5.3% working for assistant center for unemployment, 8.1% working for volunteer center, and 12% working for National Agricultural Cooperative Federation. Of those questioned, 27.2%(56 respondents) are men and 72.8%(150 respondents) are women. The average age of the respondents were 45. 92.5% of them were married. The proportions of graduates from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are same:35.6%. A half of the respondents get government subsidies. The age of respondents are proper to farm working. Especially with a viewpoint of change of agricultural system, requirement for women laborers is increasing.

2) Farming Experience and living in rural community

58.2 % answered that they have farming experience, while 34.2% have not. 26.3% want to live in rural area, and 46.9% consider living there. Meanwhile, 24.2% do not want to live there.

Many of respondents answered that the advantage of living in rural areas is a clean environment(32%) and natural life(36%). Most respondents are favorable to rural life. Especially, 70.9% of 40s are willing to remain in rural area. The respondents indicated the main problems of rural community such as low income(30.6%), education(17.5%) and untrust of government policy(15%). They have little hope of farming as a job.

3) Rate of recognition of and need for farm helpers

51.5% answered that they have not heard of farm helper. The rate of recognizing farming helper is highest in ages over 50. 97% said the necessity of farming helper. In case of answering unnecessary, Male's recognition rate(16%) is higher than that of female(11%). In

terms of age, the recognition rate is highest over 50s.

As for the conditions for farm helpers, it was indicated that the helpers, first of all, should have affection for rural community(38.3%), and then they should have experience in farming(23%). Among the respondents, 15.5% answered that themselves are not prepared at all for helper, and 65.1% are prepared to the varying degrees.

In case of voluntary activity, 22.9% were willing to participate as a farming helper, and 31.8% answered negatively. If the payment is below 30 thousand won per day, only 16% were to participate, while 50% were not. If the payment is 40 to 60 thousand won per day, 49.4% were likely to work, while 15.1% responded negatively.

4) Qualification and Condition of farm helpers

As a qualification for farm helpers, 38.8% said the affection for rural society is most important, and 23.0% answered the experience of farming. As to the conditions as a farm helper, 15.5% are not ready for, 65%(including a little, largely, and considerably) said they have qualification themselves.

22.9% wanted to be a farm helper as a volunteer, but in case that they could get some daily wages(40-60 thousands won per a day), 49.4% of respondents wanted to be a farm helper. As a result, for systemization of farm helpers, vehicles, daily wages, and the education for farm helpers should be provided.

5) Organization to detach farm helpers

Of those questioned, 30.6% said self-supporting organization is most proper to detach farm helpers and 23.8% of respondents thought governmental organizations such as Eup, Myun, Dong office are appropriate, which shows the speciality and the stability are kind of important to supply farm helpers. Most important sector to detach farm helpers, 23.% said skilled labor should be required. The linked system, agricultural skill and safe supply are needed in order.

6) Need for farm domestic helper

Of those questioned, 84.5% said there should be a volunteer for our society. 56.4% of respondents have the experience of volunteer. They merely participated in activities at orphan asylum, a home for the age and agricultural services, caring for the handicapped and the old.

55.2% answered that there is much need of the helper for farm families troubled with illness and senility. 26.1 % said that not many people would like to go to rural community as voluntary domestic helper. The difficulty of transportation is another main reason (24.6%).

7) Condition of farm domestic helper

The rate of the respondents'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voluntary work as farm domestic helper differs depending on conditions. In case of entirely voluntary work, only 15.1% were willing to participate and 37.1% were not willing to participate. If transportation is provided, 25.4% were to participate. If transportation and lunch are provided, 21.2 % were positive. If payment is added to transportation and lunch, 48.6% were very positive.

42.7% indicated that the most serious difficulty of participating in farm family helper is that one should help both domestic labor and farming. Secondly, 33.3% indicated the uncomfortableness of traffic.

8) Organization to detach farm domestic helpers

32.4% of respondents said self-supporting organization is most proper to detach farm domestic helpers and 23.0% answered governmental organizations such as Eup, Myun, Dong office are appropriate, which is similar to the result about organization to detach farm helpers.

To make farm domestic helpers active, 22.8% said the helpers who have a skilled labor for agriculture are required, and 20.8% answered active information and system are important. 14.9% thought the burden of farmers should be minimized.

4.3 Result of The depth interview with the staffs of related social welfare agencies

The depth Interview with the Staffs of Related Social Welfare Agencies was carried. The following is the summary of what the interviewees indicated.

It is very difficult to secure man power for family helpers in rural areas. Mobilizing man power in nearby cities needs to be considered.

The district branch offices of Agricultural cooperative, with the information of rural families, have not been sufficiently connected with regional voluntary workers and social service agencies. To resolve these problems, the networks of involved institutions for rural needy families need to be formed.

The offices of Eup, Myon and Dong, and cooperative may serve as an institute to manage farm helpers. However, social welfare center as an independent institute can be a more effective way for that purpose.

In terms of method of supporting farm helpers, the amount of money and its content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Too low payment might cause a hindrance to the activities of farm helpers. farm helpers require 40-60 thousand won per day, domestic helpers would not be entirely free either.

When it comes to the way of farm helpers' activity, the activity of helpers needs to be organized by the unit of village. In consideration of accessibility to rural houses by transportation, it is inefficient for a voluntary worker to visit a rural house.

5. Conclusion

Rural families are at stake due to the acceleration of senility.

In rural areas, because the percentage of families with old people is very high and the rural families are small-sized, rural lives are vulnerable to accidents and diseases, and a connection for help is not reliable. For these reasons, farming helpers are needed.

With government's subsidiary, rural family helpers should be provided through the branches of agricultural cooperatives. Farming helpers should be educated for the crops of rural houses to which they are sent. Especially in stock raising and facility crops, skills at a certain level are required. A system that can provide support immediately should be set up. In such a total system, seasonal demand and provision, traffic and the number of helpers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The voluntary home helper is needed for rural families. The domestic helpers should be educated to be able to care for the old and sick physically and mentally with medical knowledge to some extent.

Definite criteria for the task of home helpers are required. In farm households, the helpers' aid to farming is preferred. The villagers' aversion to outsiders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Urban volunteers may serve for rural families through voluntary service center and women's organizations. For the stable supply of voluntary farm helpers, rural social welfare system on the whole should be examined, and there should be preparation for new social organizations.

6. Practical Use of Research Result

Implementation of new project of sending family helpers to rural households at stake through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of Eup, Myon and Dong and branches of agricultural cooperatives.

Project of sending urban volunteers educated for rural families for their stable lives is needed. For sending domestic helpers, voluntary service center and civil women organizations need to be associated with the organizations of agricultural cooperatives.

Some ways of using other institutions at cost as well as cooperatives need to be sought for. The evaluation on these various managing ways should be prepared for.

제 목 차 례

국문요약	i
Summary	xi
목 차	xix
1. 서론	1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1.2 연구의 목적	4
1.3 연구내용 및 범위	4
1.4 연구방법, 연구기간 및 연구의 제한점	5
1.4.1 연구 방법과 연구기간	5
1.4.2 연구의 제한점	5
2. 영농도우미 및 가사도우미 욕구조사	7
2.1 조사의 목적 및 내용	7
2.2 조사대상과 조사방법	8
2.2.1 조사 지역 선정	8
2.2.2 조사방법과 조사기간	8
2.2.3 자료 분석 방법	8
2.3 응답자의 일반적 성격	9
2.3.1 조사지역과 응답자의 특성	9
2.3.2 응답자 가족 구성	10
2.4 영농도우미 욕구와 지원인력 추진체계	12
2.4.1 응답가구의 농사와 경제상황	12
2.4.2 농가의 애로사항과, 사고와 질병	22
2.4.3 영농도우미 욕구와 도우미 조건	27
2.4.4 취약농가의 영농도우미 추진	32
2.5 취약농가의 상황과 가사도우미 욕구	34
2.5.1 가족원의 건강, 질병	34
2.5.2 가사도우미 욕구와 도우미 조건	37
2.5.3 가사도우미 욕구와 지원인력 추진	40
3. 영농·가사도우미 참여 예상자 조사	43
3.1 조사목적과 내용	43
3.2 조사지역 선정과 조사방법	43
3.2.1 조사지역 선정	43
3.2.2 조사방법과 조사기간	44

3.3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44
3.4 영농도우미 참여조건과 추진체계	47
3.4.1 영농경험과 농촌정주에 대한 견해	47
3.4.2 영농도우미 인지도와 필요도	51
3.4.3 영농도우미의 자격과 참여조건	53
3.4.4 영농도우미 파견기관	65
3.5 자원봉사와 가사도우미 추진체계	68
3.5.1 자원봉사의 필요성과 경험	68
3.5.2 가사 도우미의 필요성과 추진체계	72
4. 영농·가사도우미 추진체계 논의 및 제언	83
4.1 농가육구조사 및 도우미 참여예상자조사 결과	83
4.1.1 영농·가사도우미 육구조사 결과	83
4.1.2 영농·가사도우미 참여예상자 조사결과	84
4.1.3 도우미 관리 예상 기관 운영자들과의 면담 조사 결과	87
4.2 영농·가사도우미 추진체계에 대한 논의	89
4.2.1 농가도우미 지원에 관한 외국사례	89
4.2.2 우리나라의 영농·가사도우미 추진체계 논의	91
4.3 제언	95
참고문헌	97
부 록	99

표 차 례

<표 2-1> 영농도우미 및 가사도우미 욕구조사 내용	7
<표 2-2> 영농·가사도우미 이용 예정자(1차조사)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9
<표 2-3> 응답자의 혼인상태 및 학력	10
<표 2-4> 응답자 가구의 가구원수	10
<표 2-5> 응답자의 가족유형	11
<표 2-6> 응답자의 노인중심 가족유형	11
<표 2-7> 응답자의 가족내 위치	11
<표 2-8> 응답자 가구의 직업	12
<표 2-9> 응답 농가 경작지의 경영 규모	13
<표 2-10> 지역별 주요작목 경영규모	14
<표 2-11> 조사대상 농가의 경영규모(소득) 순 주요 작목	14
<표 2-12> 조사지역별 경영규모(소득)순 주요 작목 1순위	15
<표 2-13> 응답 농가의 소득 비중	15
<표 2-14> 지역별 응답 농가의 소득 비중	16
<표 2-15> 지역별 응답 농가 소득 규모	17
<표 2-16> 응답자의 생활비 지출 내역	18
<표 2-17> 지역별 생활비 지출 비중(1순위)	19
<표 2-18> 지역별 생활비 소요비용	20
<표 2-19> 응답자의 소득 대비 지출의 생활정도	20
<표 2-20> 지역별 빚 유무	21
<표 2-21> 지역별 빚진 이유	21
<표 2-22> 지역별 농사짓는데 어려운 점(걱정거리)	22
<표 2-23> 지역별 농사짓는데 어려운 점(걱정거리)의 어려움 정도	23
<표 2-24> 지역별 응답자의 3년간의 사고경험	23
<표 2-25> 사고 경험자의 사고 경험	24
<표 2-26> 사고 경험자의 사고 유형	24
<표 2-27> 사고 경험자의 치료법	25
<표 2-28> 사고 경험자의 후유증 정도	25
<표 2-29> 사고 당시 거동 정도	25
<표 2-30> 사고 시 도움 제공자	26
<표 2-31> 사고 시 도움 받은 내용	26
<표 2-32> 사고 시 도움 받은 내용에 대한 만족도	26
<표 2-33> 사고로 인한 농사일 장애정도	27
<표 2-34> 사고 시 도움제공 가능자	27
<표 2-35> 지역별 도우미제도 인지도	28
<표 2-36> 지역별 영농도우미의 필요성	29
<표 2-37> 지역별 영농도우미 이용시 불편한 이유	30
<표 2-38> 지역별 영농도우미 자격조건	31

<표 2-39> 지역별 영농도우미 하루이용 비용 부담액	31
<표 2-40> 지역별 적절한 영농도우미 주관기관	32
<표 2-41> 지역별 영농도우미 활성화 방안	33
<표 2-42> 응답자의 가족 중 노환, 장애, 질병가족원 유무	34
<표 2-43> 응답자 가족의 중 질환자의 가족형태	34
<표 2-44> 가족 내 질환자의 질환 내용	35
<표 2-45> 질환자의 치료 정도	35
<표 2-46> 질환자의 아픔과 장애 정도	36
<표 2-47> 질환자의 거동 정도	36
<표 2-48> 질병 장애로 인한 가사 수행의 어려움	36
<표 2-49> 질병 시 가사 도움 제공자	37
<표 2-50> 질병, 노환, 장애 발생 시 가사도우미의 필요성	37
<표 2-51> 지역별 가사도우미의 필요성	38
<표 2-52> 지역별 응답자 가정에 가사도우미의 필요성	39
<표 2-53> 지역별 가사도우미 이용 시 불필요·불편한 점	39
<표 2-54> 지역별 가사도우미 사업의 주관기관	40
<표 2-55> 지역별 가사도우미 활성화 방안	41
<표 3-1> 영농·가사도우미 참여 예상자 조사 내용	43
<표 3-2> 영농·가사도우미 참여 예상자(2차조사)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45
<표 3-3> 학력, 혼인유무 및 수급권자 여부	45
<표 3-4> 과거 및 현재의 직업 비교	46
<표 3-5> 응답자의 영농경험 유무	47
<표 3-6> 향후 농촌정착에 대한 희망여부	47
<표 3-7> 농촌의 거주 장점과 어려운 점	48
<표 3-8> 농촌 문제에 대한 어려움의 정도	49
<표 3-9> 성별 농촌에 사는 경우 장단점 분석 결과	49
<표 3-10> 소속기관별 농촌거주의 장단점	50
<표 3-11> 성별, 연령별 농촌거주 희망 여부	50
<표 3-12> 영농도우미와 출산농가도우미에 대한 인지도	51
<표 3-13> 사고와 장애로 일시적인 영농도우미의 필요성 인지도	52
<표 3-14> 성별 영농도우미 불필요 이유 교차분석	53
<표 3-15> 영농도우미의 자격요건	53
<표 3-16> 영농도우미의 자격요건 인식	54
<표 3-17> 소속기관별 영농도우미 자격요건에 대한 인식	54
<표 3-18> 영농도우미로서의 자신의 조건	55
<표 3-19> 자원봉사로 영농도우미 참여할 의향	56
<표 3-20> 일당 3만 원이하인 경우 영농도우미 참여 의향	56
<표 3-21> 일당 4-6만원인 경우 영농도우미 참여 의향	56
<표 3-22> 지원내용에 따른 참여의사 정도	57

<표 3-23> 성별 지원조건에 따른 영농도우미 참여도	57
<표 3-24> 소속기관별 지원조건에 따른 영농도우미 참여의사	58
<표 3-25> 연령별 지원조건에 따른 영농도우미 참여의사	60
<표 3-26> 학력별 지원조건에 따른 영농도우미 참여의사	61
<표 3-27> 농사경험유무에 따른 지원조건에 따른 영농도우미 참여의사	62
<표 3-28> 영농도우미 참여시 어려움	63
<표 3-29> 소속기관별 영농도우미 참여 시 어려움	63
<표 3-30> 연령별·성별 영농도우미 참여 시 어려움	64
<표 3-31> 영농도우미 파견 주관 기관으로 가장 적절한 곳	65
<표 3-32> 소속기관별 영농도우미 파견 주관기관에 대한 의견	65
<표 3-33> 학력별·성별·연령별 영농도우미 파견 주관기관에 대한 의견	66
<표 3-34> 영농 도우미 파견 활성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	67
<표 3-35> 자원봉사 필요성	68
<표 3-36> 연령별 자원봉사의 필요성	68
<표 3-37> 소속기관별 자원봉사 필요성 인지도	69
<표 3-38> 자원봉사 참여의사 여부	69
<표 3-39> 소속기관별, 성별 자원봉사 참여의사 여부	69
<표 3-40> 농촌에 자원봉사 파견여부에 대해	70
<표 3-41> 연령별, 소속기관별, 성별 자원봉사경험	71
<표 3-42> 자원봉사 경험내용	71
<표 3-43> 자원봉사 경험에 대한 만족도	72
<표 3-44> 가사도우미 필요성	72
<표 3-45> 가사도우미가 불필요한 이유	73
<표 3-46> 지원내용에 따른 자원봉사 참여의향	74
<표 3-47> 소속별 지원내용에 따른 가사도우미 참가 의향	75
<표 3-48> 연령별 지원내용에 따른 가사도우미 참여의사	76
<표 3-49> 자원봉사 경험별 가사도우미 지원조건에 따른 참여의사	77
<표 3-50> 가사도우미로 참여하는 데 예상되는 어려움	77
<표 3-51> 성별·연령별 가사도우미 파견의 애로사항	78
<표 3-52> 가사도우미 파견기관으로 가장 적절한 곳	78
<표 3-53> 성별, 연령별 가사도우미 파견기관으로 가장 적절한 곳	79
<표 3-54> 가사도우미 활성화 방안	80
<표 3-55> 가사도우미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것	81
<표 4-1> 주요 외국의 영농인력 지원제도	90

그 립 차 례

(그림 1-1) 농산어촌 삶의 질 실태조사 결과	2
(그림 4-1) 현행 농어촌 복지관련 취약농가 지원시스템	91
(그림 4-2) 취약농가 지원 체계 모델	94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현재 우리나라의 농촌지역은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농산물 수입자유화와 이로 인한 농산물 가격의 하락, 원자재 가격의 상승 등으로 농가수지는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 또한 도시지역에 비해 인구의 고령화, 가족구조의 변화 등 농촌사회 구조변화로 인한 복지욕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농어촌 인구는 '90년 1,110만명에서 '00년 938만명으로 15.6% 감소하였고, 인구 3천명 이하인 면도 '90년 152개에서 2000년 447개로 크게 증가 하고 있다¹⁾.

- 농어가 인구 비중 : (90) 16.7% → (00) 9.2% → (04) 7.5%
- 농어촌 인구 비중 : (90) 25.6% → (00) 20.0%

농촌지역의 고령화 현상도 급격하게 진전되고 있는데 만 65세이상 노령인구 비율은 1999년에 9.0%로 고령화사회, 2000년에 14.7%로 고령사회(Aged Society)에 진입해 있다²⁾. 특히, 농촌노인 중 60.2%가 노부부가구(39.0%)나 독거노인 가구(21.2%)로서 노인들만 생활하고 있는 가구가 급증하고 있다³⁾. 농촌지역의 이러한 현황은 갑작스런 사고나 노령화에 의한 건강악화 등의 요인으로 인한 어려움에 대해 대응할 능력이 매우 취약하여 농사 및 가사활동에의 어려움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농촌지역의 노령화 현상은 가속화되고 있으나 청장년층의 영농 진입은 확대되기는커녕 오히려 농촌지역의 청장년층의 도시로의 유출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영농인구의 재생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농촌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고령화 이외에도 농촌의 경우 자녀양육 및 교육 여건, 문화생활 여건이 부족하며 농촌 주민의 66%가 자녀교육 여건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주숙·김은영, 2004). 이는 농촌지역사회의 활력을 떨어뜨리며, 청장년층의 이농을 부추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2004년 기준 농촌지역 노인인구의 성별 구성을 살펴보면 여성노인이 60.8%로, 남성노인의 39.2%보다 매우 높은 비율이며⁴⁾, 특히, 농촌여성 노인의 64.7%가 남편과 사별하여 혼자 사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어⁵⁾, 농촌여성노인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⁶⁾.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가족구조의 변화와 함께, 농촌지역에서도 부부의 이혼, 별거, 가출 등으

1) 농림부 (2005), 제1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p3

2) 통계청 (2005), 2005년 고령자 통계, p4

3) 9개도별 농가인구크기 비례 표본 할당에 의해 선정된 50개군, 52개 읍·면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남녀 노인 520명을 대상으로 수행된 농촌노인 생활·복지실태 설문조사 결과임(농림부·한국여성정책개발원, 2002)

4) 농촌자원개발연구소 (2005a), 농촌·도시 노인의 삶의 질 비교분석, p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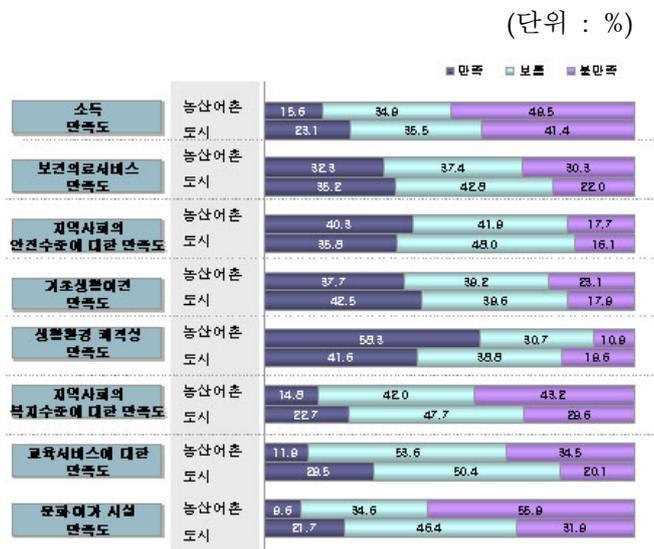
5) 전계서, p18

6) 이정화외3인 (2003)에서 농촌지역사회 내에서 사회적 지원망은 그 안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매우 중요하고, 그에 대한 확대를 위한 지역사회 차원의 도움이 필요하며, 특히 집에서 소일하는 경향이 여성노인의 특징이므로(이정화·한경혜, 2003) 농촌여성노인들에게 사회적 고립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로 인해 한 부모가족과 조손가족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사회복지적 서비스는 도시에 비하여 열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농촌의 취약가구는 도시에 비하여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같이 농촌지역은 사회복지 서비스의 필요가 도시지역보다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복지 부문별 도.농간 비교를 통해 볼 때 대부분의 복지 지표들에서 농촌이 도시에 비해서 크게 뒤떨어져 있음이 이미 지적되었다(박대식외, 2001).

또한 (주)미디어리서치가 '04.8~11월중 표본 5,000가구(농산어촌 3,500, 도시 1,500)를 대상으로 농산어촌의 삶의 질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농어촌 복지수준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잘 알 수 있다. 조사결과 농산어촌의 생활환경 쾌적성과 지역사회 안전수준에 대한 만족도는 도시보다 높았으나, ①문화·여가시설(9.6%), ②교육(11.9%), ③복지(14.8%), ④소득(15.6%)에 대한 만족도가 크게 낮음을 알 수 있다(농림부·미디어리서치, 2004).



(그림 1-1) 농산어촌 삶의 질 실태조사 결과

자료: 농림부·미디어리서치 (2004), 농림어업인등에 대한 복지실태등 조사, p3

실제로 사회복지 정책·행정에서 농촌복지는 주요대상에 제외되고 있으며, 사회복지관이나 자원봉사센터 등의 사회복지 인프라도 부족한 상황이다. 사회복지관의 경우 62%가 대도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36%가 중소도시에 위치하여 98%가 도시 중심으로 운영되고, 노인복지관의 65%가 광역시와 경기도에 위치해 있다. 이는 사회복지관의 경우 인구 10만명당 1개소라는 설립규칙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농촌형 사회복지관은 아직까지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농촌지역 주민들의 복지시설 이용경험은 15%로 매우 낮으며, 60세 이상의 노인들은 10% 내외로 더욱 낮았다. 도시에서 많이 실시되고 있는 도시락 및 밑반찬 배달 서비스나 가사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는 농촌의 노인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김주숙·김은영, 2004).

현재 중앙 및 지방의 사회복지행정 담당 부서는 도시주민을 주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농촌지역에서의 복지사업을 담당하는 곳은 농업기술센터나 농협 등 농업관련 기관 및 단체가 주를 이루고

있으나, 이러한 기관들은 아직 전문성을 갖추고 있지 못해 농가에 필요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농촌의 특성을 고려한 농촌복지 분야를 전담할 수 있는 기관 및 전문인력의 배치가 시급한 상황이다(김주숙·김은영, 2004).

새로운 농촌형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시간, 인력,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장기적 발전계획 속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지금 필요한 농촌의 사회복지 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실적 대안으로 단기간에 실시가 가능한 농사 및 가사지원과 같은 인력지원 중심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도시와 농촌간의 유희인력을 활용하여 서비스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교육·훈련하고 배치할 수 있는 연결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일정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농촌복지 서비스의 허브를 담당할 기관으로 기존의 농협 조직의 활용이 적절하다고 보고되고 있어(박대식 외, 2003), 전국적인 농협의 조직망을 이용한 농촌복지 서비스의 지원체계에 대한 연계 연구의 가능성도 타진할 수 있을 것이다.

농촌복지 서비스의 경우 농업을 중심으로 한 활동과 고령화, 가족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농가의 농업 및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시급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상시적으로 농가에 지원할 수 있는 전달체계가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농가의 사고 및 장애 발생을 추정하고 농가생활 현황 및 가사도우미 필요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가 필요하며 동시에 농사지원 및 가사도우미 참여에 대한 가능성을 파악해야 하며, 더욱 중요하게는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의 추진체계 확립을 위한 연구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농촌지역 취약농가에 대한 인력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연구함으로써 안정적인 영농과 농가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확립하여 농촌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목적이 있다. 취약농가에 대한 지원방안의 다양한 영역 중에서 본 연구의 집중적인 연구 내용은 농가의 사고 발생시 인력을 지원하여 사고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농가소득을 보전하며, 증가추세에 있는 농촌의 한 부모가족, 조손가족, 노인단독세대 등 취약농가에 대한 가사 및 영농 인력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농촌지역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서 가능하고 효율적인 지원시스템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목적에 따라 실시한 조사·연구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농가의 사고 및 장애 경험 정도 및 현황에 대한 조사를 파악하고, 사고 발생시 농가가 필요로 하는 인력의 여건과 필요에 대한 요구도가 어떠한지를 연구한다.
- 둘째, 취약농가의 가사수행정도과 가사도우미에 대한 욕구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한다.
- 셋째, 사고농가와 취약 농가를 위한 영농도우미 및 가사도우미의 참여가능 인력과 활동성을 가진 기관의 공급자의 요구도와 조건에 대해 연구한다.
- 넷째, 영농도우미 및 가사도우미 사업 추진을 위한 취약농가 인력지원체계를 검토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연구한다.

1.3 연구내용 및 범위

본 연구는 농촌가구에 대한 영농 및 가사 도우미 욕구조사와 도우미 참여 예상자에 대한 조사가 중심 내용이다. 우선 전국 6개도에서 목적표집으로 선택한 6개의 면단위 마을 전수조사를 통하여 농가도우미와 가사도우미의 욕구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 지역은 어촌, 산촌 등을 포함한 농촌지역으로 447가구의 농가를 조사하였다.

조사 지역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벼농사를 중심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농촌특성을 고려함과 동시에 다양한 농업적 특성을 가진 지역을 선정하려고 하였다. 우선 철원지역은 논농사를 중심으로 하면서 산악지역이면서 비무장지대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 시설작목의 비중이 빠르게 늘어나는 곳이다. 전남 무안의 해제면과 현경면은 어촌지역의 특성과 농촌지역, 특히 밭농사 중심의 특성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곳이다. 익산은 전형적인 평야지대의 논농사지역이며, 안성은 도시화가 가장 많이 진전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청원의 경우 시설작목의 비중이 높은 곳이며, 교통의 요지이기도 하다. 김천의 경우 과수농사의 비중이 높고, 시설작목도 비교적 적지 않은 곳이기도 하다.

조사 내용은 가족형태 및 구성원, 경제생활 및 복지욕구, 사고농가 실태, 농가도우미 욕구, 질병 및 장애 실태, 가사도우미 욕구, 기타 제언으로 구성되어 있다.

농가도우미 참여 예정자에 대한 조사(2차 조사)는 1차 조사지역중에서 청원과 익산의 두 지역을 선택하여 수행하였다. 2차 조사에서는 지역 내의 자원봉사센터, 자활후견기관, 실업극복국민운동본부, 농협여성조직 등을 조사대상 기관으로 선정하여 이 기관에 관련되어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공급자 209명에게 영농도우미와 가사도우미의 참여 가능성을 조사하였다. 동시에 조사를 통해 취약농가의 인력지원을 위한 추진체계도 검토해보았다. 추진체계에 대한 검토는 외국의 사례를 연구하고 2차 조사 수행지역에서 농협, 행정기관 및 복지기관들의 도우미사업 연계성에 대한 면담을 통한 구체적인 현장자료를 통해 우리 실정에 맞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1.4 연구방법. 연구기간 및 연구의 제한점

1.4.1 연구 방법과 연구기간

본 연구는 관련 문헌을 검토하여 농가의 농사·가사도우미의 필요욕구와 도우미 참여가능한 대상자의 참여욕구에 대한 파악을 중심으로 하는 기초조사서를 만들어 대상농가 및 공급가능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조사는 2단계로 나누어 실시되었는데, 1차 조사는 영농도우미 및 가사도우미 욕구조사로서 2005년 9월~10월에 조사원이 농가를 일일이 방문하여 구조화된 조사표를 사용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 조사결과의 분석을 토대로 도우미 참여가능자에 대한 조사표를 완성하였고, 구조화된 조사표를 사용한 배포조사로 2005년 11월에 실시하였다. 2차 조사를 위해 두 지역의 관련기관들을 방문하여 담당자들에게 조사목적을 설명하였고 기관에 속한 참여예상가능자들에게 조사하였다. 이때 기관담당자들에게 기존의 농촌도우미제도 등 현재 농촌지원관련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활동들과 장래의 도우미활동 추진체계에 대해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1.4.2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농촌지역의 농가를 대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들 대상을 연구 목적에 따라 임의로 지역을 표집하였기 때문에 일반화에 있어서 한계를 갖는다. 또한 연구기간과 비용 및 역량의 한계로 조사지역을 6개도의 6개 마을로 선정하였으며, 도우미 참여 조사에 있어서도 관련기관의 담당자나 참여자 전수를 조사하지 못하고 일부 담당자의 면접과 일부 참여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조사대상 마을 내에서는 전수 조사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농가의 특성을 어느 정도는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취약농가 인력지원 추진체계에 대해서는 전국적이고 면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제한점이다. 그러나 대상 지역 중 사회복지 관련 활동이 비교적 활발한 지역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추진체계에 대한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었고 특히 조사지역에서 관련 담당자와의 면접조사 및 자원봉사 및 가사도우미와 유사한 지원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공급대상 인력의 의견을 통해 얻은 내용을 추진체계 연구에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성과 구체성은 부분적으로 보완될 수 있었다.

2. 영농도우미 및 가사도우미 욕구조사

2.1 조사의 목적 및 내용

본 조사는 사고, 질병, 장애로 인하여 농사짓는데 일시적으로 불편함이나 어려움이 생긴 취약농가를 조사하여 영농도우미의 욕구를 파악하고, 동시에 노령화로 인해 가사수행이 어려워진 농가의 가사도우미 욕구를 조사하여 취약 농가의 영농도우미 및 가사도우미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가 되도록 한다. 조사를 통해 취약농가의 실태를 파악하고 영농 및 가사 도우미 지원제도의 필요성을 검토하며 취약농가 지원인력의 기대효과 및 보완사항을 검토하여 취약농가지원 추진체계 확립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조사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2-1> 영농도우미 및 가사도우미 욕구조사 내용

구 분	내용
가족형태 및 구성원	가족 구성원, 가구주와 관계, 성별, 연령, 교육수준, 결혼상태, 직업, 가구원수, 가족구성 유형
경제생활 및 복지욕구	농업의 종류(우선순위), 농업의 규모, 농업관련 수입의 비중, 지난해의 년 소득(수입), 농사비 제외 생활비(우선순위), 한 달 생활비, 생활하기 정도, 빚 유무 및 규모, 빚의 내용, 수급권자 유무, 가정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점 및 문제의 심각성, 필요한 제도나 과제
사고농가 실태	사고 경험자 유무(3년간), 사고유형, 사고내용 및 피해정도, 사고원인, 치료방법, 치료기간, 현재 후유증, 현재 거동정도, 도움준 이, 도움내용, 만족도, 농사일의 지장 정도, 도움 받을 수 있는 대상
영농도우미 욕구	영농도우미인지도, 영농도우미의 필요성, 영농도우미 이용시 불필요한 이유, 영농도우미의 자격 조건, 역할(자격 및 사전준비, 주관식), 필요한 시기(주관식), 이용부담금, 영농도우미 파견시 적절한 주관 기관, 영농도우미 활성화 방안
질병 및 장애 실태	환자, 장애인, 노환인 분 유무, 질병 및 장애영역, 치료정도, 비용, 아픈·장애 정도, 혼자 거동 정도, 가사일에 지장되는 정도, 가사일 도움 줄 대상
가사도우미 욕구	가사도우미의 필요성, 가사도우미 이용시 불필요한 이유, 이용부담금, 가사도우미 파견시 적절한 주관 기관, 가사도우미 활성화 방안
기타 제언	기타 제언(주관식)

2.2 조사대상과 조사방법

2.2.1 조사 지역 선정

농민을 대상으로 영농 및 가사도우미의 필요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연구목적에 맞도록 전국에서 6개 시·군을 선정하고 그 안에서 면 단위와 마을을 목적표집(purpose sampling)을 실시하여 선정하였으며, 마을의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 지역은 경기도 안성, 강원도 철원, 충청북도 청원, 전라북도 익산, 전라남도 무안, 경상북도 김천으로 전국 6개 지역이었다.

본 조사 지역을 선정하게 된 배경은 어촌지역, 산촌 등을 포함한 다양한 성격의 지역을 포함하고자 하였으며, 마을 단위의 전수조사를 통해 지역적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조사 완료된 농가수는 447이다.

조사지역의 특성을 보면 안성시의 경우 인구는 15만명이고 이중 농가인구는 37,314명이다. 전체 면적 중 논 9.8%, 밭 22%로 밭은 비중이 높고 인구의 22%는 읍에 거주하고 있으며 도시적 특성과 농촌적 특성이 결합되어 있는 지역이다. 철원군의 경우 경지면적은 논 10%, 밭13%이고 임야면적이 넓게 분포되어 있다. 총인구는 5만 여명이고 이중 2.95% 정도인 5,455명의 인구가 65세 이상의 노령인구이다.

익산시의 경우 인구 32만명 정도의 소도시이고 노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2.9%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경지면적 중 논 11.8%, 밭 19%를 차지하고 있다. 청원시의 경우 최대 농가인구는 14,316명으로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고 전체 농가인구 중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2,300명으로 17%를 차지하고 있다. 청원시는 논 면적이 밭에 비해 두 배 가량 많다.

무안군은 농가인구는 35,222명이고 논과 밭의 면적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김천시의 경우 총인구는 14만명이고 이중에서 농가인구는 40,479명으로 30%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경지면적은 밭의 면적이 논 면적에 비해 20%정도 많은 지역이다.

2.2.2 조사방법과 조사기간

조사는 사회학과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훈련된 조사원을 활용하여 진행하였고 연구자들이 동행, 감독하였다. 조사기법으로는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했고 개별 가구를 방문하여 1대 1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구조화된 설문지는 전문가 자문과 사전조사를 거쳐 수정·보완하였기 때문에 내용타당도는 충분히 확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사는 2005년 9월 1일부터 10월 28일까지 두 달 여에 걸쳐 두개의 조사팀에 의해 조사가 이루어졌다.

2.2.3 자료 분석 방법

영농도우미와 가사도우미의 욕구조사 결과의 기초적인 정보 분석을 위하여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지역별 편차를 분석하기 위하여 교차분석 및 카이제곱 검증, 평균비교 및 F검증을 종속변수의 척도에 따라 분석하였으며, 보완적인 설명이 필요할 경우에 상관관계 검증 및 순위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본문의 내용에 첨부하였다.

2.3 응답자의 일반적 성격

2.3.1 조사지역과 응답자의 특성

조사대상 지역은 전국 6개 지역이며, 총 447명이 조사되었다. 지역별로는 전북 익산이 101명, 22.6%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 김천이 58명, 13.0%로 가장 적었다. 전남 무안의 경우 해제면(53명, 11.9%)과 현경면(38명, 8.5%)으로 어촌지역을 중심으로 조사하였으며 철원은 민간인 통제구역선내 지역이 포함되어 있다.

응답자는 남자가 57.0%, 여자가 43.0%로 남자의 비율이 약간 높았다. 도시의 경우 주로 낮 시간대에 이루어지는 조사에서는 여자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으나 농촌 특성상 농사짓는 시간대라는 점과 부부가 공동으로 작업을 하고 있을 경우 일반적으로 남편이 응답에 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남자의 응답율이 약간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응답자 연령은 평균 60.37세(표준편차 11.70)이었으며, 60대가 전체의 28.2%로 가장 많았으며, 70대 이상도 26.7%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60세 이상이 54.9%로 전체의 절반을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농촌지역 인구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대상 표본의 특성이 대표표본으로서의 타당성을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2-2> 영농·가사도우미 이용 예정자(1차조사)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구 분		빈 도	비 율
지 역	김천	58	13.0
	무안	91	20.4
	안성	65	14.5
	익산	101	22.6
	철원	64	14.3
	청원	68	15.2
	합계	447	100
성 별	남자	255	57.0
	여자	192	43.0
	합계	447	100
연령대	30대	17	3.8
	40대	74	16.6
	50대	111	24.8
	60대	126	28.2
	70대	104	23.3
	80대이상	15	3.4
	합계	447	100.0

응답자 중 기혼자의 비율이 79.8%였고 사별의 경우 17.2%이었다. 대부분이 배우자를 가지고 있었으나 사별의 비율이 다소 높은 것은 고령화 현상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응답의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이 39.2%로 가장 높았으며, 무학도 14.8%로 나타나 54.0%가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이었다. 이는 응답자 중 고령층의 비율이 높은 것과 연관되어 있다. 반면 고등학교 졸업자는 21.9%이었으며, 대학교의 경우 3.9%로 고학력자의 비율은 낮았다.

<표 2-3> 응답자의 혼인상태 및 학력

구 분		빈 도	비 율
혼 인 여 부	미혼	9	2.1
	기혼	352	79.8
	사별	76	17.2
	별거	1	0.2
	이혼	3	0.7
	합 계	441	100
학 력	무학	65	14.8
	초등학교	172	39.2
	중학교	84	19.1
	고등학교	96	21.9
	전문대	4	0.9
	대학교	17	3.9
	대학원 이상	1	0.2
	합 계	439	100

2.3.2 응답자 가족 구성

응답자 가구의 가구원수는 평균 3.0명(표준편차 1.56)으로 매우 적어 핵가족화 되었으며, 가구원수가 2명인 가구가 37.8%나 되었다. 가구원수가 4명인 경우는 12.3%, 4명 이상은 모두 30.6%이었으며, 최고 8명까지 있었다.

<표 2-4> 응답자 가구의 가구원수

가구원수	빈 도	비 율
1명	54	12.1
2명	169	37.8
3명	87	19.5
4명	55	12.3
5명	42	9.4
6명	27	6.0
7명	10	2.2
8명	3	0.7
합 계	447	100.0

<표 2-5>의 결과에서 보는바와 같이 가족 유형을 살펴보면, 부부만 살고 있는 경우가 32.9%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조부모+부모+자녀와 같은 3대 가족과 부모+미혼자녀로 이루어진 핵가족의 비율은 각각 19.9%로 나타났다.

반면 조부모+손자녀가 2.2%, 한부모+자녀가 2.5%, 독거가 12.1%로 나타나 취약가구의 비중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독거의 경우 위급한 상황에서 일차적으로 보호해줄 수 있는 가족이 없기 때문에 그 문제가 더 심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2-5> 응답자의 가족유형

가족유형	빈도	비율
조부모+부모+자녀	89	19.9
부모+자녀(결혼자녀)	40	8.9
부모+자녀(미혼자녀)	89	19.9
조부모+손자녀	10	2.2
한부모+자녀	11	2.5
부부	147	32.9
독거	54	12.1
기타	7	1.6
합계	447	100.0

노인 중심으로 가족 유형을 구성해 살펴본 결과 <표 2-6>과 같이 65세 이상 독거가구의 비율이 8.5%, 65세 이상 부부가구가 19.5%, 조부모+손자녀 가구가 2.2%로 나타나 노인 취약가구와 잠재적 취약가구가 30.2%로 나타났다. 만약 65세 노인이 포함된 가구(35.1%)까지 포함한다면 65.3%가 노인이 포함된 가구로 나타나 노인복지의 필요와 노인문제가 매우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이는 현재 농촌에서의 가족해체 및 취약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의 경우 노령화로 인한 사회적, 가족적 문제뿐만 아니라 사고나 위기 상황에 대하여 더욱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포괄적인 제도적 지원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함을 보여 준다.

<표 2-6> 응답자의 노인중심 가족유형

노인중심 가족유형	빈도	비율
65세 이상 독거가구	38	8.5
65세 이상 부부가구	87	19.5
65세노인 포함가구	157	35.1
조부모+손자녀가구	10	2.2
기타가구	155	34.7
합계	447	100.0

응답자의 가족내에서의 위치를 보면 65세 미만이면서 아버지인 경우가 34.0%로 가장 많았으며, 65세 이상 할머니인 경우가 22.6%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65세 이상의 응답자가 43.6%를 차지한다는 것은 농촌지역의 노령인구의 비중을 반영하고 있다.

<표 2-7> 응답자의 가족내 위치

가족내 위치	빈도	비율
할아버지(65세이상)	94	21.0
할머니(65세이상)	101	22.6
아버지(65세미만)	152	34.0
어머니(65세미만)	91	20.4
(손)자녀	8	1.8
부의형제자매	1	.2
합계	447	100.0

응답자 가구는 모두 농어업에 종사하는 가구였으며, 응답자 자신의 직업에 대하여 104.5%를 응답하여 극히 일부의 경우 2개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자신의 직업의 경우 농림어업이 89.7%로 나타났으며, 무직이 2.8%, 동네 소매점과 같은 자영업이 1.7% 등으로 나타났다.

<표 2-8> 응답자 가구의 직업

응답자의 직업	응답수		사례백분율
	사례	비율	
농림어업	419	89.7%	93.7%
자영업	8	1.7%	1.8%
판매서비스	6	1.3%	1.3%
기능숙련직	3	.6%	.7%
일반작업직	3	.6%	.7%
사무기술직	5	1.1%	1.1%
경영관리직	1	.2%	.2%
전문자유직	3	.6%	.7%
가정주부	6	1.3%	1.3%
무직	13	2.8%	2.9%
합계	467	100.0%	104.5%

2.4 영농도우미 욕구와 지원인력 추진체계

2.4.1. 응답가구의 농사와 경제상황

1) 경작규모와 작목

응답 농가 중 경작지의 경영규모를 평 단위로 조사한 결과, 논인 경우 평균 약 4,336평으로 나타났으며, 표준편차는 약 5,883평으로 농가 간 경영규모의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과수의 경우 평균 약 1,845평이며, 역시 표준편차가 약 2,677평으로 농가 간 경영규모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작목이나 특용작물의 경우 경영규모도 작고 표준편차 역시 적게 나타나 농가간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논과 밭의 경우 농가 간 경영규모의 차이가 크게 나타난 것은 소유규모의 차이보다는 경작규모의 차이로 분류된다. 즉 임차농이 많고 임차규모가 클수록 나이가 상대적으로 젊다. 그러나 시설작목이나 특용작물의 경우 상업적 경영농가 이외에는 일손규모나 투용자 규모의 부족에 따라 대규모 영농을 할 수 없다는 농업조건이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전체적으로 농가 간 경작규모의 차이가 크다는 것은 농가 간 소득격차 역시 증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축산의 경우 평균 소를 기준으로 28두 정도 키우는 것으로 나타나 소규모 영세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조사대상 지역이 낙농을 중심으로 하지 않는 지역적 특성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표 2-9> 응답 농가 경작지의 경영 규모

경작지의 경영 규모	사례수	평균(단위:평)	표준편차(단위:평)
논의 규모(평)	336	4336.4583	5882.79325
밭의 규모(평)	130	1568.2462	1843.28293
특용작물의 규모(평)	25	1830.4000	1390.61581
과수의 규모(평)	33	1845.4545	2677.34604
채소의 규모(평)	64	1577.6563	1872.34234
화훼의 규모(평)	2	3000.00	.000
축산의 규모(두)	20	28.050	25.8792
시설작목의 규모(평)	78	1760.3846	1040.13416
기타 규모	4	4825.00	6874.288

응답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4개 작목에 대한 지역별 경영규모를 살펴보면, 논인 경우 경영면적 평균은 철원이 평균 9,833평으로 가장 많았으며, 익산이 4,493평, 안성이 3,806평으로 나타났다. 철원의 경우 논과 밭의 면적이 비슷한 지역이지만 논인 평균 경작면적이 높은 이유는 민통선 내에서 농사를 짓는 농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으로 나타났다($p < 0.001$).

밭농사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무안이 2,313평으로 가장 많았으며 채소면적까지를 포함하면 무안지역의 경우 논농사보다 밭농사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이 특징이다. 밭의 평균 경작면적은 지역별 편차가 뚜렷하였다($p < 0.01$). 시설작목의 경우 청원은 경영규모가 평균 2,206평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안성이 평균 2,067평으로 청원과 큰 차이가 나지는 않았다($p < 0.001$). 이는 시설작목의 경우 투자비용과 일손이 많이 필요한 경영적 특성상 규모면에서 농가 간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다는 특성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채소는 마늘·양파 채소류 주산단지인 무안이 3,438평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청원이 2,375평으로 나타났다($p < 0.01$).

위의 조사결과로 볼 때 경영규모는 해당지역의 특색적인 농업경영양식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었고 주 작목의 비율적 분포를 동일하게 반영하고 있어서 표본의 대표성과 일반화의 타당성을 보여주고 있다.

<표 2-10> 지역별 주요작목 경영규모

지역		논	밭	시설	채소
김천	사례 수	41	15	12	4
	평균	1680.48	1006.66	1685.33	500.00
	표준편차	2016.21	776.86	688.15	469.04
무안	사례 수	67	60	3	13
	평균	2718.65	2312.66	1700.00	3438.46
	표준편차	4823.99	2328.55	1276.71	2759.08
안성	사례 수	48	15	3	3
	평균	3806.25	634.13	2066.67	506.67
	표준편차	3216.01	646.87	1747.37	616.54
익산	사례 수	98	19	0	32
	평균	4493.36	863.15	0	1059.37
	표준편차	5490.34	882.67	0	1195.65
철원	사례 수	52	14	21	8
	평균	9832.69	892.85	955.23	1168.75
	표준편차	9112.68	642.66	769.36	886.78
청원	사례 수	30	7	39	4
	평균	2388.33	1657.14	2206.41	2375.00
	표준편차	1707.97	1719.35	961.09	2056.49
합 계	사례 수	336	130	78	64
	평균	4336.45	1568.24	1760.38	1577.65
	표준편차	5882.79	1843.28	1040.13	1872.34
	F값	15.157***	4.472**	6.464***	4.899**

주) 유의수준 : *** P<0.001, ** P<0.01

조사대상 농가의 경영규모(소득)순 주요 작목에 대한 분석결과, 1순위의 경우 총 응답자 444명 중 57.2%가 논·벼라고 응답하고, 비닐하우스와 같은 시설작목이 12.2%, 밭·보리가 8.6%, 채소 6.8% 순으로 나타났다. 경영규모(소득)순 주요 작목 1순위에 대한 조사에서 벼농사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특용작물, 과수 등도 다양하게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2순위의 경우 응답자가 269명이었으며 역시 논·벼가 30.9%로 가장 많았으며, 밭·보리가 24.9%, 채소가 17.5% 순으로 나타났다. 3순위의 경우 54명이 응답하였으며, 밭·보리가 24.1%, 채소가 18.5%, 특용작물, 과수, 축산 등이 각각 9.3%씩으로 나타났다.

<표 2-11> 조사대상 농가의 경영규모(소득) 순 주요 작목

	1순위 빈도(비율)	2순위 빈도(비율)	3순위 빈도(비율)	다중응답 빈도(반응비율)
논·벼	254(57.2)	83(30.9)	3(5.6)	340(76.6)
밭·보리	38(8.6)	67(24.9)	13(24.1)	118(26.6)
특용작물	20(4.5)	16(5.9)	5(9.3)	41(9.2)
과수	18(4.1)	18(6.7)	5(9.3)	41(9.2)
채소	30(6.8)	47(17.5)	10(18.5)	87(19.6)
화훼	2(5)	0(0)	1(1.9)	3(7)
축산	7(1.6)	10(3.7)	5(9.3)	22(5.0)
시설작목	54(12.2)	24(8.9)	2(3.7)	80(18.0)
기타	21(4.7)	4(1.5)	10(18.5)	35(7.9)
합 계	444(100.0)	269(100.0)	54(100.0)	767(172.7)

주요 작목의 경우 지역별 편차가 뚜렷한데($p < 0.001$), 이는 표집단계에서부터 목적표집을 하였기 때문이다. 김천의 경우 과수가 상대적으로 많으며, 무안의 경우 쌀·보리, 채소 등의 분포비율이 높다. 익산, 안성과 철원은 벼농사 중심으로 나타났다. 청원의 경우 시설작목과 축산의 비중이 높아 상업적 농업구조가 발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2-12> 조사지역별 경영규모(소득)순 주요 작목 1순위

	김천	무안	안성	익산	철원	청원	합 계
논·벼	24	29	41	95	51	14	254
	41.4%	31.9%	66.1%	94.1%	79.7%	20.6%	57.2%
쌀·보리	5	24	2	1	3	3	38
	8.6%	26.4%	3.2%	1.0%	4.7%	4.4%	8.6%
특용작물	4	8	5	0	1	2	20
	6.9%	8.8%	8.1%	.0%	1.6%	2.9%	4.5%
과수	15	0	1	1	0	1	18
	25.9%	.0%	1.6%	1.0%	.0%	1.5%	4.1%
채소	0	18	3	3	2	4	30
	.0%	19.8%	4.8%	3.0%	3.1%	5.9%	6.8%
축산	1	0	0	0	0	6	7
	1.7%	.0%	.0%	.0%	.0%	8.8%	1.6%
시설작목	9	1	3	0	5	36	54
	15.5%	1.1%	4.8%	.0%	7.8%	52.9%	12.2%
기타	0	11	7	1	2	2	23
	.0%	12.1%	11.3%	1.0%	3.1%	2.9%	5.2%
합 계	58	91	62	101	64	68	444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X^2=408.614$, $df=35$, $p<0.001$)

2) 농가소득과 부채

농가의 소득 비중은 전부 농업소득인 경우가 73.6%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대부분 농업소득이 9.5%로 나타나 농업소득이 주인 경우가 83.1%로 나타났다. 반면 농업외 소득이 더 많은 경우는 13.5%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상 농가들은 전적으로 농업에 의존하는 가구가 대부분으로서 농가라는 직업적 분류의 대표성을 유지하고 있다.

<표 2-13> 응답 농가의 소득 비중

농가소득 비중	빈 도	비 율
전부, 대부분 농업외 소득	60	13.5
반반 규모	15	3.4
대부분 농업소득	42	9.5
전부 농업소득	326	73.6
합 계	443	100.0

1) X^2 의 분석에서 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cell)이 전체의 20%를 넘을 경우 해석에 있어서 유의해야 한다. 각 셀 당 사례수가 적을 경우 셀 당 증가하는 자유도에 의한 통계적 유의확률의 증가에 비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사례수가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여기에 집착할 경우 충분하고 구체적인 정보전달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전체적인 현황과 정보를 보다 자세하게 제시하는 의미에서 코딩변경을 최소화하여 전체적인 분석한 결과를 보여주도록 할 것이다. 이는 통계적 유의도보다 보다 사례연구로서 지역별 차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전달을 우선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본 조사의 경우 전국 지역을 확률표집으로 선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화의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여기서 설명하는 지역별 편차는 표본에 근거한 편차임을 밝힌다.

농가소득 비중을 지역별로 비교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p<0.001), 전부 농업소득의 비율을 먼저 살펴보면 철원이 84.4%로 가장 높았으며, 안성이 51.6%로 가장 낮았다. 특히 안성의 경우 전부 농업외 소득이 20.3%나 포함되어 있었다. 평균 순위를 기준으로 농업소득의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철원이며, 청원, 익산, 김천 순이었다. 이는 안성지역이 서울이라는 대도시를 배후지역으로 하고 있는 대도시 인접지역이라는 특성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표 2-14> 지역별 응답 농가의 소득 비중

구분	김천	무안	안성	익산	철원	청원	합 계
전부	2	6	13	1	1	0	23
농업외소득	3.6%	6.7%	20.3%	1.0%	1.6%	.0%	5.2%
대부분	4	6	9	9	2	7	37
농업외소득	7.1%	6.7%	14.1%	8.9%	3.1%	10.3%	8.4%
반반 규모	1	5	3	4	1	1	15
	1.8%	5.6%	4.7%	4.0%	1.6%	1.5%	3.4%
대부분 농업 소득	6	8	6	9	6	7	42
	10.7%	8.9%	9.4%	8.9%	9.4%	10.3%	9.5%
전부 농업소득	43	65	33	78	54	53	326
	76.8%	72.2%	51.6%	77.2%	84.4%	77.9%	73.6%
합 계	56	90	64	101	64	68	443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순위	230.21	219.01	167.35	230.94	248.21	232.70	-

$X^2=26.064$, $df=5$, $p<0.001$

응답 농가의 전년도 소득에 대한 조사 결과, 응답자 중 42.1%가 년 간 소득이 800만 원 이하로 응답하였으며, 24.8%가 1,600만 원 이하로 응답하여 전체의 66.9%가 년 간 1,600만 원 이하의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일반적인 생활비나 농사를 위하여 재사용되어야 할 투자비 등을 고려하면 도시 근로자 평균소득에도 미치지 못한 수치로서 매우 낮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농촌경제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응답자 중 연간 4,000만원을 초과한 수입을 올리는 경우는 11.4%에 불과하였다. 전체 수입 평균은 1,679만원(표준편차 1,729.7만원)이었다(<표 2-15> 참조). 그러나 실제로 농민들이 소득을 명확히 계산하지 않고 농산물 판매 총액으로 어림잡작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품값이나 생산적 요소로 투입된 노동비중을 고려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을 때 농가의 순소득은 이보다 적은규모로 예상된다.

농가 소득규모의 경우 조사대상 기준으로 지역별 편차가 적지 않았는데(p<0.001), 가장 소득이 높은 지역은 청원으로 6,401만 원 이상인 비율이 12.7%였으며, 800만 원 이하라는 응답도 20.6%로 철원 다음으로 낮았다. 청원의 전체 소득의 평균은 2,839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표준편차도 2,256만원으로 농가간의 소득 편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청원의 경우 평균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수익성이 높은 시설작목의 비중이 높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철원의 경우 평균 소득이 2,629만 원으로 청원에 비하여 크게 낮지 않았는데, 이는 논외 경영규모가 매우 넓기 때문에 이로 인한 소득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철원의 경우 경영규모(소득)순 주요 작목 2, 3순위 조사에서 시설작목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고소득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철원의 경우 경영 작목의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

다. 농가소득이 가장 낮은 지역은 익산으로 800만 원 이하의 비중이 57.0%나 되었으며, 김천의 59.6%, 안성의 56.1%와 함께 800만 원 이하의 저소득층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800만 원 이하 저소득층의 비중이 철원 16.1%, 청원 20.6%로 두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농가 소득규모 중 논외의 경영규모와 상관관계가 0.447($p < 0.001$), 밭의 경영규모와는 0.353($p < 0.001$), 시설작목은 0.286($p < 0.001$)으로 나타나 소득규모와 경영규모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5> 지역별 응답 농가 소득 규모

농가 소득 규모	김천	무안	안성	익산	철원	청원	합 계
800만원 이하	31	33	32	57	9	13	175
	59.6%	37.5%	56.1%	57.0%	16.1%	20.6%	42.1%
1,600만원 이하	10	28	16	21	13	15	103
	19.2%	31.8%	28.1%	21.0%	23.2%	23.8%	24.8%
2,400만원 이하	5	9	1	12	12	6	45
	9.6%	10.2%	1.8%	12.0%	21.4%	9.5%	10.8%
3,200만원 이하	1	5	3	7	6	5	27
	1.9%	5.7%	5.3%	7.0%	10.7%	7.9%	6.5%
4,000만원 이하	1	6	2	1	3	5	18
	1.9%	6.8%	3.5%	1.0%	5.4%	7.9%	4.3%
4,800만원 이하	1	2	1	2	2	3	11
	1.9%	2.3%	1.8%	2.0%	3.6%	4.8%	2.6%
5,600만원 이하	3	0	1	0	4	5	13
	5.8%	.0%	1.8%	.0%	7.1%	7.9%	3.1%
6,400만원 이하	0	2	0	0	1	3	6
	.0%	2.3%	.0%	.0%	1.8%	4.8%	1.4%
6,401만원 이상	0	3	1	0	6	8	18
	.0%	3.4%	1.8%	.0%	10.7%	12.7%	4.3%
합 계	52	88	57	100	56	63	416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만원)	1,169	1,609	1,158	1,040	2,629	2,839	1,679
표준편차(만원)	1,325	1,591	1,321	930	2,033	2,256	1,729.7

F=16.254, df of BG=5, df of WG=410, $p < 0.001$

생활비 중 비중이 가장 큰 내역의 1순위로는 양육·교육비가 23.5%로 가장 높았으며, 의료비가 20.8%, 주거비가 14.7%, 빚·대출상환이 13.5% 순으로 나타났다. 생활비에서 양육·교육비 비중이 높게 나타난 이유는 조사대상자 중 미혼자녀가 있는 응답자가 44.5%로 비교적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도 작용했지만 특히 농촌의 경우 자녀의 교육비 지출이 지역을 떠나 외지로 이른바 유학을 보내기 때문에 도시가지에서 지출하는 교육비 이외에 교육을 위한 주거 및 생활비가 별도로 가중되기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의료비의 비중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인구특성상 65세 이상 노인이 포함된 가구가 65.1%에 이르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들의 의료비 지출 비중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농가의 낮은 소득규모에 비하여 지출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저소득층의 농가에서 갖는 부담은 더욱 클 것으로 예측된다. 생활비로 지출되는 내역의 2순위는 세금비용이 20.9%, 주거

비용이 19.5%, 의료비가 13.2% 순으로 나타나 세금과 주거비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응답 결과 가장 응답자가 많은 것은 의료비로 전체 응답자의 33.2%가 선택하였으며, 주거비가 33.0%, 양육·교육비가 31.4%, 세금비용이 31.2%로 나타나 이들 비용이 생활비 내역의 주요 부분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농촌의 질병과 주거현황을 반영하고 있는데 응답자들이 앓고 있는 질환의 대부분이 만성적 질환으로 정기적 치료를 요하거나 지속적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 많기 때문에 의료비는 특별한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한 여전히 농가경제를 압박하는 주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또한 생활비 중에서 주거비 지출이 많아진 원인은 주거형태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대부분 농가가 기름보일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난방비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료비와 주거비, 세금은 고정지출 항목이기 때문에 농가에 소득이 특별히 증대되지 않는 한 앞으로도 농가경제를 악화시키는 주된 요인이 될 것이다(<표 2-16> 참조).

<표 2-16> 응답자의 생활비 지출 내역

생활비 내역	1순위빈도(비율)	2순위빈도(비율)	다중응답빈도(비율)
양육·교육비	104(23.5)	35(8.4)	139(31.4)
주거비	65(14.7)	81(19.5)	146(33.0)
세금비용	51(11.5)	87(20.9)	138(31.2)
주식·부식비	32(7.2)	48(11.5)	80(18.1)
의료비	92(20.8)	55(13.2)	147(33.2)
생활용품비	8(1.8)	19(4.6)	27(6.1)
빚·대출 상환	60(13.5)	30(7.2)	90(20.3)
교통차량유지비	3(7)	19(4.6)	22(5.0)
저축	4(9)	3(7)	7(1.6)
기타	24(5.4)	39(9.4)	63(14.2)
합 계	443(100.0)	416(100.0)	859(193.9)

지역별 생활비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1순위를 살펴본 결과 지역별 차이가 나타났다 ($p<0.001$). 김천의 경우 의료비가 29.8%, 세금비용이 15.8%로 가장 높았으며, 무안의 경우 양육·교육비가 37.4%, 빚·대출 상환이 20.9%로 나타났다. 안성의 경우 의료비가 23.1%, 양육·교육비가 21.5%이었으며, 익산의 경우 의료비가 30.7%로 가장 높았다. 철원의 경우 주거비와 빚·대출 상환이 25.4%이었으며, 청원은 양육·교육비가 33.3%로 가장 많았다. 청원과 무안은 응답자의 평균 연령이 각각 54.5세, 57.9세로 가장 젊은 연령층이 많은 지역이었으며, 이들의 경우 아직까지 자녀들이 독립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양육·교육비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익산의 경우 응답자의 평균 연령이 63.8세로 조사 지역 중 가장 높았으며, 김천의 경우도 62.0세로 세 번째로 높아 평균 연령이 높은 지역에서의 의료비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표 2-17> 참조).

<표 2-17> 지역별 생활비 지출 비중(1순위)

생활비	김천	무안	안성	익산	철원	청원	합 계
양육·교육비	8	34	14	13	13	22	104
	14.0%	37.4%	21.5%	12.9%	20.6%	33.3%	23.5%
주거비	7	7	12	19	16	4	65
	12.3%	7.7%	18.5%	18.8%	25.4%	6.1%	14.7%
세금비용	9	8	8	8	10	8	51
	15.8%	8.8%	12.3%	7.9%	15.9%	12.1%	11.5%
주식·부식비	8	3	6	13	0	2	32
	14.0%	3.3%	9.2%	12.9%	.0%	3.0%	7.2%
의료비	17	17	15	31	5	7	92
	29.8%	18.7%	23.1%	30.7%	7.9%	10.6%	20.8%
빚·대출 상환	1	19	4	11	16	9	60
	1.8%	20.9%	6.2%	10.9%	25.4%	13.6%	13.5%
기타	7	3	4	6	3	14	39
	11.4%	3.3%	7.7%	6.0%	4.8%	21.2%	8.8%
합 계	57	91	65	101	63	66	443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103.573$, $df=30$, $p<0.001$

생활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월 평균 50만원 이하가 22.4%로 가장 많았으며, 75만원 초과에서 100만원 이하가 15.7%, 50만원 초과에서 75만원 이하가 13.6%로 나타났다. 생활비가 100만원이 초과되는 경우도 35.9%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총 소득대비 생활비의 부담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8>의 결과와 같이 생활비 소요비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청원이 평균 152.31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철원이 110.34만원, 무안이 84.83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생활비 소요비용이 가장 낮은 곳은 익산으로 71.04만원으로 청원의 4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별 편차가 적지 않았다 ($p<0.001$). 월 생활비가 25만원 이하인 경우 익산은 19.8%나 되었으나 청원은 한 명도 없었으며, 월 201만원 이상의 경우 청원은 무려 21.5%나 되었으며, 익산은 1.0%, 안성은 3.1% 등에 불과하였다. 생활비 소요비용과 소득과의 상관계수는 0.017에 불과하여 소득과 생활비 소요비용과는 상관관계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8> 지역별 생활비 소요비용

생활비 소요비용	김천	무안	안성	익산	철원	청원	합 계
25만원이하	8	13	9	20	4	0	54
	14.0%	14.6%	14.1%	19.8%	6.9%	.0%	12.4%
50만원이하	14	26	15	26	9	7	97
	24.6%	29.2%	23.4%	25.7%	15.5%	10.8%	22.4%
75만원이하	8	9	13	15	9	5	59
	14.0%	10.1%	20.3%	14.9%	15.5%	7.7%	13.6%
100만원이하	9	16	9	16	5	13	68
	15.8%	18.0%	14.1%	15.8%	8.6%	20.0%	15.7%
125만원이하	6	5	7	10	14	3	45
	10.5%	5.6%	10.9%	9.9%	24.1%	4.6%	10.4%
150만원이하	7	5	2	8	8	5	35
	12.3%	5.6%	3.1%	7.9%	13.8%	7.7%	8.1%
175만원이하	0	4	2	2	1	4	13
	.0%	4.5%	3.1%	2.0%	1.7%	6.2%	3.0%
200만원이하	2	4	5	3	4	14	32
	3.5%	4.5%	7.8%	3.0%	6.9%	21.5%	7.4%
201만원이상	3	7	2	1	4	14	31
	5.3%	7.9%	3.1%	1.0%	6.9%	21.5%	7.1%
합 계	57	89	64	101	58	65	434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단위:만원)	82.89	84.83	79.69	71.04	110.34	152.31	94.12
표준편차(단위:만원)	63.11	70.95	58.52	63.02	90.45	93.57	77.83

F=11.78, df of BG = 5, df of WG =428, p<0.001

소득 대비 지출과 비교하여(<표 2-19>) 생활정도가 어떠한가에 대하여 매우 충분하다는 0.2%에 불과하였으며, 대체로 충분하다는 5.9%로 나타나 6.1%만이 충분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매우 부족하다는 응답이 32.5%나 되었고, 대체로 부족하다는 응답도 42.0%나 되어 74.5%가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앞의 낮은 소득과 함께 농촌생활의 열악함을 보여주고 있다.

<표 2-19> 응답자의 소득 대비 지출의 생활정도

소득 및 지출 생활정도	빈 도	비 율
매우 부족하다	144	32.5
대체로 부족하다	186	42.0
불충분하나 지장이 없다	86	19.4
대체로 충분하다	26	5.9
매우 충분하다	1	.2
합 계	443	100.0

농촌 가구 중 빛이 있는 경우가 65.4%나 되었으며, 빛이 없는 경우는 34.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2-20> 참조). 빛의 액수에 대하여 247명이 응답하였는데, 최소 70만원에서 최고 3억 원 까지로 나타났으며, 평균 4,192만원(표준편차 4669.66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촌의 어려움이 낮은 소득, 생활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농가부채로 인한 농가경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지역별로 빛이 있는지 유무를 파악했을 때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 김천의 경우 평균 소득은 하위권이었으나 빛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48.3%에 불과하여 가장 비율이 낮

았다. 또한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았던 안성과 익산의 경우 각각 58.7%, 55.0%로 빛이 있는 비율이 낮았다. 반면 소득이 가장 높았던 청원과 철원은 각각 76.5%, 81.0%로 거의 다수가 빛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20> 참조). 소득과 빛의 유무에 대한 Spearman 상관계수가 0.290(p<0.001)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빛이 있는 경향이 높아 서로간의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빛 진 이유에 대하여 다중응답으로 살펴본 결과(<표 2-21> 참조) 288명이 373개를 응답하여 1 가구당 평균 1.3개 정도 이유를 응답하였다. 빛 진 이유의 76.7%는 영농자금 마련 때문인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17.0%는 자녀 교육비로 응답하였다. 특히, 생활비에서도 자녀의 양육·교육비의 비중이 높았던 것을 감안하면 농촌지역의 교육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는, 농촌 자녀의 경우 통상 진학하면서 타지로 나가 기숙생활이나 자취생활을 하기 때문에 도시에 비하여 교육비용 지출이 증대하기 때문이다. 또한 영농규모가 크거나 시설작물 비중이 높고 소득이 높을수록 부채비중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농가소득구조의 불안정성과 영농수지의 악화 현상 및 농가부채의 악순환의 고리를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별로 빛진 이유를 다중응답으로 살펴보았을 때, 김천의 경우 의료비의 비중이 20.7%로 다른 지역보다 높았으며, 무안은 자녀교육비가 30.8%, 안성은 주택마련비가 16.2%로 다른 지역에 비하여 높았다. 익산, 철원, 청원의 경우 영농자금 비율이 각각 85.5%, 84.0%, 84.6%로 나타났다.

<표 2-20> 지역별 빛 유무

빛 유무	김천	무안	안성	익산	철원	청원	합 계
빛이 없다	30	24	26	45	12	16	153
	51.7%	26.7%	41.3%	45.0%	19.0%	23.5%	34.6%
빛이 있다	28	66	37	55	51	52	289
	48.3%	73.3%	58.7%	55.0%	81.0%	76.5%	65.4%
합 계	58	90	63	100	63	68	442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X^2=26.449$, $df=5$, $p<0.001$

<표 2-21> 지역별 빛진 이유

빛진 이유	김천	무안	안성	익산	철원	청원	합 계
자녀교육비	2	20	7	8	4	8	49
	6.9%	30.8%	18.9%	14.5%	8.0%	15.4%	17.0%
주택마련비	2	6	6	6	4	4	28
	6.9%	9.2%	16.2%	10.9%	8.0%	7.7%	9.7%
생계비	3	11	4	2	1	2	23
	10.3%	16.9%	10.8%	3.6%	2.0%	3.8%	8.0%
의료비	6	9	2	5	1	2	25
	20.7%	13.8%	5.4%	9.1%	2.0%	3.8%	8.7%
영농자금	17	48	23	47	42	44	221
	58.6%	73.8%	62.2%	85.5%	84.0%	84.6%	76.7%
기타	3	11	3	2	5	3	27
	10.3%	16.9%	8.1%	3.6%	10.0%	5.8%	9.4%
합 계	33	105	45	70	57	63	373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n=288, 다중응답조사)

2) 다중응답의 경우 한 명이 여러 개를 응답하게 된 것이므로 응답자간 차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하는 것에 논리적인 문제가 있어 지역별 차이에 대한 통계적 검증을 하지 않았다.

2.4.2 농가의 애로사항과 사고와 질병

1) 농가의 애로점

농사짓는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29.6%가 낮은 농업 수입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농가 부채 상환 문제가 17.8%로 나타나 경제 영역의 문제가 47.4%를 차지하였다. 또한 농사를 이어 지어주는 노후 보장이나 후계자 문제 등도 8.6%로 나타나 농촌에 젊은 사람들이 적은 문제도 반영되었다. 기타의 경우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응답이 대부분이었다.

<표 2-22>에서와 같이 지역별 농사짓는데 어려움을 살펴보면, 익산 지역의 경우 의료·보호 문제가 15.0%로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높았으며, 철원은 농가부채 상환문제가 29.5%로 다른 지역보다 높았다. 낮은 농업수입의 문제는 무안과 익산이 모두 36.0%로 다른 지역보다 높아 소득이 낮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였으며, 지역별 차이가 있었다($p < 0.01$).

<표 2-22> 지역별 농사짓는데 어려운 점(걱정거리)

영농의 어려움	김천	무안	안성	익산	철원	청원	합 계
노후보장	3	5	7	7	7	8	37
· 후계자문제	5.4%	5.6%	11.7%	7.0%	11.5%	12.1%	8.6%
농가부채	7	21	4	14	18	13	77
상환문제	12.5%	23.6%	6.7%	14.0%	29.5%	19.7%	17.8%
의료·보호	6	3	6	15	1	2	33
문제	10.7%	3.4%	10.0%	15.0%	1.6%	3.0%	7.6%
자녀결혼	1	4	1	2	2	0	10
· 출산문제	1.8%	4.5%	1.7%	2.0%	3.3%	.0%	2.3%
(손)자녀 양육	2	4	2	1	1	2	12
· 교육문제	3.6%	4.5%	3.3%	1.0%	1.6%	3.0%	2.8%
정부불신	1	1	7	2	2	5	18
문제	1.8%	1.1%	11.7%	2.0%	3.3%	7.6%	4.2%
낮은 농업	15	32	15	36	12	18	128
수입문제	26.8%	36.0%	25.0%	36.0%	19.7%	27.3%	29.6%
기타	21	19	18	23	18	18	117
	37.5%	21.3%	30.0%	23.0%	29.5%	27.3%	27.1%
합 계	56	89	60	100	61	66	432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X^2=61.438$, $df=35$, $p < 0.01$

<표 2-23>에서와 같이, 농사짓는데 어려움의 정도에 대하여 42.1%가 매우 어렵다고 응답하였으며, 36.7%가 어렵다고 응답하여 응답자의 대다수인 78.8%가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앞의 소득이나 경제생활 등의 문제와도 일관된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전혀 어렵지 않다는 2.3%에 불과하였으며, 5.3%는 대체로 어렵지 않다고 응답하여 7.6%만이 농사짓는데 어렵지 않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사짓는데 생기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노후 소득보장 등을 포함한 농가부채 탕감과 비 수매가(쌀값) 안정, 기계·기름 등 정부보조 확대, 수입 농산물 문제 해결, 비료·농약 등 인하 등과 같은 경제 관련 분야의 지원과 제도 개선에 대하여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경제적인 것 외에는 농가 의료 혜택 확대, 전기세 등을 포함해 세금 감면 혜택, 일손 부족 해결, 학자금 대출 조건 완화 등의 내용들이 있었다.

지역별로 가장 어려운 점으로 선택한 문제의 정도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5$). 가장 어렵다고 느끼는 지역은 청원으로 4.32점이며, 표준편차도 0.722로 가장 낮았다. 두 번째로 점수가 높은 지역은 익산으로 4.29점이며 표준편차도 0.880으로 비교적 낮았다. 이는 경제적으로 가장 소득이 적은 익산과 가장 소득이 많은 청원이 자신들이 선택한 문제에 대한 정도를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청원의 경우 노후보장·후계자문제, 농가부채 상환문제, 낮은 농업수입 등이 문제로 제기된 곳이며, 익산의 경우 낮은 농업수입, 의료보호 문제 등의 비중이 높았다. 심각도가 가장 낮은 지역은 안성으로 평균 3.84점으로 대체로 심각한 수준이었으며, 노후보장·후계자문제, 의료보호 문제, 낮은 농업수입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큰 편차 없이 고루 반영된 특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3> 지역별 농사짓는데 어려운 점(걱정거리)의 어려움 정도

지역별 영농 어려움의 정도	김천	무안	안성	익산	철원	청원	합 계
전혀 어렵지 않다	2	1	3	1	3	0	10
	3.6%	1.1%	5.3%	1.0%	5.0%	.0%	2.3%
대체로 어렵지 않다	4	6	5	3	4	1	23
	7.1%	6.7%	8.8%	3.0%	6.7%	1.5%	5.3%
그저 그렇다	8	18	7	13	5	7	58
	14.3%	20.2%	12.3%	13.0%	8.3%	10.3%	13.5%
대체로 어렵다	23	21	25	32	28	29	158
	41.1%	23.6%	43.9%	32.0%	46.7%	42.6%	36.7%
매우 어렵다	19	43	17	51	20	31	181
	33.9%	48.3%	29.8%	51.0%	33.3%	45.6%	42.1%
합 계	56	89	57	100	60	68	43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3.95	4.11	3.84	4.29	3.97	4.32	4.11
표준편차	1.052	1.027	1.115	0.880	1.073	0.722	0.985

F=2.772, df of BG=5, df of WG = 424, $p < 0.05$

2) 농가의 사고

지난 3년간 사고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25.8%로 나타나 농촌에서의 사고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한번도 없었다는 74.2%이었다. <표 2-24>의 결과에서와 같이, 지난 3년간 각종 사고를 경험한 비율을 살펴보면 조사 지역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p < 0.01$), 무안이 38.5%로 가장 높았으며, 청원이 36.8%, 김천이 24.1%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익산은 12.9%에 불과하였다.

<표 2-24> 지역별 응답자의 3년간의 사고경험

사고경험	김천	무안	안성	익산	철원	청원	합 계
없다	44	56	50	88	50	43	331
	75.9%	61.5%	76.9%	87.1%	79.4%	63.2%	74.2%
있다	14	35	15	13	13	25	115
	24.1%	38.5%	23.1%	12.9%	20.6%	36.8%	25.8%
합 계	58	91	65	101	63	68	446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X^2=21.932$, $df=5$, $p < 0.01$

3) 전혀 어렵지 않다 1점 ~ 매우 어렵다 5점으로 리커트 척도로 설문조사

사고 경험자를 대상으로 사고 경험에 대한 조사한 결과 총 133명으로 응답해, 1가구당 약 1.14명으로 분석되었다⁴⁾. 사고 경험자의 경우 65세 미만 기혼자인 아버지가 사례 백분율 기준 45.3%로 가장 많았으며, 65세 이상 할아버지가 25.6%, 65세 이상 할머니가 23.1%로 나타나 65세 이상인 경우도 사례 백분율 기준으로 48.7%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나타냈다. 조사결과 활동기의 남자가 여자보다 사고의 위험에 훨씬 많이 노출되어 있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남·녀 사고위험 비율이 동일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는 영농도우미와 가사도우미의 인력충원에 있어서 65세 미만의 경우 남성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비중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표 2-25> 참조).

<표 2-25> 사고 경험자의 사고 경험

사고경험자	응답수		사례백분율
	사례	비율	
할아버지(65세이상)	30	22.6	25.6
할머니(65세이상)	27	20.3	23.1
아버지(65세미만)	53	39.8	45.3
어머니(65세미만)	18	13.5	15.4
(손)자녀	3	2.3	2.6
모의형제자매	1	.8	.9
자녀의배우자	1	.8	.9
합 계	133	100.0	113.7

사고 경험자의 사고 유형을 살펴보면, 응답 비율을 기준으로 교통사고가 67건으로 50.4%를 차지하였으며, 응답 사례 중 57.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비료 주는 기계, 경운기 등 각종 기계류에 의한 사고가 26.3%이었으며, 응답 사례 기준으로 29.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촌에서의 사고는 대부분 차량과 농기계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사고 내용에 대해서 질문한 내용으로는 운전 중 접촉사고나 치이게 된 경우와 경운기나 트랙터로 일하다가 다치게 된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에 대해 잘 몰라서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었으며, 농사일에 지장을 받는 것에 대한 걱정이 많이 있었다(<표 2-26> 참조).

<표 2-26> 사고 경험자의 사고 유형

농가의 사고 내용	응답수		사례백분율
	사례	비율	
교통사고	67	50.4	57.3
농사도구사고	6	4.5	5.1
농기계사고	35	26.3	29.9
화재사고	1	.8	.9
기타	24	18.0	20.5
합 계	133	100.0	113.7

<표 2-27>의 사고 경험자의 치료법에 대하여 살펴보면, 치료방법의 경우 입원과 통원치료를 다한 경우가 사고 경험자의 47.3%이었으며, 통원치료가 30.2%, 입원치료가 22.5%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입원경험자가 69.8%나 되어 비중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4) 사고경험자는 가구원수에 대하여 중복응답이 가능하도록 조사하였다.

치료기간의 경우 평균 12.05개월(표준편차 27.817)로 거의 1년 정도 치료기간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구원이 입원을 하게 된다면 농사짓는데 필요한 주요 인력이 빠지게 되며, 입원환자의 간병 등에 손이 또 필요하게 되므로 농사일에 큰 지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고 경험자의 치료법 조사 결과 약국치료나 자가 치료 등의 응답자가 한명도 없었는데, 이는 농가 사고가 일단 발생한다면 비교적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2-27> 사고 경험자의 치료법

치료법	응답수		사례백분율
	사례	비율	
입원+통원치료	61	47.3	54.0
입원치료	29	22.5	25.7
통원치료	39	30.2	34.5
합 계	129	100.0	114.2

사고 후 후유증의 경우 전혀 없다는 응답은 5.4%에 불과하였다. 반면에 매우 많이 있다가 11.5%, 많이 있다가 33.8%로 후유증이 심한 경우는 45.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민이 사고 후 농사일을 오랫동안 그만 둘 수 없는 상황에 처하여 충분하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농민의 사고에 대비한 지원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표 2-28> 참조).

<표 2-28> 사고 경험자의 후유증 정도

후유증	응답수		사례백분율
	사례	비율	
전혀 없다	7	5.4	6.1
거의 없다	14	10.8	12.3
약간 있다	50	38.5	43.9
많이 있다	44	33.8	38.6
매우 많이 있다	15	11.5	13.2
합 계	130	100.0	114.0

사고 당시 거동 가능 정도의 경우 불가하였다는 응답이 29.1%나 되었으며, 누군가 부축해 주었을 때 가능하다는 응답이 21.3%로 나타나 50.4%가 거동을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표 2-29> 참조). 이는 앞의 입원의 비율이 높은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농가 사고가 일단 발생하면 비교적 큰 사고임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농가사고의 경우 일손지원이 영농지원과 가사지원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요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29> 사고 당시 거동 정도

거동정도	응답수		사례백분율
	사례	비율	
불가	37	29.1	33.3
부축 시 가능	27	21.3	24.3
도구 사용 시 가능	4	3.1	3.6
혼자서 가능	59	46.5	53.2
합 계	127	100.0	114.4

2) 농가사고후의 도움

<표 2-30>의 결과와 같이 농가 사고 시 도움을 제공해 주었던 이들이 전혀없다라는 응답이 71.8%로 나타났으며, 이는 사례백분율의 81.7%에 해당하는 비율로 농민들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주변으로부터 도움 받는 경우가 매우 적음을 보여준다. 읍·면사무소나 농협으로부터 도움 받은 비율도 매우 낮았으며, 친척, 병원 등의 기타 비율이 다소 높았다.

<표 2-30> 사고 시 도움 제공자

도움 제공자	응답수		사례백분율
	사례	비율	
읍·면사무소	4	3.2	3.7
농협	2	1.6	1.8
종교단체	2	1.6	1.8
이웃주민	11	8.9	10.1
기타	16	12.9	14.7
전혀 없음	89	71.8	81.7
합 계	124	100.0	113.8

사고 시 도움 받은 내용에 대해서 22명이 27사례를 응답했으며, 현금이 15사례(55.6%)로 가장 많았으며, 지지 격려가 10사례(37.0%)이었으며, 국민기초수급권 혜택도 1명(3.7%)이 있었다. 도움 받은 내용에 대한 응답 율이 매우 낮고 지지·격려 등의 비율이 높아 실질적 도움은 비교적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1> 사고 시 도움 받은 내용

도움 받은 내용	응답수		사례백분율
	사례	비율	
현금(돈)	15	55.6	68.2
정보제공	1	3.7	4.5
지지격려	10	37.0	45.5
수급권혜택	1	3.7	4.5
합 계	27	100.0	122.7

도움 받은 후에 느낀 만족도의 경우 25명이 32 사례를 응답했는데, 만족한다가 53.1%, 매우 만족한다가 6.3%로 전체 사고자의 59.4%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불만족은 9.4%에 불과해 불만족한 이들의 비율이 낮았다(<표 2-32> 참조). 이는 도움을 제공한 이는 소수이지만, 이들의 도움이 적지 않게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표 2-32> 사고 시 도움 받은 내용에 대한 만족도

도움의 만족도	응답수		사례백분율
	사례	비율	
불만	3	9.4	12.0
보통	10	31.3	40.0
만족	17	53.1	68.0
매우만족	2	6.3	8.0
합 계	32	100.0	128.0

2.4.3 영농도우미 욕구와 도우미 조건

1) 사고로 인한 농사일 지장 여부

사고로 인한 농사일의 지장 정도에 대하여 전혀 지장이 없었다는 6.1%에 불과하였으며, 대체로 지장이 없었다도 14.8%로 나타나 20.9%만이 농사일에 지장이 없었다고 응답하였다. 반면에 47.0%가 매우 지장이 있었다라고 응답하였으며, 15.7%가 대체로 지장이 있었다라고 하여 62.7%가 사고로 인하여 농사일에 지장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의 입원치료, 거동 정도 등의 상황과 일관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 2-33> 사고로 인한 농사일 장애정도

사고로 인한 농사일 장애 정도	빈도	비율
전혀 지장이 없었다	7	6.1
대체로 지장이 없었다	17	14.8
약간 지장이 있었다	19	16.5
대체로 지장이 있었다	18	15.7
매우 지장이 있었다	54	47.0
합계	115	100.0

2) 사고시 도움 제공자

만약 사고로 인하여 농사일에 지장 받을 경우 누구로부터 도움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하여 444명이 457개를 응답하였다. 분석결과 없다가 47.7%나 되어 주변으로부터 도움 받을 수 없는 이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부모·형제·자매가 14.7%, 자녀·손자녀가 19.9%로 나타나 34.6%는 가족으로부터 도움을 받는다고 응답하였다. 대다수의 농민들은 어려울 때 도움 받는 것이 혈연 중심의 비공식적인 관계망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움을 주는 사람이 동네사람·이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3.1%로 나타났는데 이는 농가의 어려움의 일정부분을 지역공동체에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농협·축협 혹은 행정조직을 비롯한 비교적 공식적인 조직들의 도움 정도는 매우 미약하다. 이는 실제로 농민들의 경우 국가기관의 서비스를 통해서가 아니라 비공식적 관계망에 의해 복지기능의 일부를 동정적, 관습적 방식으로 해결해 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2-34> 사고 시 도움제공 가능자

사고시 도움제공 가능자	응답수		사례백분율
	사례	비율	
없다	218	47.7	49.1
부모·형제·자매	67	14.7	15.1
자녀·손자녀	91	19.9	20.5
동네사람·이웃	60	13.1	13.5
농협·축협	1	.2	.2
읍면동사무소	1	.2	.2
농민단체·주민조직	2	.4	.5
사회복지기관	1	.2	.2
기타	16	3.5	3.6
합계	457	100.0	102.9

3) 도우미 제도 인지도

<표 2-35>에서와 같이 도우미제도의 인지도를 살펴본 결과, 영농(농사) 및 출산도우미 제도에 대하여 응답자의 77.2%가 전혀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출산도우미를 알거나 이용해 본 경우는 4명에 불과한데 이는 응답자의 연령이 전반적으로 높는데 기인하다고 볼 수 있다. 여하튼 그동안 수행되어온 출산도우미 사업이 농촌에 크게 인지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영농도우미와 출산도우미제도를 전혀 모르는 비율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익산이 90.1%로 가장 높았으며, 안성이 83.1%, 철원이 82.8%로 비교적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청원의 경우 58.8%만이 전혀 모른다고 응답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이었으며, 출산도우미 이용자도 무안과 더불어 2명이 있었으며, 출산도우미 인지율도 27.9%로 다른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다($p<0.01$). 무안과 청원은 해안 조건과 시설작목농업 특성상 젊은 영농인력이 약간 존재하기 때문에 출산도우미 이용 사례가 있었기에 인지도가 높다고 판단된다(<표 2-35> 참조).

<표 2-35> 지역별 도우미제도 인지도

도우미제도 인지도	김천	무안	안성	익산	철원	청원	합 계
전혀 모른다	43 74.1%	64 70.3%	54 83.1%	91 90.1%	53 82.8%	40 58.8%	345 77.2%
출산도우미를 안다	8 13.8%	15 16.5%	7 10.8%	3 3.0%	7 10.9%	19 27.9%	59 13.2%
영농도우미를 안다	7 12.1%	10 11.0%	4 6.2%	7 6.9%	4 6.3%	7 10.3%	39 8.7%
출산도우미를 이용해봤다	0 .0%	2 2.2%	0 .0%	0 .0%	0 .0%	2 2.9%	4 .9%
합 계	58 100.0%	91 100.0%	65 100.0%	101 100.0%	64 100.0%	68 100.0%	447 100.0%

$X^2=37.102$, $df=15$, $p<0.01$

4) 영농도우미 필요성

<표 2-36>의 결과와 같이, 사고로 인한 불편함이나 장애가 해소될 때까지 농사일을 도와주는 영농도우미가 필요한가에 대하여 매우 필요하다가 44.9%이었으며, 대체로 필요하다는 38.4%로 나타나 83.3%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반면에 전혀 필요 없다는 응답은 5.1%에 불과하며, 대체로 필요없다는 응답은 11.6%로서 영농도우미의 필요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가사고가 차량과 기계 등에 의하여 심한 수준으로 나타나며, 장기적으로 입원이나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나타난 필요도라고 할 수 있다.

지역별 영농도우미의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p<0.001$). 가장 필요성이 높게 나타난 곳은 청원으로 평균순위 251.45로 매우 필요하다가 65.2%, 대체로 필요하다가 25.8%로 91.0%가 필요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다음은 무안으로 평균 순위가 232.96으로 나타났다. 무안의 경우 매우 필요하다가 60.2%, 대체로 필요하다가 22.9%로 83.1%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안성지역은 평균순위는 156.92로 매우 필요하다가 23.0%이었으며, 대체로 필요하다는 49.2%로 나타나 72.2%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필요도 자체는 높았으나 다른 지역에 비하여 낮았다. 청원은 시설작목이 많은 곳이며, 무안은 채소, 밭·보리 작목이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이었다.

<표 2-36> 지역별 영농도우미의 필요성

영농도우미 필요성	김천	무안	안성	익산	철원	청원	합 계
전혀 필요없다	4	6	5	4	1	1	21
	7.0%	7.2%	8.2%	4.4%	1.8%	1.5%	5.1%
대체로 필요없다	9	8	12	11	3	5	48
	15.8%	9.6%	19.7%	12.2%	5.3%	7.6%	11.6%
대체로 필요하다	23	19	30	34	36	17	159
	40.4%	22.9%	49.2%	37.8%	63.2%	25.8%	38.4%
매우 필요하다	21	50	14	41	17	43	186
	36.8%	60.2%	23.0%	45.6%	29.8%	65.2%	44.9%
합 계	57	83	61	90	57	66	414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순위	186.53	232.96	156.92	208.80	192.58	251.45	-

$X^2=30.804$, $df=5$, $p<0.001$

5) 영농도우미 이용시 불편한 이유

영농도우미를 이용하게 될 경우 불편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농사도 잘 모르고 도움이 안 될 것 같다가 28.2%로 가장 높았으며, 비용이 들기 때문이 22.8%로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13.1%는 필요할 때 영농도우미가 바로 못 올 것 같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주변의 농사 짓는 사람들은 비슷한 시기에 바빠서 영농도우미로 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외지에서 올 수 밖에 없는 상황 때문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즉, 타지나 인근 도시에서 영농도우미가 올 경우 실질적으로 농사에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비용에 대한 부담도 적지 않은 것은 농촌 현실을 감안할 때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영농도우미가 바로 못 올 것 같다는 응답에는 농촌이라는 거리상 문제와 필요한 시기에 바로 올 수 있어야 한다는 신속성의 문제가 모두 내포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영농도우미 파견사업을 주관하는 기관의 경우 영농도우미에 대한 사전 훈련을 통하여 일정정도 농업에 대한 전문성을 키우는 것과, 적절한 영농도우미를 수요에 따라 바로 배치,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표 2-37>과 같이 영농도우미를 이용하는데 예상되는 불편함으로는 시설작목이 많은 청원의 경우 농사도 잘 모르고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응답이 45.3%로 매우 높았으며, 가장 소득이 낮은 지역인 익산의 경우 비용이 들기 때문이 35.4%로 다른 지역에 비하여 매우 높았다. 또한 교통을 비롯한 접근성에서 다소 불편한 철원이나 청원의 경우 필요할 때 바로 못 올 것 같다는 응답이 각각 19.0%, 18.8%로 나타나 다른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다. 김천의 경우에는 외부인을 신뢰하기 힘들어가 17.2%로 타지역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편차가 있었다($p<0.01$).

이러한 결과는 영농도우미를 일괄된 체계로 구축할 경우 효율성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지역의 상황에 따라 작목에 따라 그 지역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들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준비할 경우 영농도우미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농민들의 신뢰도 얻게 될 것이다.

<표 2-37> 지역별 영농도우미 이용시 불편한 이유

불편 사유	김천	무안	안성	익산	철원	청원	합 계
농사도 잘 모르고 도움 안될 것	13 22.4%	23 27.7%	18 27.7%	23 24.0%	15 23.8%	29 45.3%	121 28.2%
비용이 들기 때문에	9 15.5%	17 20.5%	17 26.2%	34 35.4%	11 17.5%	10 15.6%	98 22.8%
이웃도움으로 충분해	3 5.2%	2 2.4%	1 1.5%	2 2.1%	3 4.8%	0 .0%	11 2.6%
가족 내에서 해결 가능해	7 12.1%	3 3.6%	9 13.8%	8 8.3%	4 6.3%	1 1.6%	32 7.5%
외부인을 신뢰하기 힘들어	10 17.2%	2 2.4%	2 3.1%	7 7.3%	4 6.3%	2 3.1%	27 6.3%
신청절차가 복잡할 것 같아	1 1.7%	5 6.0%	0 .0%	4 4.2%	2 3.2%	4 6.3%	16 3.7%
필요한 때 바로 못 올 것 같아	5 8.6%	11 13.3%	9 13.8%	7 7.3%	12 19.0%	12 18.8%	56 13.1%
기타	10 17.2%	20 24.1%	9 13.8%	11 11.5%	12 19.0%	6 9.4%	68 15.9%
합 계	58 100.0%	83 100.0%	65 100.0%	96 100.0%	63 100.0%	64 100.0%	429 100.0%

$X^2=68.360$, $df=35$, $p<0.01$, 41.7% E.C<5

6) 영농도우미 자격 조건

영농도우미의 자격조건에서 농사일 경험자가 40.8%나 되었으며, 성실하고 열심인 자가 26.8%로 나타나 경험과 성실성이 성격, 애정, 지식보다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수원에서 봉지 싸기와 같은 단순한 일의 경우 성실하고 열심인 자를 선호하였으며, 축산·시설 작목 등의 경우와 같이 쪼트 짜기를 위한 기술과 가축과의 교감을 요구하거나, 시설작목 특유의 섬세한 관리 및 농사능력 등의 충분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자를 주로 원하였다. 이는 농사의 특성에 따라 요구하는 인력들이 충분히 다를 수 있다는 것으로 영농도우미 파견 시 유의해야 할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영농도우미가 갖추어야 할 자격조건을 살펴보면, 김천의 경우 농사일 경험자와 성실하고 열심인 자가 각각 37.9%로 가장 높았으며, 성실, 열심인 자의 경우 타 지역보다 높은 비율이었다. 무안의 경우 농사 지식·이해를 갖춘 자의 선호도가 26.4%로 타 지역보다 높았다. 안성의 경우 농사일 경험자의 선호도가 높았으며, 철원의 경우 농촌을 사랑하는 자가 17.2%로 다른 지역보다 높았다. 청원은 성실하고 열심인 자가 33.3%로 김천 다음으로 높아 지역별 선호도가 차이가 있었다 ($p<0.001$). 지역별 영농도우미의 자격조건은 지역 농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영농도우미 홍보 전략을 구성하는데 이러한 특성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다.

<표 2-38> 지역별 영농도우미 자격조건

영농도우미 자격조건	김천	무안	안성	익산	철원	청원	합 계
농사 지식·이해 갖춘 자	5	24	8	22	2	4	65
	8.6%	26.4%	12.3%	22.0%	3.1%	6.1%	14.6%
농촌을 사랑하는 자	4	11	1	6	11	7	40
	6.9%	12.1%	1.5%	6.0%	17.2%	10.6%	9.0%
농사일 경험자	22	28	37	38	29	27	181
	37.9%	30.8%	56.9%	38.0%	45.3%	40.9%	40.8%
성실하고 열심인 자	22	22	13	21	19	22	119
	37.9%	24.2%	20.0%	21.0%	29.7%	33.3%	26.8%
친밀감 있고 성격 좋은자	1	5	2	2	1	3	14
	1.7%	5.5%	3.1%	2.0%	1.6%	4.5%	3.2%
기타	4	0	4	9	2	3	22
	6.9%	.0%	6.2%	9.0%	3.1%	4.5%	5.0%
합 계	58	91	65	100	64	66	444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X^2=64.569$, $df=25$, $p<0.001$

7) 영농도우미 이용비용 부담의사

도우미 이용비용의 부족분을 정부가 지원해 줄 경우, 영농도우미 하루 이용비용으로 농가가 얼마정도 부담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하루 평균 약 3.1만원(표준편차 2.1만원)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만원 미만이 35.0%로 가장 많았으며, 3만원이 24.8%, 1만원 미만이 16.4%로 나타나 76.2%가 3만원 미만으로 응답하였다. 기타의 경우 가격을 정하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역별 영농도우미의 하루 이용비용에 대해 살펴보면, 김천의 경우 1만원 미만이 39.1%, 2만원 미만이 34.8%로 높은 비율로 조사되었다. 청원의 경우 2만원 미만이 56.1%로 타 지역에 비하여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익산과 무안의 경우 3만원 미만이 각각 36.3%, 31.3%로 나타났으며, 특히 무안의 경우 4만원, 5만원 미만의 비율이 각각 17.5%, 8.8%로 다른 지역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 비교적 저소득 지역임에도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일의 성격이 특정시기에 집중되어 있어서 일손의 계절적 불균형 때문으로 보여 진다($p<0.001$).

<표 2-39> 지역별 영농도우미 하루이용 비용 부담액

영농도우미 비용 부담액	김천	무안	안성	익산	철원	청원	합 계
1만원미만	18	8	7	10	8	15	66
	39.1%	10.0%	11.5%	11.0%	13.6%	22.7%	16.4%
2만원미만	16	20	22	23	23	37	141
	34.8%	25.0%	36.1%	25.3%	39.0%	56.1%	35.0%
3만원미만	7	25	15	33	12	8	100
	15.2%	31.3%	24.6%	36.3%	20.3%	12.1%	24.8%
4만원미만	0	14	2	7	2	1	26
	.0%	17.5%	3.3%	7.7%	3.4%	1.5%	6.5%
5만원미만	0	7	2	3	2	1	15
	.0%	8.8%	3.3%	3.3%	3.4%	1.5%	3.7%
6만원이상	1	4	2	2	1	0	10
	2.2%	5.0%	3.3%	2.2%	1.7%	.0%	2.5%
기타	4	2	11	13	11	4	45
	8.7%	2.5%	18.0%	14.3%	18.6%	6.1%	11.2%
합 계	46	80	61	91	59	66	403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X^2=95.218$, $df=30$, $p<0.001$

2.4.4. 취약농가의 영농도우미 추진

1) 영농도우미 주관 기관

영농도우미 사업을 주관할 기관으로 조사대상 농민들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곳은 읍·면·동 사무소가 33.2%로 가장 많았으며, 농협·축협이 30.6%로 다음으로 높았다. 농민단체의 경우 14.1%이었으며, 그 외 기관들은 다소 적었다. 기타의 경우 신뢰하거나 공평한 기관이라는 조건이 있었는데, 농협·축협이나 읍면동 사무소에서는 특정인들을 주로 지원하기 때문에 공정하지 않다는 불만도 다소 있었다.

<표 2-40>의 결과와 같이 영농도우미 주관 기관으로 가장 적절한 기관이 어디인지를 살펴본 결과 지역별 차이가 나타났다($p<0.001$). 김천의 경우 자원봉사센터와 농민단체가 각각 10.3%, 20.7%로 다른 지역보다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무안의 경우 농민단체가 24.1%로 다른 지역보다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안성과 청원의 경우 농협·축협이 각각 48.4%, 43.3%로 매우 높았으며, 철원은 읍·면·동사무소가 45.9%로 매우 높았다. 익산은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으나 읍·면·동사무소와 농협·축협이 모두 28.9%로 비슷한 비율이었다.

<표 2-40> 지역별 적절한 영농도우미 주관기관

영농도우미 주관기관	김천	무안	안성	익산	철원	청원	합 계
읍·면·동사무소	13	34	20	28	28	21	144
	22.4%	39.1%	31.3%	28.9%	45.9%	31.3%	33.2%
농협·축협	14	13	31	28	18	29	133
	24.1%	14.9%	48.4%	28.9%	29.5%	43.3%	30.6%
사회복지기관	3	3	5	4	1	1	17
	5.2%	3.4%	7.8%	4.1%	1.6%	1.5%	3.9%
자원봉사센터	6	5	1	5	0	4	21
	10.3%	5.7%	1.6%	5.2%	.0%	6.0%	4.8%
농민단체	12	21	3	15	5	5	61
	20.7%	24.1%	4.7%	15.5%	8.2%	7.5%	14.1%
기타	10	11	4	17	9	7	58
	17.2%	12.6%	6.3%	17.5%	14.8%	10.4%	13.4%
합 계	58	87	64	97	61	67	434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58.251$, $df=25$, $p<0.001$

2) 영농도우미 활성화 방안

영농도우미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어떤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하여 27.8%가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바로 바로 연결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응답하여 취약농가 인력지원 체계의 중요성을 보여주었다. 숙련되고 능숙한 영농도우미 확보도 23.2%로 높은 비율이었으며, 농민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응답도 19.1%로 나타났다. 반면에 적극적인 홍보·정보 제공은 11.5%에 머물렀으며, 신청절차의 편리함도 7.4%에 이르는 등 홍보나 절차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한 이들의 비율이 낮았다(<표 2-41> 참조).

따라서 영농도우미 제도 시행에서, 외지거나 교통이 불편하더라도 농번기 때에 신속히 농가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전달 및 추진체계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필요시 바로 농사에 투입될 수 있도록 충분히 훈련되고 준비된 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영농도우미 활성화 방안으로 지역별로 편차가 있었는데($p < 0.05$), 김천의 경우 필요시 언제나 연결되는 체계구축이 37.9%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으며, 무안이 33.0%, 청원이 32.3%로 비교적 높았다. 안성의 경우 농민부담 최소화가 28.6%로 다른 지역보다 높았으며, 철원과 안성은 숙련된 도우미 확보 비율이 각각 29.0%, 27.0%로 비교적 높았다. 특히 철원은 적극적인 홍보·정보 제공이 19.4%로 다른 지역보다 높았다. 익산의 경우 농민부담 최소화가 23.2%로 안성 다음으로 높았다.

<표 2-41> 지역별 영농도우미 활성화 방안

활성화 방안	김천	무안	안성	익산	철원	청원	합 계
적극적 홍보·정보제공	1	7	5	18	12	7	50
	1.7%	8.0%	7.9%	18.2%	19.4%	10.8%	11.5%
숙련 능숙 도우미 확보	14	18	17	18	18	16	101
	24.1%	20.5%	27.0%	18.2%	29.0%	24.6%	23.2%
신청배분절차의 편리신속	5	4	2	8	7	6	32
	8.6%	4.5%	3.2%	8.1%	11.3%	9.2%	7.4%
필요시 언제나 연결되는 체계구축	22	29	16	22	11	21	121
	37.9%	33.0%	25.4%	22.2%	17.7%	32.3%	27.8%
농민부담 최소화	11	16	18	23	9	6	83
	19.0%	18.2%	28.6%	23.2%	14.5%	9.2%	19.1%
기타	5	14	5	10	5	9	48
	8.6%	15.9%	7.9%	10.1%	8.1%	13.8%	11.0%
합 계	58	88	63	99	62	65	43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39.298$, $df=25$, $p < 0.05$

2.5 취약농가의 상황과 가사도우미 욕구

2.5.1 가족원의 건강. 질병

응답자 가족 중에 노환, 장애, 그리고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42.0%만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35.7%는 질병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장애가 있는 비율은 4.9%이었으며, 노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족원이 있는 경우는 17.3%이었다.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에서 가족 구성원 중 환자가 있다는 결과는 농촌의 의료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보여주는 간접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질병을 가진 가족구성원도 상당수가 노령층인 다음 표의 결과와 연결 지어 본다면 노인을 대상으로 한 전문의료 지원체계의 구축이 시급히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표 2-42> 응답자의 가족 중 노환, 장애, 질병가족원 유무

노환, 장애가족 유무	빈도	비율
없다	185	42.0
질병가족원	160	35.7
장애가족원	23	4.9
노환가족원	77	17.3
합계	445	100.0

<표 2-43>에서와 같이 가족 내 질환자에 대하여 260명이 응답한 결과 응답이 343사례로 한 가족당 평균 1.3명의 질환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형태는 65세 이상의 할머니가 44.6%, 할아버지가 23.0%, 65세 미만 어머니가 15.5%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정 내 질환자 중 노인의 비율이 67.6%로 매우 높아 노인의 건강 문제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43> 응답자 가족의 중 질환자의 가족형태

가족 내 질환자의 가족형태	응답수		사례백분율
	사례	비율	
할아버지(65세 이상)	79	23.0	30.4
할머니(65세 이상)	153	44.6	58.8
아버지(65세 미만)	49	14.3	18.8
어머니(65세 미만)	53	15.5	20.4
(손)자녀	7	2.0	2.7
모의형제자매	1	.3	.4
기타	1	.3	.4
합계	343	100.0	131.9

주) n=260, 다중응답설문

가족내 아픈 이들의 질환 내용을 살펴보면 1인당 평균 1.8개의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이 중 관절염·노환이 26.5%로 가장 많았으며 좌골신경통까지 포함하면 34.5%가 신경통증으로 나타났다. 고혈압이나 저혈압은 13.0%이었으며, 중풍도 3.4%가 있었다. 이는 농민들이 다양한 질병에 시달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표 2-44> 참조).

<표 2-44> 가족 내 질환자의 질환 내용

질병명	응답수		사례백분율
	사례	비율	
고저혈압	62	13.0	23.8
뇌졸중(중풍)	16	3.4	6.2
심장질환	20	4.2	7.7
위장질환	20	4.2	7.7
간질환	7	1.5	2.7
신장질환	9	1.9	3.5
당뇨병	36	7.6	13.8
호흡기질환	25	5.3	9.6
관절염·노환	126	26.5	48.5
안(눈)질환	8	1.7	3.1
청각질환	10	2.1	3.8
치과질환	5	1.1	1.9
치매	6	1.3	2.3
좌골신경통	38	8.0	14.6
정신과질환	5	1.1	1.9
지체장애	14	2.9	5.4
뇌병변장애	2	.4	.8
정신지체	1	.2	.4
기타	66	13.9	25.4
합 계	476	100.0	183.1

주) n=260, 다중응답설문

249명이 응답한 치료 정도를 살펴보면 병원 이용이 64.4%로 가장 많았으며, 개인의원이 14.4%로 나타나 병의원이 78.8%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특징은 의약분업 이후 또렷이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다.

<표 2-45> 질환자의 치료 정도

치료정도	응답수		사례백분율
	사례	비율	
참는다	21	6.2	8.4
약국	28	8.2	11.2
보건소	16	4.7	6.4
한의원	7	2.1	2.8
개인의원	49	14.4	19.7
병원	219	64.4	88.0
합 계	340	100.0	136.5

주) n=249, 다중응답설문

254명이 응답한 아픈·장애 정도의 경우 전혀 없다가 0.9%에 불과하였으나, 많이 있다는 응답이 51.8%, 매우 많이 있다는 응답이 12.6%로 나타나 64.4%가 많이 아픈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질환 문제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2-46> 참조).

<표 2-46> 질환자의 아픔과 장애 정도

아픔과 장애정도	응답수		사례백분율
	사례	비율	
전혀 없음	3	0.9	1.2
거의 없음	20	6.0	7.9
약간 있음	96	28.7	37.8
많이 있음	173	51.8	68.1
매우 많이 있음	42	12.6	16.5
합 계	334	100.0	131.5

주) n=254, 다중응답설문

거동정도의 경우 83.4%가 혼자서 가능하다고 응답하여 대부분이 거동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혀 불가능하다는 응답도 3.6%나 되었으며, 부족시 가능하다는 응답도 6.5%로 나타나 10.1%는 거동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47> 질환자의 거동 정도

질환자의 거동정도	응답수		사례백분율
	사례	비율	
전혀 불가	12	3.6	4.7
부족 시 가능	22	6.5	8.6
도구 사용 시 가능	22	6.5	8.6
혼자서 가능	281	83.4	109.8
합 계	337	100.0	131.6

주) n=256, 다중응답설문

질병·장애를 가진 가족이 있다고 응답한 260명의 농민 중 가사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응답은 251명이다(<표 2-48> 참조). 이들 중 대체로 지장이 있다와 매우 지장이 있다가 모두 26.3%씩으로 나타나 52.6%가 가사에 지장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지장이 전혀 없다는 응답은 6.0%에 불과하였으며, 대체로 지장이 없다도 17.1%로 나타났다. 이는 상당수의 농가 구성원이 질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 대부분이 병의원을 이용함과 함께 가사일에도 적지 않은 지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2-48> 질병 장애로 인한 가사 수행의 어려움

질병 장애로 인한 가사 수행 어려움	빈도	비율
전혀 지장이 없었다	15	6.0
대체로 지장이 없었다	43	17.1
약간 지장이 있었다	61	24.3
대체로 지장이 있었다	66	26.3
매우 지장이 있었다	66	26.3
합 계	251	100.0

만약 질병으로 집안일에 지장이 생겼을 경우 누구로부터 도움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하여 447명이 461개를 응답하였다. 이 경우 전혀 없다가 38.2%로 가장 많아 질병 등으로 지장이 있을 경우 주변으로부터 도움 받을 수 없는 이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변의 도움 가능요인에 대한 응답은 자녀·손자녀로 부터 도움 받는다가 31.0%로 비교적 높았으며, 부모·형제·자매가 18.4%로 나타나 49.4%는 가족으로부터 도움을 받는다고 응답하였으며 동네사람·이웃이 10.8%로 나타났다. 그러나 농협·축협이나 읍·면·동 사무소, 농민단체 등으로 부터의 도움 정도는 매우 미약하며 사회복지기관으로부터의 도움도 미약하다. 따라서 취약농사를 위한 적극적인 가사도우미 추진체계에 대한 검토를 통해 농촌복지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필요가 절실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2-49> 질병 시 가사 도움 제공자

도움 제공 가능자	응답수		사례백분율
	사례	비율	
없다	176	38.2	39.4
부모·형제·자매	85	18.4	19.0
자녀·손자녀	143	31.0	32.0
동네사람·이웃	50	10.8	11.2
농협·축협	1	.2	.2
읍면동사무소	1	.2	.2
농민단체·주민조직	1	.2	.2
사회복지기관	1	.2	.2
기타	3	.7	.7
합 계	461	100.0	103.1

주) n=447, 다중응답설문

2.5.2 가사도우미 욕구와 도우미 조건

1) 가사도우미 필요성 인식

질병이나 노환, 장애로 인해 불편함이 생겼을 때 가사 일을 도와주는 가사도우미의 필요성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매우 필요하다는 27.6이었으며, 대체로 필요하다는 응답도 34.9% 나타나 62.9%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반면에 전혀 필요 없다는 9.0%, 대체로 필요 없다는 18.9%로 나타나 영농도우미의 필요성에 비하여 다소 낮았으나⁵⁾ 가사도우미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50> 질병, 노환, 장애 발생 시 가사도우미의 필요성

가사도우미의 필요성	빈도	비율
전혀 필요 없다	40	9.0
대체로 필요 없다	84	18.9
대체로 필요하다	157	35.3
매우 필요하다	123	27.6
잘 모르겠다	41	9.2
합 계	445	100.0

5) 대체로 필요 38.4%, 매우 필요 44.9%로 83.3%가 영농도우미가 필요하다고 응답 함(<표 2-36> 참조)

지역별로 응답자를 구분하여 가사도우미의 필요성에 대해 분석한 결과 비교적 차이가 크게 나타났는데($p < 0.001$), 무안 및 청원의 경우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각각 42.9%, 41.2%로 나타나 철원의 9.7%, 김천의 15.5%에 비하여 크게 높았다. 또한 청원의 경우 대체로 필요하다는 응답도 47.1%나 되어 필요성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 순위도 247.99로 가장 높았다.

<표 2-51> 지역별 가사도우미의 필요성

가사도우미의 필요성	김천	무안	안성	익산	철원	청원	합 계
전혀 필요 없다	11	5	3	10	10	1	40
	19.0%	5.5%	4.6%	9.9%	16.1%	1.5%	9.0%
대체로 필요 없다	15	14	17	17	15	6	84
	25.9%	15.4%	26.2%	16.8%	24.2%	8.8%	18.9%
대체로 필요하다	22	18	24	35	26	32	157
	37.9%	19.8%	36.9%	34.7%	41.9%	47.1%	35.3%
매우 필요하다	9	39	16	25	6	28	123
	15.5%	42.9%	24.6%	24.8%	9.7%	41.2%	27.6%
잘 모르겠다	1	15	5	14	5	1	41
	1.7%	16.5%	7.7%	13.9%	8.1%	1.5%	9.2%
합 계	58	91	65	101	62	68	44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순위	158.18	240.64	197.07	198.71	154.01	247.99	

$X^2=40.461$, $df=5$, $p < 0.001$,

2) 응답가구의 가사도우미 필요성과 조건

응답자 자신의 가정에 현재 가사도우미가 필요한가에 대하여 전혀 필요없다가 37.0%나 되었으며, 대체로 필요없다는 32.5%로 나타나 69.5%가 필요없다고 응답하여 실질적인 수요는 다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대체로 필요하다가 13.5%, 매우 필요하다가 11.1%로 나타나 24.6%는 가사도우미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가사도우미가 필요없다는 응답자의 대부분은 '자식들이 있는데' 라는 응답과 '집안일을 어떻게 남한테 맡기냐'는 응답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농촌지역의 배타적 정서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2-52>에서와 같이, 응답자 자신의 가정에 가사도우미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가장 선호도가 높은 지역은 무안으로 254.71로 가사도우미의 필요성 240.64보다 오히려 더 높게 나타났다. 김천, 익산, 청원의 경우 200대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안성과 철원이 190대로 가장 낮았다. 평균 순위는 전반적으로 가사도우미의 필요성에 비하여 낮았으며(Z of Wilcoxon= -12.341, $p < 0.001$), 상관계수는 0.390($p < 0.001$)으로 가사도우미가 필요한 경우 자신의 가정에도 가사도우미가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경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53>과 같이 가사도우미 이용시 불필요하거나 불편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에 대하여 살펴보면, 22.7%가 집안일을 맡기는 것이 불편하다고 응답하였으며, 20.0%가 가족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불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11.4%는 외부인을 신뢰하기 힘들다고 응답하여 가사도우미에 대하여 불편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촌사회가 갖는 전통적인 가족중심적인 생활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외에 필요할 때 바로 못 올 것 같다는 응답도 12.8%로 나타났다. 이는 농촌 특성상 자원봉사자인 가사도우미가 오기에는 거리상, 시간상의 제약을 고려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가사도우미를 이용할 경우 발생될 수 있는 불필요·불편함에 대하여 김천의 경우 가족 내 해결이 가능하다가 28.1%로 가장 높았으며, 다른 지역과 비교해도 높았다. 무안의 경우 가사와 농사를 다 도와야 한다는 응답이 18.8%로 다른 지역보다 높았으며, 조사지역 중 가장 소득이 낮은 지역인 익산의 경우 집안일을 맡기는 것이 불편하다가 31.0%, 가족내 해결 가능하다가 25.0%로 가족중심적인 성향이 다소 강했다. 철원의 경우 외부인을 신뢰하기 힘들다가 23.3%, 필요할 때 바로 못 온다가 23.3%로 다른 지역에 비하여 크게 높았는데, 이는 민통선 내에서 농사짓고 생활하는 이 지역 주민들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청원의 경우 필요할 때 바로 못 온다가 20.3%, 집안일 맡기기 불편하다가 26.6%로 다른 지역에 비하여 다소 높았으며, 안성의 경우 가족 내에서 해결 가능하다가 27.7%로 다른 지역에 비해 다소 높아 지역별 편차가 있었다(p<0.001).

<표 2-52> 지역별 응답자 가정에 가사도우미의 필요성

지역별 응답자의 가사도우미 필요성	김천	무안	안성	익산	철원	청원	합 계
전혀 필요없다	24 41.4%	16 18.2%	29 44.6%	38 37.6%	27 42.9%	30 44.1%	164 37.0%
대체로 필요 없다	17 29.3%	30 34.1%	23 35.4%	33 32.7%	22 34.9%	19 27.9%	144 32.5%
대체로 필요하다	11 19.0%	13 14.8%	6 9.2%	10 9.9%	10 15.9%	10 14.7%	60 13.5%
매우 필요하다	5 8.6%	16 18.2%	6 9.2%	11 10.9%	2 3.2%	9 13.2%	49 11.1%
잘모르겠다	1 1.7%	13 14.8%	1 1.5%	9 8.9%	2 3.2%	0 .0%	26 5.9%
합 계	58 100.0%	88 100.0%	65 100.0%	101 100.0%	63 100.0%	68 100.0%	443 100.0%
평균 순위	205.07	254.71	190.95	202.69	190.19	204.27	

$X^2=15.814$, $df=5$, $p<0.01$

<표 2-53> 지역별 가사도우미 이용 시 불필요·불편한 점

지역별 가사도우미 이용시 불편한 점	김천	무안	안성	익산	철원	청원	합 계
가사와 농사도 도와야	3 5.3%	16 18.8%	3 4.6%	10 10.0%	2 3.3%	7 10.9%	41 9.5%
집안일을 맡기기 불편	11 19.3%	17 20.0%	12 18.5%	31 31.0%	10 16.7%	17 26.6%	98 22.7%
가족내 해결가능	16 28.1%	11 12.9%	18 27.7%	25 25.0%	13 21.7%	3 4.7%	86 20.0%
외부인을 신뢰 힘들	7 12.3%	5 5.9%	4 6.2%	12 12.0%	14 23.3%	7 10.9%	49 11.4%
신청절차가 복잡할 것	4 7.0%	5 5.9%	5 7.7%	7 7.0%	1 1.7%	5 7.8%	27 6.3%
필요할 때 바로 못 올 것	7 12.3%	12 14.1%	5 7.7%	4 4.0%	14 23.3%	13 20.3%	55 12.8%
기타	9 15.8%	19 22.3%	18 27.7%	11 11.0%	6 10.0%	12 18.8%	75 17.4%
합 계	57 100.0%	85 100.0%	65 100.0%	100 100.0%	60 100.0%	64 100.0%	431 100.0%

$X^2=77.468$, $df=30$, $p<0.001$

2.5.3 가사도우미 욕구와 지원인력 추진

1) 적합한 가사도우미 주관기관

가사도우미 사업을 주관할 기관으로 응답자들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곳은 읍·면·동 사무소가 36.3%가 가장 높았다. 이는 영농도우미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 비율이었다. 반면 농협·축협의 경우 17.1%를 지적하였는데 이는 영농도우미의 주관기관으로 30.6%를 지적한 것에 비해 크게 낮았다. 농민단체의 경우 9.1%이었고 사회복지관이 11.6%, 자원봉사센터가 10.3% 등으로 지적되어 사회복지 관련 조직의 비율이 영농도우미 주관기관으로 지적되었던 것에 비하여 증가하였다.

가사도우미 주관기관의 경우 지역별 편차가 크게 났는데($p < 0.001$), 김천의 경우 자원봉사센터와 농민단체가 모두 17.5%씩으로 다른 지역보다 높았으며, 철원과 무안의 경우 읍·면·동사무소가 각각 54.0%, 40.0%로 높았으며, 청원과 안성의 경우 농협·축협이 각각 30.3%, 24.6%로 다른 지역보다 높았다. 익산의 경우 사회복지관이 17.5%로 비교적 높았으며, 청원은 자활후견기관이 7.6%이었으나 다른 지역에 비해 높았다(<표 2-54> 참조).

<표 2-54> 지역별 가사도우미 사업의 주관기관

지역별 가사도우미 주관기관	김천	무안	안성	익산	철원	청원	합 계
읍·면·동사무소	15	36	22	36	34	16	159
	26.3%	40.0%	33.8%	37.1%	54.0%	24.2%	36.3%
농협·축협	11	12	16	9	7	20	75
	19.3%	13.3%	24.6%	9.3%	11.1%	30.3%	17.1%
사회복지기관	4	11	8	17	3	8	51
	7.0%	12.2%	12.3%	17.5%	4.8%	12.1%	11.6%
자원봉사센터	10	9	7	4	8	7	45
	17.5%	10.0%	10.8%	4.1%	12.7%	10.6%	10.3%
농민단체	10	12	2	11	3	2	40
	17.5%	13.3%	3.1%	11.3%	4.8%	3.0%	9.1%
종교단체	0	4	3	3	2	6	18
	.0%	4.4%	4.6%	3.1%	3.2%	9.1%	4.1%
자활후견기관	0	2	0	0	0	5	7
	.0%	2.2%	.0%	.0%	.0%	7.6%	1.6%
기타	7	4	7	17	6	2	43
	12.3%	4.4%	10.8%	17.5%	9.5%	3.0%	9.8%
합 계	57	90	65	97	63	66	438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X^2=89.671$, $df=35$, $p < 0.001$

2) 가사도우미 활성화 방안

가사도우미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어떤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하여 25.7%가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바로 바로 연결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응답하여 영농도우미와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농민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응답도 16.9%로 두 번째로 높았으며, 적극적인 홍보 및 정보제공과 농사일도 돕는 도우미의 확보가 13.3%씩으로 나타났다. 가사도우미 제도 시행에 있어서, 영농도우미와 마찬가지로 신속히 지원해 줄 수 있는 전달체계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표 2-55> 참조).

가사도우미 활성화 방안의 경우도 지역별로 편차가 있었는데, 철원의 경우 언제나 연결되는 체계구축이 가장 높아 36.5%로 영농도우미와 마찬가지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김천 또한 31.6%로 영농도우미와 마찬가지로 즉시 연결체계 구축을 가장 높게 선호하였다. 무안의 경우 영농·가사 통합 도우미가 17.6%로 타지역보다 높았으며, 적극적인 홍보의 경우 익산이 23.0%, 안성이 18.5%로 다른 지역보다 높았다. 익산의 경우 농민부담의 최소화가 26.0%로 다른 지역보다 높았으며, 영농도우미에 대한 요구도가 비교적 높은 것과 동일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표 2-55 > 지역별 가사도우미 활성화 방안

지역별 가사도우미 활성화 방안	김천	무안	안성	익산	철원	청원	합 계
적극적 홍보·정보제공	2	9	12	23	11	4	61
	3.5%	9.9%	18.5%	23.0%	17.5%	6.0%	13.8%
농사일도 돕는 도우미 확보	7	13	8	9	10	12	59
	12.3%	14.3%	12.3%	9.0%	15.9%	17.9%	13.3%
신청배분절차의 편리신속	4	3	6	7	3	5	28
	7.0%	3.3%	9.2%	7.0%	4.8%	7.5%	6.3%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수행	1	5	1	0	2	2	11
	1.8%	5.5%	1.5%	.0%	3.2%	3.0%	2.5%
필요시 언제나 연결되는 체계구축	18	25	14	14	23	20	114
	31.6%	27.5%	21.5%	14.0%	36.5%	29.9%	25.7%
농민부담 최소화	12	19	7	26	3	8	75
	21.1%	20.9%	10.8%	26.0%	4.8%	11.9%	16.9%
농사가사 통합도우미제공	6	16	4	6	2	10	44
	10.5%	17.6%	6.2%	6.0%	3.2%	14.9%	9.9%
기타	7	1	13	15	9	6	51
	12.3%	1.1%	20.0%	15.0%	14.3%	9.0%	11.5%
합 계	57	91	65	100	63	67	443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79.270$, $df=35$, $p<0.001$

3. 영농·가사도우미 참여 예상자 조사

3.1 조사목적과 내용

사고나 장애로 인해 일시적으로 농사일과 가사 일이 어려워진 농가에서 이웃이나 다른 사람을 불러 농사일이나 가사 일을 맡기는 경우 이를 영농도우미 혹은 가사도우미로 명명할 수 있다. 본 조사는 이러한 영농도우미와 가사도우미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도우미 활동에 대한 참여의사 및 참여조건을 확인하고 지원체계 방안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제도의 수립을 위한 기초 여건을 모색하기 위한 조사이다.

본 조사의 내용은 <표 3-1>과 같다.

<표 3-1> 영농·가사도우미 참여 예상자 조사 내용

항 목	내용
인구사회학적 특성	성별, 연령, 혼인상태, 교육수준, 국민기초생활수급여부, 과거의 직업
농촌에 대한 이해도	농사일에 대한 경험유무, 농촌에 대한 향후 정착가능성, 농촌의 어려움에 대한 이해정도.
영농도우미 참여에 대한 가능성	농가도우미에 대한 인지도, 영농도우미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정도, 영농도우미의 요건과 본인의 현황, 영농도우미에 대한 참여의사 및 참여조건 요구도, 농촌자원봉사에 대한 인지도, 영농도우미 파견기관 및 활성화 방안
가사도우미 참여에 관한 공급자 의식조사	자원봉사 경험 유무 및 자원봉사 내용, 농촌지역 자원봉사의 필요성에 대한 인지도, 가사도우미의 필요성에 대한 인지도, 가사도우미 참여의사 및 조건, 가사도우미 파견기관, 가사도우미 참여의 제한 요건 및 활성화 방안
기타	농가도우미정책에 대한 제언

3.2 조사지역 선정과 조사방법

3.2.1 조사지역 선정

조사대상 지역은 1차 조사대상 6개 지역 중 익산과 청원(청주포함)을 선택하여 실시하였다. 조사지역을 익산과 청원으로 제한한 이유는 익산은 수도권 중심지역으로 상대적으로 고령자들이 많아서 일반적인 농촌지역의 특성인 고령자들의 요구를 잘 반영할 수 있을 것이고, 청원의 경우 연령도 비교적 낮고 시설작목재배지로서 농가 간 소득격차 및 연령별 요구도 등의 농가 내부의 특

성을 잘 반영할 수 있는 대표 표본 지역에 대한 공급체계를 연구하는데 유용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익산의 경우 복지기관과 봉사인력이 타 지역에 비해서 활발한 편이기 때문에 인력 수급 현황을 조사하는데 유의미성이 있다.

조사방법은 두 지역에서 농민에 대한 영농 및 가사도우미 인력을 제공할 수 있는 인력풀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그 기관에 속한 사람들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지역에 인력풀을 공급할 수 있는 기관으로는 자원봉사센터, 자활후견기관, 실업종합지원센터, 가정봉사원 파견센터, 인력양성학원을 들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가장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자원봉사센터, 자활후견기관, 실업극복 지원센터, 가정봉사원파견센터로 조사대상 기관을 제한하였고 농협 군지부는 사업추진주체 기관이라 청주 1곳만 조사 대상에 포함하였다.

조사대상 기관을 5단체로 제한한 이유는 이들 조사대상 기관이 현재 활동 및 인력보유 현황에서 영농도우미나 가사도우미 사업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사업이 부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과 농협은 농가도우미의 추진주체가 될 가능성이 높은 기관이라는 점에서 이다. 사업의 실행주체와 시행인력 풀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성원을 중심으로 조사할 때 가장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도를 모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들 기관에 소속된 인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에 응한 인원은 209명이었다. 209명의 조사대상은 현재 농업과 관련된 자활사업을 하고 있거나 농촌지역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구성원이 중심이 되었고 향후 영농·가사 도우미로 활동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활동 영역의 성원들을 중심으로 조사하여 연구의 목적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3.2.2 조사방법과 조사기간

2차 조사는 1차 조사 결과를 신속하게 검토한 후 조사방향과 방법을 결정하였다. 조사방법은 연구진들이 직접 현장에 내려가서 기관의 실무자를 면담하여 본 조사사업을 숙지시킨 후, 기관 내에 속한 대상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배포조사 형식으로 조사하였다. 조사기간은 2005년 10월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루어졌다.

3.3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2차 조사의 응답자는 총209명으로서 지역별 청원 76명 36.4%, 청주 11명 5.3%, 익산 122명 58.3%이다. 209명 응답자의 소속기관을 보면 자활후견기관이 70.4%, 인력관리센터 4.3%, 실업종합지원센터 5.3%, 자원봉사센터 8.1%, 농협 12%이다. 자활기관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현재 자활기관에서 하는 사업 중 농업관련 사업인 유기농영농단과 '우렁각시'라는 가사도우미 활동이 전개되고 있어서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구성원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조사를 하여 비중을 높였고 익산의 경우 두개의 자활후견기관이 조사되었기 때문이다. 농협군지부에 관한 조사는 공급자의 인력수급 측면보다는 향후 이 사업의 주체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사에 포함시켰다.

응답자는 남자가 56명 27.2%, 여자 150명 72.8%로 여성의 비율이 훨씬 높다. 이는 현재 인력지원 기관에서 일하는 구성원들의 80% 정도가 여성이라는 점과 관련 되어 있다.

응답자 연령은 평균 45세이었으며 30대 22.9%, 40대 35.2%, 50대 35.8%로 비교적 젊은 인력들이

었다. 이러한 연령 구성은 실제로 농촌에서 농사일을 수행하기에는 적절한 연령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농업구조의 변화로 인해 여성의 일손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실정에서 볼 때 여성응답자가 많다는 것은 영농도우미와 가사도우미의 필요요건을 충족하는데 더 적절한 구성이라고 볼 수 있다.

<표 3-2> 영농·가사도우미 참여 예상자(2차조사)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		빈도	비율
지역	청원	76	36.4
	청주	11	5.3
	익산	122	58.3
	합계	209	100.0
성별	남자	56	27.2
	여자	150	72.8
	합계	206	100.0
연령대	20대이하	8	4.5
	30대	41	22.9
	40대	63	35.2
	50대	64	35.8
	60대이상	3	1.6
	합계	179	100.0

응답자중 기혼자의 비율은 92.5%로 대부분이 기혼이었고 학력은 중졸과 고졸이 35.6%로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대졸이하도 26.3%로 나타났다. 이는 농촌지역에 고학력 인력풀이 없다는 예상과 달리 본 조사에서는 읍이나 중소 도시에서는 대졸 인력도 많은 것으로 조사되어 향후 농가도우미의 내용적 확대, 즉 아동지도나 여타 농업·농촌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 가능성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농촌의 평균적 인구 구성에서 노령인구 비중이 21%를 차지하는데 반해 젊은 세대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농촌실업의 심각성을 엿볼 수 있는 척도이다. 조사대상 응답자의 절반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 현실은 매우 열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농가도우미 제도는 농촌의 취약농가에 대한 복지정책의 확대 측면만이 아니라 지역의 일자리 창출 효과 까지 포괄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표 3-3> 학력, 혼인유무 및 수급권자 여부

학력, 혼인유무 및 수급권자 여부		빈도	비율
혼인	미혼	9	4.5
	기혼	186	92.5
	기타	6	3.0
	합계	201	100.0
학력	중졸이하	69	35.6
	고졸이하	69	35.6
	대졸이하	51	26.3
	대학원이상	5	2.6
	합계	194	100.0
기초생활수급여부	수급권자	30	15.6
	조건부수급권자	67	34.9
	비해당	95	49.5
	합계	192	100.0

응답자들의 직업별 특성을 보면 <표 3-4>와 같이 응답자의 33.2%는 일용직이라고 응답했고 조사표상에 제시한 직업분류에서 선택할 수 없는 기타로 응답하는 경우가 29.5%로 매우 높았다. 이는 직업적 분류로 구분되기에 애매한 직업의 형태(자활은 고용은 아니지만 자영업도 아닌 특정한 직업적 자립의 과도기적 형태임)의 특성 때문이라 추정된다.

특히 과거의 직업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과거에 전업주부였다는 응답이 39.1%로 가장 높았다. 이는 현재의 직업구성에서 전업주부의 비율이 12.4%임을 볼 때 27%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러한 차이는 대부분 과거에 직업이 없는 가정주부로 있었던 여성들이 생계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를 찾아 자활기관이나 인력관리 기관으로 나왔음을 알 수 있다.

<표 3-4> 과거 및 현재의 직업 비교

응답자의 직업		빈도	비율
과거직업	전업주부	63	39.1
	가판, 영세자영업	2	1.2
	자영업	17	10.6
	일용직	16	9.9
	경영, 관리직	2	1.2
	판매서비스직	9	5.6
	전문자유직	6	3.7
	사무행정직	16	9.9
	기능기술직	10	6.2
	무직	6	3.7
	기타	14	8.7
	합계	161	100.0
	직업(현재)	전업주부	24
가판, 영세 자영업		3	1.6
자영업		5	2.6
일용직		64	33.2
경영, 관리직		3	1.6
판매서비스직		6	3.1
전문자유직		6	3.1
사무행정직		18	9.3
기능기술직		5	2.6
무직		2	1.0
기타		57	29.5
합계		193	100.0

3.4 영농도우미 참여조건과 추진체계

3.4.1 영농경험과 농촌정주에 대한 견해

응답자의 영농경험 유무를 조사한 결과 영농경험이 전혀 없다는 응답은 34.1%, 영농경험이 있거나 농사짓는 집에서 태어났거나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농사경험을 했다는 응답은 58%¹⁾로 농사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의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났다.

<표 3-5> 응답자의 영농경험 유무

영농경험 유무	빈도	비율
전혀 없다	69	34.1
봉사차원에서 경험	16	7.9
농업에 종사한 경험 있음	50	24.8
집안이 영농	50	24.8
현재 영농	17	8.4
합계	202	100.0

응답자들 중 농촌에 살 기회가 있다면 어떻게 하겠는가의 물음에 살아보고 싶다 27.0%, 고려해본다는 응답은 48.0%로 현재 살겠다는 의지는 약해도 조건에 따라서는 농촌에 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살지 않겠다는 응답은 24.0%로 낮다. 따라서 응답자의 상당수는 농촌의 생활조건이 변화한다면 농촌에 정착할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6> 향후 농촌정착에 대한 희망여부

향후 농촌정착에 대한 희망여부	빈도	비율
절대 살지 않겠다	20	9.8
가급적 살지 않겠다	31	15.2
고려해보겠다	98	48.0
가급적 살아보겠다	33	16.2
꼭 농촌에 살고싶다	22	10.8
합계	204	100.0

응답자들 중 다수는 농촌에 살고 싶은 장점으로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 30.9%, 자연친화적인 삶 37.7%로 응답했다. 이는 응답자들의 대부분이 농촌의 환경적 가치에 대해 호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3-7> 참조). 특히 연령별로는 40대가 농촌 거주 의향이 33.9%²⁾로 가장 높다(<표 3-11> 참조).

<표 3-9>에서 보면 응답자들은 농촌에 대해서 농촌공간과 농촌생활에 대한 긍정성으로 농촌이라는 공간이 갖는 환경자체를 높은 가치로 평가하고 있다. 농촌생활의 장점에 대해서는 남성들은 자연친화적 환경과 쾌적한 삶(35.2%) >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25.9%) > 여유로운 전원생활(18.5%) > 공동체적 생활(9.3%)을 장점으로 드는 반면 여성들은 자연친화적인 환경과 쾌적한 삶(39.5%)과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32.7%)에 대해서는 높은 가치를 두지만 여유로운 전원생활, 공동체적 생활에 대해서는 남성에 비해 훨씬 낮은 응답을 보이고 있다. 이는 농촌생활에 대한 남성과 여성의 시

1) 농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음(24.8%)+집안이 영농(24.8%)+현재 영농(8.4%) = 58.0%

2) 가급적 살아보겠다 22.6%+꼭 농촌에 살고 싶다 11.3%

각 차이를 보여준다.

농촌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응답자들이 인식하는 농촌의 어려움은 가장 크게 농가소득의 문제를 지적했다. 농촌문제에 대한 응답으로는 농가소득의 열악함 30.6%, 자녀양육 및 교육문제 17.5%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 15.5%로 비교적 농업을 주소득원으로 하는 직업적 구조에 대한 희망이 매우 적다. 이러한 인식은 성별로 동일하게 나타난다(<표 3-7>, <표 3-9> 참조).

응답자들이 직업으로서 농업인에 대한 전망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은 응답자들의 83.5%³⁾가 농촌의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응답한 것으로도 알 수 있다(<표 3-8> 참조). 이는 농업이나 농촌에 대해서 공간적 가치나 환경 측면에서는 정착의지나 희망을 가지고 있지만 농업이라는 산업이나 농촌의 교육이나 여타 문제에 대한 생각은 부정적임을 알 수 있다.

응답자들의 대부분은 농촌의 어려움으로 소득이 낮다는 점과 정부정책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고, 어려움의 정도에 대해서도 응답자들의 83.5%가 매우 어렵다고 응답하고 있어서 정주공간으로서의 농촌과 직업적 범주로서 농업은 서로 일치하지 않으며, 응답자의 상당수는 농촌현실의 어려움 정도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농촌이 갖는 공간적 가치로서 농촌은 정착의지나 희망을 가지고 있지만 농업이라는 산업에 대한 생각은 부정적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은 남녀 응답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3-9> 참조).

<표 3-7> 농촌의 거주 장점과 어려운 점

농촌의 장점과 어려운 점		빈도	비율
농촌 거주의 장점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	63	30.9
	비경쟁적이고 여유로운 전원생활	27	13.2
	땅과 함께하는 자연친화적 삶	77	37.7
	정부의 각종 지원정책 및 제도	6	2.9
	건강하게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	4	2.0
	규칙적이고 건강한 생활	9	4.4
	이웃과 함께하는 공동체적 생활	13	6.4
	기타	5	2.5
	합계	204	100.0
농촌의 가장 어려운점	농사지을 후계자문제	22	10.7
	농가부채 상환문제	28	13.6
	농민들의 의료, 건강문제	3	1.5
	농민 자녀의 결혼 문제	18	8.7
	자녀 양육 및 교육문제	36	17.5
	정부 정책	32	15.5
	낮은 농산물 가격, 저소득	63	30.6
	기타	4	1.9
	합계	206	100.0

3) 농촌문제에 대한 어려움의 정도 대체로 어렵다 36.4% + 매우 어렵다 47.1% = 83.5%

<표 3-8> 농촌 문제에 대한 어려움의 정도

농촌 어려움의 정도	빈도	비율
전혀 어렵지 않다	2	1.0
대체로 어렵지 않다	7	3.4
그저 그렇다	25	12.1
대체로 어렵다	75	36.4
매우 어렵다	97	47.1
합계	206	100.0

<표 3-9> 성별 농촌에 사는 경우 장단점 분석 결과

농촌거주 장점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	비경쟁, 여유로운 전원생활	땅과 함께하는 자연친화적 삶	정부의 지원정책	건강한 자녀양육 환경	규칙적 건강한 생활	공동체적 생활	기타
장점	남자	14 25.9%	10 18.5%	19 35.2%	2 3.7%	1 1.9%	3 5.6%	5 9.3%	0 .0%
	여자	48 32.7%	16 10.9%	58 39.5%	4 2.7%	3 2.0%	6 4.1%	7 4.8%	5 3.4%
	합계	62 30.8%	26 12.9%	77 38.3%	6 3.0%	4 2.0%	9 4.5%	12 6.0%	5 2.5%
	여러운 점	남자	6 10.7%	10 17.9%	0 .0%	4 7.1%	10 17.9%	8 14.3%	16 28.6%
여러운 점	여자	16 10.9%	18 12.2%	3 2.0%	14 9.5%	25 17.0%	23 15.6%	46 31.3%	2 1.4%
	합계	22 10.8%	28 13.8%	3 1.5%	18 8.9%	35 17.2%	31 15.3%	62 30.5%	4 2.0%
	농촌거주 단점	후계자 문제	농가 부채	의료, 건강문제	자녀의 결혼	양육 및 교육문제	정부 정책	저농산물 가격	기타

소속기관별로 농촌에 대한 인식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3-10>에서 보여지듯이 자원봉사의 경우 농촌생활의 최대 장점을 공동체성 60%로 응답한 반면 자활후견센터는 27.7%로 매우 낮게 나타나고, 반면 농촌의 장점을 정부정책지원이라는 응답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센터는 0%인데 반해 자활기관은 12.3%로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소속기관 인력공급자들의 참여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즉 소속집단 구성원들의 현실적인 삶의 조건에 따라 농촌생활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도우미 제도에 참여하는 방식과 폭을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응답의 차이는 자활의 경우 수급자가 많다는 감안해 볼 때 정부지원이나 농촌 내부에서 일자리 창출이라는 측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따라서 가사도우미의 경우 인력확충에 있어서 이러한 요인을 적절하게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사도우미에 대한 참여에 있어서 자활의 경우 현금소득원으로서 일정한 충족도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두 소속기관 사이에 농촌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도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자원봉사센터의 경우 농촌거주의 단점을 단순히 저소득에 가장 크게 비중을 두는 반면 자활센터 소속원들의 경우 부채 및 농촌 전반의 어려움에 대해 고른 응답을 보이고 있다.

<표 3-10> 소속기관별 농촌거주의 장단점

농촌거주장점		쾌적성	환경	자연 친화	정부 지원	자녀 양육	건강한 생활	공동체	기타	합계
장 점	자원봉사 센터	2 13.3%	0 .0%	1 6.7%	0 .0%	2 13.3%	1 6.7%	9 60.0%	0 .0%	15 100.0%
	자활후견 기관	14 10.8%	18 13.8%	2 1.5%	16 12.3%	20 15.4%	20 15.4%	36 27.7%	4 3.1%	130 100.0%
	기타	4 12.5%	4 12.5%	0 .0%	0 .0%	9 28.1%	4 12.5%	11 34.4%	0 .0%	32 100.0%
		20 11.3%	22 12.4%	3 1.7%	16 9.0%	31 17.5%	25 14.1%	56 31.6%	4 2.3%	177 100.0%
전체										
농촌거주단점		후계자	부채	의료 건강	자녀 결혼	자녀 교육	정책 불신	저소득	기타	합계
단 점	자원봉사 센터	2 13.3%	0 .0%	1 6.7%	0 .0%	2 13.3%	1 6.7%	9 60.0%	0 .0%	15 100.0%
	자활후견 기관	14 10.8%	18 13.8%	2 1.5%	16 12.3%	20 15.4%	20 15.4%	36 27.7%	4 3.1%	130 100.0%
	기타	4 12.5%	4 12.5%	0 .0%	0 .0%	9 28.1%	4 12.5%	11 34.4%	0 .0%	32 100.0%
		20 11.3%	22 12.4%	3 1.7%	16 9.0%	31 17.5%	25 14.1%	56 31.6%	4 2.3%	177 100.0%
전체										

농촌에 대한 정주의사에 있어서는 <표 3-11>에서 알 수 있듯이 성별의 경우 남성의 경우 32.1% 여성 28.4%가 정주의향을 보이고 있어서 남성이 농촌정주 의지가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연령대 별로는 30대 보다 40대, 50대가 농촌거주를 더 희망함을 알 수 있다. 이는 30대의 경우 자녀교육 문제 등이 농촌거주 기피의 주요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농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정주의사가 높다는 점은 자녀교육 문제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한다면 부분적으로 농촌정착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은 매우 의미 있는 결과로서 향후 이들의 생활조건에 따라 농촌 정착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표 3-11> 성별, 연령별 농촌거주 희망 여부

성별, 연령별 농촌거주 희망 여부		농촌에 살 기회가 있다면					전체
		절대 살지 않겠다	가급적 살지 않겠다	고려해 보겠다	가급적 살아보겠다	꼭 농촌에 살고싶다	
성별	남자	2 3.6%	7 12.5%	29 51.8%	11 19.6%	7 12.5%	56 100.0%
	여자	18 12.4%	23 15.9%	68 46.9%	21 14.5%	15 10.3%	145 100.0%
연령	20대	0 .0%	1 12.5%	7 87.5%	0 .0%	0 .0%	8 100.0%
	30대	3 7.5%	7 17.5%	20 50.0%	5 12.5%	5 12.5%	40 100.0%
		4 6.5%	12 19.4%	25 40.3%	14 22.6%	7 11.3%	62 100.0%
	40대	4 6.5%	12 19.4%	25 40.3%	14 22.6%	7 11.3%	62 100.0%
		9 14.5%	7 11.3%	30 48.4%	10 16.1%	6 9.7%	62 100.0%
50대이상	9 14.5%	7 11.3%	30 48.4%	10 16.1%	6 9.7%	62 100.0%	
	16 9.3%	27 15.7%	82 47.7%	29 16.9%	18 10.5%	172 100.0%	
전체							

3.4.2 영농도우미 인지도와 필요도

영농도우미나 출산도우미에 대해서 들어본 일이 있는가를 물었는데, 이에 대해 전혀 모른다는 응답은 51.9%로 매우 높다. 이는 농가도우미제도에 대한 홍보가 아직 미흡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출산도우미에 대해서 33.2%만이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고 있어서 농가도우미제도 실시 4년차이지만 인지도가 높은 편은 아니다(<표 3-12> 참조). 특히 응답자의 대부분이 출산도우미에 대해 관심이 있는 대상인 여성임을 고려했을 때 아직 출산도우미를 포함한 농가도우미에 대한 인지도는 낮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농가도우미 활성화를 위한 홍보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성별로 영농도우미에 대한 인지도는 남성이 영농도우미에 대한 인지도가 16.1%로 여성 12.9%에 비해 약간 더 높았지만 출산도우미의 경우 여성 35.4%로 남성 26.8% 보다 높게 나타났다. 세대별로 영농도우미에 대한 인지도를 보면 50대 이상이 인지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출산도우미에 대해서도 50대 이상의 인지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청원이 익산보다 인지도가 더 높았으나 향후 농가도우미 사업의 시행주체인 농협의 경우 인지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3-12> 영농도우미와 출산농가도우미에 대한 인지도

영농도우미 인지도		전혀 모른다	출산도우미에 대해 들었다	영농도우미에 대해 안다	출산도우미 이용경험 있다	전체
성별	남자	32	15	9	0	56
		57.1%	26.8%	16.1%	.0%	100.0%
	여자	73	52	19	3	147
		49.7%	35.4%	12.9%	2.0%	100.0%
합계		105	67	27	3	202
		51.9%	33.2%	13.4%	1.5%	100.0%
연령	20대	5	2	1	0	8
		62.5%	25.0%	12.5%	.0%	100.0%
	30대	25	14	2	0	41
		61.0%	34.1%	4.9%	.0%	100.0%
	40대	33	19	8	1	61
		54.1%	31.1%	13.1%	1.6%	100.0%
50대이상	25	25	13	0	63	
	39.7%	39.7%	20.6%	.0%	100.0%	
합계		88	60	24	1	173
		51%	34.4%	14%	0.6%	100%
기관	청원자활	8	13	4	0	25
		32.0%	52.0%	16.0%	.0%	100.0%
	청원인력관리 센터	4	4	1	0	9
		44.4%	44.4%	11.1%	.0%	100.0%
	청주실업종합 지원센터	5	3	2	0	10
		50.0%	30.0%	20.0%	.0%	100.0%
	익산자활	32	16	10	0	58
		55.2%	27.6%	17.2%	.0%	100.0%
	청원자원봉사 센터	8	5	2	0	15
53.3%		33.3%	13.3%	.0%	100.0%	
농협청주청원 시군지부	18	5	2	0	25	
	72.0%	20.0%	8.0%	.0%	100.0%	
익산원광자활 후견기관	31	22	8	3	64	
	48.4%	34.4%	12.5%	4.7%	100.0%	
합계		106	68	29	3	206
		52%	34%	14%	0%	100%

농가도우미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에 비해서 농가의 사고나 장애로 인해 일시 영농일이 어려워진 농가를 도와주는 영농도우미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은 87.7%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표 3-13> 참조).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 그 이유는 주로 도우미를 구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39.3% 농촌일이 힘들어서 갈려는 도우미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17.9%로 주로 인력문제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3-15> 참조). 이는 농가도우미 사업에 참여하는 공급자에 대한 지원내용이 강화되지 않는 한 영농도우미 제도가 실행되기까지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표 3-13>에서 영농도우미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남성 80%, 여성 90.5%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전체적으로 영농도우미의 필요성에 대해서 높은 공감대를 나타내고 있고(87.7%), 특히 여성들의 경우 영농도우미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남성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세대가 낮을수록 영농도우미의 필요성에 대해 부정적인 응답을 보이고 세대가 높을수록 적극적인 응답을 보이고 있다. 영농도우미의 필요도에 대해서는 대체로 필요하다는 인식이 매우 높지만 특히 학력이 높을수록 필요도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난다. 이는 고학력일수록 복지서비스에 대한 인지도가 높기 때문으로 보여 진다.

<표 3-13> 사고와 장애로 일시적인 영농도우미의 필요성 인지도

영농도우미 필요성		전혀 불필요	별로 불필요	대체로 필요	매우 필요	잘 모름	합계
성별	남자	3 5.5%	2 3.6%	16 29.1%	28 50.9%	6 10.9%	46 100%
	여자	0 .0%	1 .7%	57 38.5%	77 52.0%	13 8.8%	138 100%
전체		3 1.5%	3 1.5%	73 36.0%	105 51.7%	19 9.4%	203 100%
연령	20대	0 .0%	1 12.5%	5 62.5%	2 25.0%	8 .0%	16 100%
	30대	0 .0%	0 .0%	15 38.5%	24 61.5%	0 .0%	39 100%
	40대	2 3.3%	0 .0%	21 34.4%	35 57.4%	3 4.9%	61 100%
	50대이상	1 1.6%	3 4.8%	21 33.9%	33 53.2%	4 6.5%	62 100%
전체		3 1.8%	4 2.4%	62 36.5%	94 55.3%	7 4.1%	170 100%
학력	중졸이하	1 1.5%	1 1.5%	28 41.2%	31 45.6%	7 10.3%	68 100.0%
		1 1.5%	1 1.5%	26 38.2%	36 52.9%	4 5.9%	68 100.0%
	대졸이하	1 2.0%	0 .0%	13 26.0%	31 62.0%	5 10.0%	50 100.0%
		0 .0%	0 .0%	2 40.0%	3 60.0%	0 .0%	5 100.0%
	대학원 이상	0 .0%	0 .0%	2 40.0%	3 60.0%	0 .0%	5 100.0%
전체		3 1.6%	2 1.0%	69 36.1%	101 52.9%	16 8.4%	191 100.0%

4) 사고와 장애로 일시적인 영농도우미 필요성 성별 계 대체로 필요 36.0%+매우 필요 51.7%

영농도우미의 어려움에 대해서 성별 인식의 차이가 나타나는데 남성들은 도우미 구하기가 어렵거나 농촌이 힘들어서 갈 도우미가 없을 것 이라는 응답이 70.9%를 차지하는 반면, 여성들은 51.6%로 응답하고 있다. 여성들의 응답에서 남성들과 인식의 차이가 두드러진 부분은 농촌의 특성상 가족내에서 해결할 것이라는 농촌 문화의 폐쇄성에 대한 인식이 남성의 경우 0%인데 반해 여성은 16.0%로 현격한 차이가 있고, 다른 하나는 이동의 어려움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도 여성들이 3배나 높게 나타났다.

영농도우미가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 인력충원의 어려움을 가장 큰 이유로 제시하고 있으며 남성들이 여성에 비해 훨씬 비관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 남성들은 70.9%가 영농도우미의 불필요성에 대해서 인력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표 3-14> 성별 영농도우미 불필요 이유 교차분석

성별 영농도우미 불필요 이유		이동의 어려움	가족내 해결	인력충원 어려움	필요농가 모름	지원할 사람 없음	기타
성별	남자	1 4.2%	0 .0%	10 41.7%	3 12.5%	7 29.2%	3 12.5%
	여자	8 13.3%	10 16.7%	23 38.3%	11 18.3%	8 13.3%	0 .0%
전체		9 10.7%	10 11.9%	33 39.3%	14 16.7%	15 17.9%	3 3.6%

3.4.3 영농도우미의 자격과 참여조건

1) 영농도우미의 자격

영농도우미의 자격요건에 대한 의견은 농촌에 대한 애정을 38.3%로 가장 높게 응답했고 그 다음 응답은 농사일 경험이 있어야 한다가 23.3%, 영농일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갖춘 사람 22.8%로 성격적 요인 보다는 농업에 대한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 직업인을 자격요건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15> 영농도우미의 자격요건

영농도우미의 자격요건	빈도	비율
영농일에 대한 지식,이해를 갖춘자	47	22.8
농촌에 대한 사랑,애정지닌자	79	38.3
영농일을 해본 경험자	48	23.3
성실하고 열심인 자	25	12.1
친밀감 있고 성격 좋은 자	5	2.4
기타	2	1.0
합계	206	100.0

영농도우미에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성별로 인식의 차이가 약간 나타난다. 여성들의 경우 농촌경

힘이 있어야 한다는 응답이 남성에 비해 두배 높게 나타났는데 비해 남성들은 농촌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 한다는 응답이 여성 35.4%에 비해 44.6%로 약간 높다. 연령별 인식에 있어서는 농촌사랑이 38.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일반적으로 농사지식이나 영농경험이 중요하다는 직업으로서 농업에 대한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인식이 50% 정도로 나타났다.

<표 3-16> 영농도우미의 자격요건 인식

구 분		영농도우미의 자격 요건						합계
		농사지식	농촌사랑	영농경험	성실성	친밀감	기타	
성별	남자	13 23.2%	25 44.6%	7 12.5%	7 12.5%	3 5.4%	1 1.8%	56 100.0
	여자	34 23.1%	52 35.4%	40 27.2%	18 12.2%	2 1.4%	1 0.7%	147 100.0
전체		47 23.1%	77 37.9%	47 23.2%	25 12.3%	5 2.5%	2 1.0%	203 100.0
연령	20대	2 25.0%	2 25.0%	2 25.0%	2 25.0%	0 .0%	0 .0%	8 100.0%
		7 17.1%	17 41.5%	13 31.7%	4 9.8%	0 .0%	0 .0%	41 100.0%
	40대	16 25.8%	23 37.1%	12 19.4%	9 14.5%	2 3.2%	0 .0%	62 100.0%
		13 20.3%	25 39.1%	16 25.0%	6 9.4%	3 4.7%	1 1.6%	64 100.0%
	50대 이상	13 20.3%	25 39.1%	16 25.0%	6 9.4%	3 4.7%	1 1.6%	64 100.0%
		20.3%	39.1%	25.0%	9.4%	4.7%	1.6%	100.0%
전체		38 21.7%	67 38.3%	43 24.6%	21 12.0%	5 2.9%	1 .6%	175 100.0%

소속기관별로는 영농도우미의 자격요건에 관한 인식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영농도우미의 자격요건에 대해서 자원봉사센터는 농촌에 대한 사랑이라는 응답이 50%로 매우 높았고 자활후견기관은 영농경험이 중요한 여건이란 응답이 24.4%로 자원봉사센터의 7.1%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앞에서 나타난 농촌 현황에 대한 인식에서 보여주었던 차이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표 3-17> 소속기관별 영농도우미 자격요건에 대한 인식

자격요건		농사지식	농촌사랑	영농경험	성실성	친밀감	기타	합계
소속기관	자원봉사센터	5 35.7%	7 50.0%	1 7.1%	1 7.1%	0 .0%	0 .0%	14 100.0%
	자활후견기관	30 22.9%	51 38.9%	32 24.4%	13 9.9%	4 3.1%	1 .8%	131 100.0%
	기타	9 28.1%	9 28.1%	9 28.1%	5 15.6%	0 .0%	0 .0%	32 100.0%
	전체	44 24.9%	67 37.9%	42 23.7%	19 10.7%	4 2.3%	1 .6%	177 100.0%

<표 3-18>의 결과와 같이, 영농도우미로서의 본인의 자격요건 준비정도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15.5%는 전혀 갖추지 않았다고 응답했고 조금, 대체로 그리고 상당히 갖추었다는 대답을 합하면 65.0%로서 응답자의 상당비율은 스스로 영농도우미로서 자격요건을 갖추었다고 생각하였다.

영농도우미로서 자신의 조건에 대해서 남·녀의 응답에 차이가 나타나는데 여성들의 경우 자신이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응답이 41.4%로 매우 높은 반면 남성들은 영농도우미로서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응답은 17.9%로 낮게 나타난다. 이는 여성들 스스로가 농사일에 대한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남성의 82.1%, 여성의 58.6%가 영농도우미로서 자신의 조건을 갖췄다고 응답해 향후 인력확보에 있어서 조건에 따른 충원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소속기관별로는 자원봉사센터가 본인의 자격요건을 갖추었다는 응답이 80%로 가장 높았고 기타 농협 등이 68.9%, 자활후견기관이 61.7% 정도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농사일에 대한 기피현상이 생활이 어려운 대상일수록 심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표 3-18> 영농도우미로서의 자신의 조건

영농도우미로서의 자신의 조건		전혀 갖추지 않았다	대체로 갖추지 않았다	조금 갖추고 있다	대체로 갖추었다	상당히 갖추었다	전체
소속 기관	자원봉사 센터	0	3	9	2	1	15
		.0%	20.0%	60.0%	13.3%	6.7%	100.0%
	자활후견 기관	26	25	55	18	9	133
		19.5%	18.8%	41.4%	13.5%	6.8%	100.0%
	기타	4	6	18	2	2	32
		12.5%	18.8%	56.3%	6.3%	6.3%	100.0%
전체		30	34	82	22	12	180
		16.7%	18.9%	45.6%	12.2%	6.7%	100.0%
성별	남자	1	9	34	5	7	56
		1.8%	16.1%	60.7%	8.9%	12.5%	100.0%
	여자	31	31	60	20	8	150
		20.7%	20.7%	40.0%	13.3%	5.3%	100.0%
전체		32	40	94	25	15	206
		15.5%	19.4%	45.6%	12.1%	7.3%	100.0%

2) 영농도우미의 참여의향

사고로 인한 불편함이나 장애가 발생한 농가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농사일을 도와주는 영농도우미에 참여할 의향을 여러 조건으로 물어보았다. 자원봉사인 경우 참여할 의사는 적극적으로 참여 하겠다가 5%, 참여할 의사가 있다가 17.9%로 나타나 22.9%는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으며, 전혀 참여할 생각이 없다는 응답자는 18.9%, 별로 참여하고 싶지 않다는 응답은 11.9%로 30.8%는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 그러나 고려해 보겠다는 응답은 46.3%나 되어 농사일에 대해서도 조건에 따라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서 인력 충원의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다(<표 3-19> 참조).

<표 3-19> 자원봉사로 영농도우미 참여할 의향

자원봉사로 참여할 의향	빈도	비율
참여 생각 전혀 없다	38	18.9
별로 참여하고 싶지 않다	24	11.9
고려해 보겠다	93	46.3
참여할 의사있다	36	17.9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10	5.0
합계	201	100.0

<표 3-20>에서 일당 3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영농도우미로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자가 12.3%, 적극적인 참여가 3.7%로서 불과 16.5%만이 참여할 의향을 보였으며, 불참할 의사를 가진 비율은 50%에 이르렀다. 이는 자원봉사와 달리 일당으로 환산한다면 3만원을 받고 농사일을 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로 간주된다. 즉 영농도우미의 일당으로 1일 3만원이 적다고 생각한다는 반증이다. 실제로 본 조사당시 무안의 경우 농번기 일손이 거의 필요 없을 때 조차도 일당이 3만원 이상이고 농번기시기에는 5~7만원 수준이었다

<표 3-20> 일당 3만원 이하인 경우 영농도우미 참여 의향

일당 3만원 이하인 경우 참여 의향	빈도	비율
참여할 생각이 전혀없다	40	21.3
별로 참여하고 싶지 않다	54	28.7
고려해 보겠다	63	33.5
참여할 의사있다	24	12.8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7	3.7
합계	188	100.0

영농도우미의 일당이 4만원~6만원인 경우에는 참여의사가 49.4%로 높아졌다.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은 37.6%,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이 11.8%로 적극적인 참여의사의 경우 일당 3만원에 비해 3배 가량 높게 나타났다. 또한 참여할 의사가 없다는 응답은 일당 3만원의 경우 50%였는데 반해 16.1%로 3배 정도 감소하였다. 응답자들의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농가도우미에 인력에 있어서 일당의 기준에 대한 요구수준을 볼 수 있다.

<표 3-21> 일당 4-6만원인 경우 영농도우미 참여 의향

일당 4-6만원인 경우 참여 의향	빈도	비율
참여할 생각이 전혀없다	17	9.1
별로 참여하고 싶지 않다	13	7.0
고려해 보겠다	64	34.4
참여할 의사가 있다	70	37.6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22	11.8
합계	186	100.0

<표 3-22>는 지원조건에 따라 영농도우미 참여의사에 관한 요구를 정리해 보았다. 영농훈련을 받은 후 참여의향은 42.9%로 매우 높아졌는데, 적극적인 참여의 경우 일당 4만원~6만원에 비하여

다소 낮은 8.7%로 나타났다. 따라서 적절한 일당과 영농훈련이 결합된다면 영농도우미가 농업인으로 정착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영농도우미가 조건에 따라서 농촌인력의 공급자에서 수요자로 전환가능성도 예측할 수 있다. 교통편 제공시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응답은 9.8%로 나타났다. 참여할 의사가 있다가 37.2%로 나타나 47.0%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따라서 농가도우미 제도가 실시되어 인력을 충분히 조달하기 위해서는 도우미들에 대한 차량제공과 4~6만원 정도의 일당지급, 영농기술에 대한 교육이 중요한 요건임을 알 수 있다.

<표 3-22> 지원내용에 따른 참여의사 정도

지원내용	전혀 참여의향 없음	별로 참여의향 없음	고려	참여의사 있음	적극적 참여	합계
자원봉사	18.9	11.9	46.3	17.9	5.0	100%
일당3만원	21.3	28.7	33.5	12.8	3.7	100%
일당 4-6만원	9.1	7.0	34.4	37.6	11.8	100%
이동편의제공	9.8	6.0	37.2	37.2	9.8	100%
영농교육후	11.4	9.2	36.4	34.2	8.7	100%

응답자들의 일당에 대한 요구는 여성과 남성에 있어서 비슷한 비중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3-23>를 보면 일당 4~6만원을 지급하는 수준에서는 영농도우미로 참여하겠다는 응답이 일당3만원 경우에 비해 남자는 2.4배, 여자는 3.2배로 증가하였다(<표 3-23> 참조).

성별 응답에서도 전체 응답과 마찬가지로 지원조건에 따른 참여도가 자원봉사일 때 보다 일당 3만원 일때가 현저히 낮아짐을 알 수 있다. 이는 일당 3만원이란 조건에 대해서는 참여욕구가 적고 차라리 자원봉사나 돈을 받을 경우 일당 4~6만원 정도는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일당 액수에 따른 참여의사가 남성 여성 모두 높게 나타났고, 특히 여성들의 경우 일당 4~6만원이란 조건에서는 적극적인 참여의지가 3만원 2.9%에서 4-6만원 12.0%로 매우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는 여성의 일당으로 4~6만원이 적은 액수는 아니기 때문이다(<표 3-23> 참조).

<표 3-23> 성별 지원조건에 따른 영농도우미 참여도

성별 지원조건에 따른 참여도		참 여 의 향				
		참여생각 전혀없다	별로 참여하고 싶지 않다	고려해 보겠다	참여할 의사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자원봉사로 참여할 의향	남자	9 16.4%	5 9.1%	27 49.1%	10 18.2%	4 7.3%
	여자	28 19.6%	19 13.3%	64 44.8%	26 18.2%	6 4.2%
일당3만원 이하	남자	9 18.0%	15 30.0%	15 30.0%	8 16.0%	3 6.0%
	여자	30 22.1%	39 28.7%	47 34.6%	16 11.8%	4 2.9%
일당 4-6만원	남자	3 5.9%	4 7.8%	16 31.4%	22 43.1%	6 11.8%
	여자	13 9.8%	9 6.8%	48 36.1%	47 35.3%	16 12.0%

<표 3-24> 소속기관별 지원조건에 따른 영농도우미 참여의사

영농도우미참여의사		전혀 없다	별로 참여하고 싶지 않다	고려해 보겠다	참여할 의사있다	적극적참여	합계
자 원 봉 사	자원봉사 센터	1 7.7%	1 7.7%	4 30.8%	5 38.5%	2 15.4%	13 100.0%
	자활후견 기관	26 20.5%	16 12.6%	55 43.3%	24 18.9%	6 4.7%	127 100.0%
	기타	5 15.6%	1 3.1%	19 59.4%	5 15.6%	2 6.3%	32 100.0%
	전체	32 18.6%	18 10.5%	78 45.3%	34 19.8%	10 5.8%	172 100.0%
3만 원 이 하	자원봉사 센터	0 .0%	2 18.2%	2 18.2%	4 36.4%	3 27.3%	11 100.0%
	자활후견 기관	28 23.0%	38 31.1%	39 32.0%	14 11.5%	3 2.5%	122 100.0%
	기타	7 23.3%	6 20.0%	12 40.0%	4 13.3%	1 3.3%	30 100.0%
	전체	35 21.5%	46 28.2%	53 32.5%	22 13.5%	7 4.3%	163 100.0%
4~ 6만 원	자원봉사 센터	2 20.0%	0 .0%	2 20.0%	4 40.0%	2 20.0%	10 100.0%
	자활후견 기관	9 7.5%	7 5.8%	38 31.7%	50 41.7%	16 13.3%	120 100.0%
	기타	4 12.9%	5 16.1%	12 38.7%	7 22.6%	3 9.7%	31 100.0%
	전체	15 9.3%	12 7.5%	52 32.3%	61 37.9%	21 13.0%	161 100.0%
농 사 교 육 훈 련	자원봉사 센터	0 .0%	0 .0%	3 30.0%	5 50.0%	2 20.0%	10 100.0%
	자활후견 기관	12 10.1%	11 9.2%	38 31.9%	47 39.5%	11 9.2%	119 100.0%
	기타	4 12.9%	3 9.7%	14 45.2%	9 29.0%	1 3.2%	31 100.0%
	전체	16 10.0%	14 8.8%	55 34.4%	61 38.1%	14 8.8%	160 100.0%
교 통 편 제 공	자원봉사 센터	0 .0%	0 .0%	3 33.3%	3 33.3%	3 33.3%	9 100.0%
	자활후견 기관	9 7.6%	6 5.1%	36 30.5%	55 46.6%	12 10.2%	118 100.0%
	기타	4 12.9%	2 6.5%	18 58.1%	4 12.9%	3 9.7%	31 100.0%
	전체	13 8.2%	8 5.1%	57 36.1%	62 39.2%	18 11.4%	158 100.0%

<표 3-24>을 보면 소속기관별 영농도우미 참여조건에 대한 요구도는 자원봉사의 경우 자원봉사 센터는 53.9%로 참여의사가 높았으나 자활후견기관은 23.6%만이 참여의사를 밝혀 자원봉사센터가 2배가량 참여의사가 높았다. 그러나 일당 3만원의 경우는 두 기관 모두 참여도가 자원봉사 조건때 보다 하락하고 자원봉사센터의 경우 일당 3만원일때 적극참여도는 매우 높아진다. 일당 4~6만원의 경우 자원봉사센터의 참여도는 오히려 하락하지만 자활센터의 경우 참여의지가 3.9배가량 증

5) 3만원 이하일때 자활후견기관의 참여도는 14%(참여할의사있음+적극적 참여)이고, 4~6만원일때 참여도는 55.0%(참여할

가함을 알 수 있다. 농사교육 훈련이나 차량편의 제공 조건에서도 자원봉사센터의 참여의사는 높게 나타난 반면 자활기관 소속원들은 참여의사가 낮음을 알 수 있다. 조사결과에서 보여지는 것은 자원봉사의 경우 순수한 자원봉사나 약간의 편의를 제공할 경우 참여도가 높아지는 반면 자활센터는 자원봉사나 일당이 낮을 경우 도우미 인력으로 참여가 저조하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이는 향후 영농도우미 지원인력에 대한 참여조건을 만들어내는데 있어서 참여자들의 생활조건이나 삶의 조건, 특히 경제적인 현실성이나 가치의 실현이라는 양측면이 적절하게 반영된 세심한 체계의 확립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표 3-25>의 연령별 지원조건에 대한 영농도우미 참여도에 있어서는 자원봉사나 농사교육에 있어서는 20대는 그다지 참여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차량제공 시 참여하겠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40대의 경우 자원봉사 참여의사도 비교적 높게 나타나는 반면 50대의 경우 자원봉사나 농사교육보다는 차량이동에 있어서 편의를 제공할 시 참여도가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영농도우미 지원에 있어서 이동편의 제공은 매우 중요한 조건임을 알 수 있다.

학력별로는 중졸 이하가 영농도우미에 참여하겠다는 의사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고졸>대졸>대졸이상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졸의 경우 일당의 변화에 따른 참여도 변화가 큰 차이를 보였는데 일당 3만원의 경우 참여의사에 비해 일당 4~6만원일 경우 참여하겠다는 의사가 3.4배로 증가함을 알 수 있다(<표 3-26> 참조).

<표 3-27>를 응답자들의 농사경험 유무에 따라 영농도우미에 대한 참여도에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농사일을 경험했거나 농업이 생업인 가정에서 성장한 사람들은 영농도우미 참여의사가 훨씬 높게 나타난다. 특히 일당이 높을수록 영농도우미 참여의사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는 영농도우미 인력을 조성할 때 빈시간이 많은 소농이나 소작농 중심의 농촌의 일손을 필요한 곳에 영농도우미로 활용하는 방안과 농촌출신자들을 중심으로 한 영농도우미단의 구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표 3-25> 연령별 지원조건에 따른 영농도우미 참여의사

영농도우미 참여의사		참여생각 전혀없다	참여하고 싶지 않다	고려해 보겠다	참여할 의사있다	적극적 참여	합계
자원 봉사	20대	0	1	7	0	0	8
		.0%	12.5%	87.5%	.0%	.0%	100.0%
	30대	4	2	24	7	3	40
		10.0%	5.0%	60.0%	17.5%	7.5%	100.0%
	40대	15	7	21	15	4	62
		24.2%	11.3%	33.9%	24.2%	6.5%	100.0%
	50대이상	11	10	26	12	3	62
		17.7%	16.1%	41.9%	19.4%	4.8%	100.0%
전체		30	20	78	34	10	172
		17.4%	11.6%	45.3%	19.8%	5.8%	100.0%
일당 3만원	20대	0	2	6	0	0	8
		.0%	25.0%	75.0%	.0%	.0%	100.0%
	30대	4	12	17	7	0	40
		10.0%	30.0%	42.5%	17.5%	.0%	100.0%
	40대	18	14	13	8	2	55
		32.7%	25.5%	23.6%	14.6%	3.6%	100.0%
	50대이상	11	14	20	8	5	58
		19.0%	24.1%	34.5%	13.8%	8.6%	100.0%
전체		33	42	56	23	7	161
		20.5%	26.1%	34.8%	14.3%	4.3%	100.0%
농사 교육	20대	0	2	6	0	0	8
		.0%	25.0%	75.0%	.0%	.0%	100.0%
	30대	4	12	17	7	0	40
		10.0%	30.0%	42.5%	17.5%	.0%	100.0%
	40대	18	14	13	8	2	55
		32.7%	25.5%	23.6%	14.5%	3.6%	100.0%
	50대이상	11	14	20	8	5	58
		19.0%	24.1%	34.5%	13.8%	8.6%	100.0%
전체		33	42	56	23	7	161
		20.5%	26.1%	34.8%	14.3%	4.3%	100.0%
차량 제공	20대	0	0	2	5	1	8
		.0%	.0%	25.0%	62.5%	12.5%	100.0%
	30대	2	4	17	14	3	40
		5.0%	10.0%	42.5%	35.0%	7.5%	100.0%
	40대	8	3	22	18	5	56
		14.3%	5.4%	39.3%	32.1%	8.9%	100.0%
	50대이상	2	2	16	22	8	50
		4.0%	4.0%	32.0%	44.0%	16.0%	100.0%
전체		12	9	57	59	17	154
		7.8%	5.8%	37.0%	38.3%	11.0%	100.0%

<표 3-26> 학력별 지원조건에 따른 영농도우미 참여의사

영농도우미 참여의사		참여생각 전혀없다	별로 하고 싶지 않다	고려해 보겠다	참여할 의사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전체
자원 봉사	중졸이하	14	8	24	13	5	64
		21.9%	12.5%	37.5%	20.3%	7.8%	100.0%
	고졸이하	12	10	33	10	3	68
		17.6%	14.7%	48.5%	14.7%	4.4%	100.0%
	대졸이하	6	4	28	10	2	50
		12.0%	8.0%	56.0%	20.0%	4.0%	100.0%
	대학원 이상	1	0	3	1	0	5
		20.0%	.0%	60.0%	20.0%	.0%	100.0%
전체		33	22	88	34	10	187
		17.6%	11.8%	47.1%	18.2%	5.3%	100.0%
일당 3만원	중졸이하	18	11	17	10	4	60
		30.0%	18.3%	28.3%	16.7%	6.7%	100.0%
	고졸이하	9	22	23	9	1	64
		14.1%	34.4%	35.9%	14.1%	1.6%	100.0%
	대졸이하	9	20	13	4	1	47
		19.1%	42.6%	27.7%	8.5%	2.1%	100.0%
	대학원 이상	0	0	4	0	1	5
		.0%	.0%	80.0%	.0%	20.0%	100.0%
전체		36	53	57	23	7	176
		20.5%	30.1%	32.4%	13.1%	4.0%	100.0%
4-6만원	중졸 이하	6	5	13	24	8	56
		10.7%	8.9%	23.2%	42.9%	14.3%	100.0%
	고졸 이하	3	4	23	27	7	64
		4.7%	6.3%	35.9%	42.2%	10.9%	100.0%
	대졸 이하	6	3	22	12	6	49
		12.2%	6.1%	44.9%	24.5%	12.2%	100.0%
	대학원 이상	0	1	2	1	0	4
		.0%	25.0%	50.0%	25.0%	.0%	100.0%
전체		15	13	60	64	21	173
		8.7%	7.5%	34.7%	37.0%	12.1%	100.0%
농사 훈련	중졸 이하	8	5	13	22	7	55
		14.5%	9.1%	23.6%	40.0%	12.7%	100.0%
	고졸이하	4	7	25	24	5	65
		6.2%	10.8%	38.5%	36.9%	7.7%	100.0%
	대졸이하	5	5	23	11	3	47
		10.6%	10.6%	48.9%	23.4%	6.4%	100.0%
	대학원 이상	0	0	3	1	1	5
		.0%	.0%	60.0%	20.0%	20.0%	100.0%
전체		17	17	64	58	16	172
		9.9%	9.9%	37.2%	33.7%	9.3%	100.0%

<표 3-27> 농사경험유무에 따른 지원조건에 따른 영농도우미 참여의사

영농도우미 참여의사		참여생각 전혀없다	별로 참여하고 싶지않다	고려해 보겠다	참여할 의사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합계
자 원 봉 사	전혀없다	18 27.7%	6 9.2%	31 47.7%	10 15.4%	0 .0%	65 100.0%
	봉사차원에서 경험	2 12.5%	2 12.5%	9 56.3%	2 12.5%	1 6.3%	16 100.0%
	농업에종사한 경험있음	8 16.7%	3 6.3%	25 52.1%	9 18.8%	3 6.3%	48 100.0%
	집안이 농사	4 8.2%	10 20.4%	21 42.9%	11 22.4%	3 6.1%	49 100.0%
	현재 농사	3 18.8%	2 12.5%	4 25.0%	4 25.0%	3 18.8%	16 100.0%
	전체	35 18.0%	23 11.9%	90 46.4%	36 18.6%	10 5.2%	194 100.0%
	일 당 3 만 원	전혀없다	16 25.8%	18 29.0%	20 32.3%	7 11.3%	1 1.6%
봉사차원에서 경험		3 18.8%	7 43.8%	5 31.3%	1 6.3%	0 .0%	16 100.0%
농업에종사한 경험있음		7 15.2%	13 28.3%	18 39.1%	7 15.2%	1 2.2%	46 100.0%
집안이 농사		8 18.2%	12 27.3%	16 36.4%	6 13.6%	2 4.5%	44 100.0%
현재 농사		4 30.8%	2 15.4%	2 15.4%	2 15.4%	3 23.1%	13 100.0%
전체		38 21.0%	52 28.7%	61 33.7%	23 12.7%	7 3.9%	181 100.0%
일 당 4.6 만 원		전혀없다	8 13.3%	4 6.7%	24 40.0%	17 28.3%	7 11.7%
	봉사차원에서 경험	0 .0%	1 6.3%	7 43.8%	7 43.8%	1 6.3%	16 100.0%
	농업에종사한 경험있음	0 .0%	2 4.4%	10 22.2%	28 62.2%	5 11.1%	45 100.0%
	집안이 농사	2 4.4%	5 11.1%	16 35.6%	16 35.6%	6 13.3%	45 100.0%
	현재 농사	6 42.9%	1 7.1%	4 28.6%	1 7.1%	2 14.3%	14 100.0%
	전체	16 8.9%	13 7.2%	61 33.9%	69 38.3%	21 11.7%	180 100.0%
	농 사 훈 련	전혀없다	8 13.8%	6 10.3%	22 37.9%	19 32.8%	3 5.2%
봉사차원에서 경험		0 .0%	2 12.5%	5 31.3%	7 43.8%	2 12.5%	16 100.0%
농업에종사한 경험있음		5 11.1%	0 .0%	16 35.6%	21 46.7%	3 6.7%	45 100.0%
집안이 농사		2 4.4%	7 15.6%	20 44.4%	14 31.1%	2 4.4%	45 100.0%
현재 농사		4 30.8%	0 .0%	3 23.1%	1 7.7%	5 38.5%	13 100.0%
전체		19 10.7%	15 8.5%	66 37.3%	62 35.0%	15 8.5%	177 100.0%

영농도우미 참여시에 생길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표 3-28>에서와 같이 응답자들은 농사 일을 몰라서 도움이 안될 것이라는 응답이 34.1%로 가장 높고, 농사일이 힘들고 어려울 것 같아서 라는 응답은 25.4%로 전반적으로 농사일에 어려움을 응답으로 하는 경우가 59.5%로 높게 나타났다. 고된 일에 비해 수당이 적기 때문이라는 응답도 13.7%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거리가 멀고 편해서라는 응답이 10.7%로 영농교육과 일당수준을 조정한다면 영농도우미 인력확충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 진다.

<표 3-28> 영농도우미 참여시 어려움

영농도우미 참여시 어려움	빈도	비율	누적퍼센트
영농도 모르고 도움 안됨	70	34.1	34.1
일에 비해 수당이 적음	28	13.7	47.8
농촌 스스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	8	3.9	51.7
낮선 곳에 가기 부담됨	11	5.4	57.1
영농일이 힘들고 어려울 거 같음	52	25.4	82.4
신청절차가 복잡할 거 같아서	6	2.9	85.4
거리가 멀고 교통 불편	22	10.7	96.1
기타	8	3.9	100.0
합계	205	100.0	

영농도우미 참여에 있어서 어려움에 대한 소속기관별 인식의 차이가 발견된다. <표 3-29>는 영농도우미 참여에 있어서 어려움에 대한 소속기관별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소속기관에 따라 영농도우미 참여에 대한 인식은 자원봉사센터의 경우 농사일은 농민 스스로 해결해야 하고 노동에 비해서 수당이 적다는 측면을 강조한 반면 자활후견센터는 농사일이 힘들고 농사일을 잘모른다고 응답해서 앞의 일당조건에 따른 참여의사와는 약간 다른 응답을 보이고 있다.

<표 3-29> 소속기관별 영농도우미 참여 시 어려움

(단위: 명)

영농도우미 참여시 어려움		영농 모른	수당 적음	스스로 해결	낮설음	농사일 힘들	신청 복잡	교통 불편	기타
소속 기관	자원봉사 센터	2 15.4%	3 23.1%	3 23.1%	0 .0%	2 15.4%	0 .0%	2 15.4%	1 7.7%
	자활후견 기관	46 35.1%	14 10.7%	4 3.1%	9 6.9%	37 28.2%	3 2.3%	15 11.5%	3 2.3%
	기타	17 53.1%	3 9.4%	0 .0%	0 .0%	7 21.9%	1 3.1%	1 3.1%	3 9.4%
전체		65 36.9%	20 11.4%	7 4.0%	9 5.1%	46 26.1%	4 2.3%	18 10.2%	7 4.0%

영농도우미 참여에 대한 참가들의 어려움을 성별, 연령별로 살펴보면 <표 3-30>과 같다. 응답자들은 전체적으로 농사일을 모르고 농사일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참여하기 어렵다고 응답했으며 연령별로는 50대가 수당이 적다는 응답비중이 높았다.

남성들은 수당이 적다는 문제가 여성 10.3%에 비해 23.2%로 약 두 배 정도 높은 응답을 보였으

며, 여성의 경우 농사일이 힘들고 어렵다는 응답 비중이 남성 17.9%에 비해 28.1%로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이는 남성과 여성인력의 확보에 있어서 남성의 경우 비용에 대한 관심이 더 높고 여성의 경우 농사일 자체의 기피현상이 훨씬 강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농사일이 힘들고 어렵다는 인식과 농사일을 잘 몰라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응답도 전체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영농도우미에 있어서는 전문적 기술을 습득한 노동력과 단순기술을 요하는 노동력 사이에 지원 금액의 차이, 남녀 영농도우미의 역할에 대한 고려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야 함이 보여 진다.

<표 3-30> 연령별 · 성별 영농도우미 참여 시 어려움

영농도우미 참여시 어려움		농사일 몰라	수당 적음	농촌 스스로 해결	낯선곳에 부담	농사일 힘들	신청 절차가 복잡	거리멀고 교통불편	기타	합계
연령	20대	4 50.0%	0 .0%	0 .0%	0 .0%	2 25.0%	0 .0%	1 12.5%	1 12.5%	9 100%
	30대	14 34.1%	4 9.8%	0 .0%	1 2.4%	14 34.1%	0 .0%	4 9.8%	4 9.8%	41 100%
		40대	23 36.5%	5 7.9%	2 3.2%	6 9.5%	18 28.6%	3 4.8%	6 9.5%	0 .0%
	50대 이상	14 23.3%	17 28.3%	4 6.7%	2 3.3%	11 18.3%	2 3.3%	8 13.3%	2 3.3%	60 100%
		전체	55 32.0%	26 15.1%	6 3.5%	9 5.2%	45 26.2%	5 2.9%	19 11.0%	7 4.1%
성별	남자	17 30.4%	13 23.2%	4 7.1%	3 5.4%	10 17.9%	5 8.9%	1 1.8%	3 5.4%	56 100.0%
		여자	52 35.6%	15 10.3%	4 2.7%	8 5.5%	41 28.1%	1 .7%	21 14.4%	4 2.7%
	전체	69 34.2%	28 13.9%	8 4.0%	11 5.4%	51 25.2%	6 3.0%	22 10.9%	7 3.5%	202 100.0%

3.4.4 영농도우미 파견기관

영농도우미 파견을 맡을 주관기관으로 가장 적절한 곳을 묻는 질문에는 30.6%가 자활후견기관을 지적했고, 읍면동사무소로 응답한 비율도 23.8%로 나타났다. 따라서 영농도우미파견에 있어서 공급자들의 척도는 인력공급자인 자신들의 직업적 전문성과 안정성에 비중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 3-31> 참조).

<표 3-31> 영농도우미 파견 주관 기관으로 가장 적절한 곳

영농도우미 파견 주관 기관으로 가장 적절한 곳	빈도	비율
읍·면·동 사무소	49	23.8
농협,축협	18	8.7
사회복지기관	25	12.1
자원봉사센터	26	12.6
농민단체	20	9.7
종교단체	3	1.5
자활후견기관	63	30.6
기타	2	1.0
합계	206	100.0

<표 3-32>는 소속기관별 편차를 잘 보여주고 있다. 자원봉사 센터에 소속한 응답자들은 동사무소와 자원봉사센터가 파견기관으로 적합하다고 응답하고 있고(33.3%). 자활기관 소속응답자는 동사무소 22.9%와 자활 45.8%로 자기 소속 기관 중심의 응답을 하고 있다. 그러나 영농도우미 주관기관으로 거론되는 농협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7.3%라는 매우 낮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다.

<표 3-32> 소속기관별 영농도우미 파견 주관기관에 대한 의견

주관기관	읍면동 사무소	농협, 축협	사회 복지관	자원봉 사센터	농민 단체	종교 단체	자활후 견기관	기타	합계
자원봉사 센터	5 33.3%	4 26.7%	1 6.7%	5 33.3%	0 .0%	0 .0%	0 .0%	0 .0%	15 100%
자활후견 기관	30 22.9%	5 3.8%	10 7.6%	16 12.2%	7 5.3%	2 1.5%	60 45.8%	1 .8%	32 100%
기타	8 25.0%	4 12.5%	9 28.1%	1 3.1%	10 31.3%	0 .0%	0 .0%	0 .0%	178 100%
전체	43 24.2%	13 7.3%	20 11.2%	22 12.4%	17 9.6%	2 1.1%	60 33.7%	1 .6%	178 100.0%

<표 3-33>을 보면 파견기관에 대한 인식에는 남녀의 차이가 별로 없으나, 남성은 읍면동사무소가 적절하다는 응답이 32.1%로 제일 높게 응답했고, 여성의 경우는 자활후원기관을 35.6%로 가장 높게 응답했다. 자활후원기관 > 사회복지기관 > 농민단체 > 농협, 축협 순으로 응답했다.

또한 학력이 높을수록 관공서나 유관기관보다는 전문적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신뢰도가 높게 나타났고 학력이 낮을수록 자활센터와 관공서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이는 조사대상의 소속기관별 학력수준 및 현실적인 활동영역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3-33> 학력별 · 성별 · 연령별 영농도우미 파견 주관기관에 대한 의견

영농도우미 파견 주관기관		읍면동 사무소	농협, 축협	사회 복지 기관	자원봉사 센터	농민단체	종교 단체	자활후견기관	기타	합계
학력	중졸 이하	19	4	7	5	5	2	24	2	68
		27.9%	5.9%	10.3%	7.4%	7.4%	2.9%	35.3%	2.9%	100%
	고졸 이하	17	5	9	8	10	1	18	0	68
		25.0%	7.4%	13.2%	11.8%	14.7%	1.5%	26.5%	.0%	100%
	대졸 이하	8	8	7	9	5	0	13	0	50
		16.0%	16.0%	14.0%	18.0%	10.0%	.0%	26.0%	.0%	100%
대학원 이상	1	0	1	3	0	0	0	0	5	
	20.0%	.0%	20.0%	60.0%	.0%	.0%	.0%	.0%	100%	
전체		45	17	24	25	20	3	55	2	191
		23.6%	8.9%	12.6%	13.1%	10.5%	1.6%	28.8%	1.0%	100%
연령	20대	3	0	1	0	1	0	3	0	8
		37.5%	.0%	12.5%	.0%	12.5%	.0%	37.5%	.0%	100%
	30대	10	3	7	5	3	1	12	0	41
		24.4%	7.3%	17.1%	12.2%	7.3%	2.4%	29.3%	.0%	100%
	40대	10	7	6	6	11	2	20	0	62
		16.1%	11.3%	9.7%	9.7%	17.7%	3.2%	32.3%	.0%	100%
50대 이상	20	4	7	4	3	0	23	2	63	
	31.7%	6.3%	11.1%	6.3%	4.8%	.0%	36.5%	3.2%	100%	
전체		43	14	21	15	18	3	58	2	174
		24.7%	8.0%	12.1%	8.6%	10.3%	1.7%	33.3%	1.1%	100%
성별	남자	18	4	9	4	6	0	14	1	56
		32.1%	7.1%	16.1%	7.1%	10.7%	.0%	25.0%	1.8%	100.0%
	여자	28	11	18	21	13	2	52	1	146
		19.2%	7.5%	12.3%	14.4%	8.9%	1.4%	35.6%	.7%	100.0%
전체		46	15	27	25	19	2	66	2	202
		22.8%	7.4%	13.4%	12.4%	9.4%	1.0%	32.7%	1.0%	100.0%

영농도우미 파견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숙련되고 능숙한 영농기술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필요할 때 즉시 연결되는 체계구축이 23.0%로 응답해 영농도우미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사기술과 안정적인 공급을 주요 항목으로 응답하고 있다(<표 3-34> 참조).

성별인식은 여성들의 경우 홍보의 중요성과 절차의 편리함과 도우미 훈련에 대한 문제를 중요하게 지적하였고 남성들의 경우 필요시 즉시연결에 대한 비중이 높고 여성들과 인식의 차이가 두

6) <표 3-34>에서 영농도우미 파견 활성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 설문 결과 성별 계

드러진 부분은 공정한 사업수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한 점이다. 여성들이 절차의 편리함에 대해서 남성 5.5%에 비해 11.7%로 두배 정도 높게 나타난 것은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행정서류 작성 및 신청 등에서 겪는 어려움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연령별로는 20대와 50대의 경우 적극적인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40대의 경우 숙련된 농사기술을 중요한 여건으로 응답하였다.

<표 3-34> 영농 도우미 파견 활성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

영농도우미 활성화에 중요한 점		적극적 홍보	숙련된 농사기술	절차의 편리	공정한사 업수행	필요시 즉시연결	영농, 가사 도우미훈 련	기타	합계
성 별	남자	9 16.4%	13 23.6%	3 5.5%	5 9.1%	17 30.9%	7 12.7%	1 1.8%	56 100.0%
	여자	30 20.7%	33 22.8%	17 11.7%	3 2.1%	29 20.0%	30 20.7%	3 2.1%	146 100.0%
전체		39 19.5%	46 23.0%	20 10.0%	8 4.0%	46 23.0%	37 18.5%	4 2.0%	202 100.0%
연 령	20대	2 25.0%	0 .0%	1 12.5%	0 .0%	3 37.5%	2 25.0%	0 .0%	8 100.0%
	30대	7 17.1%	4 9.8%	9 22.0%	2 4.9%	11 26.8%	6 14.6%	2 4.9%	41 100.0%
	40대	10 15.9%	18 28.6%	4 6.3%	5 7.9%	17 27.0%	8 12.7%	1 1.6%	63 100.0%
	50대	15 25.4%	15 25.4%	4 6.8%	0 .0%	13 22.0%	11 18.6%	1 1.7%	59 100.0%
	이상	25.4%	25.4%	6.8%	.0%	22.0%	18.6%	1.7%	100.0%
전체		34 19.9%	37 21.6%	18 10.5%	7 4.1%	44 25.7%	27 15.8%	4 2.3%	171 100.0%
소 속 기 관	자원봉 사센터	4 28.6%	2 14.3%	1 7.1%	5 35.7%	0 .0%	0 .0%	1 7.1%	14 100.0%
	자활후 견기관	33 25.8%	9 7.0%	2 1.6%	21 16.4%	21 16.4%	10 7.8%	2 1.6%	128 100.0%
	기타	3 9.4%	0 .0%	1 3.1%	11 34.4%	7 21.9%	2 6.3%	0 .0%	32 100.0%
	전체	40 23.0%	11 6.3%	4 2.3%	37 21.3%	28 16.1%	12 6.9%	3 1.7%	174 100.0%

3.5 자원봉사와 가사도우미 추진체계

3.5.1 자원봉사의 필요성과 경험

1) 자원봉사의 필요성

<표3-35>에서 나타나듯이 우리사회와 이웃을 위해 자원봉사는 꼭 필요한가에 대한 의견에서 응답자의 84.5%가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전혀 아니다와 대체로 아니다는 4.9%에 불과하다. 자원봉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성별, 연령별, 기관별, 지역별 차이 없이 일반적으로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표 3-35> 자원봉사 필요성

자원봉사 필요성	빈도	비율
전혀 아니다	3	1.5
대체로 아니다	7	3.4
그저 그렇다	22	10.7
대체로 그렇다	72	35.0
매우 그렇다	102	49.5
합계	206	100.0

연령별 자원봉사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분석한 결과 자원봉사에 대한 필요성의 인식은 세대를 떠나서 일반화되어 있지만 세대별 인식의 경우 20대의 경우 필요성과 불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표 3-36> 참조).

<표 3-36> 연령별 자원봉사의 필요성

자원봉사 필요성	대체로 아니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20대	1	0	7	0	8
	12.5%	.0%	87.5%	.0%	100.0%
30대	1	4	18	18	41
	2.4%	9.8%	43.9%	43.9%	100.0%
40대	3	5	24	31	63
	4.8%	7.9%	38.1%	49.2%	100.0%
50대이상	2	11	19	30	62
	3.2%	17.7%	30.6%	48.4%	100.0%
전체	7	20	68	79	174
	4.0%	11.5%	39.1%	45.4%	100.0%

자원봉사의 필요성에 대한 인지도는 자활후견기관과 자원봉사센터 소속원 사이에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난다. 자원봉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인식은 자원봉사센터의 경우 78.6%이고 자활후견센터의 경우 49.6%로 두배 정도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표 3-37> 참조).

<표 3-37> 소속기관별 자원봉사 필요성 인지도

자원봉사 필요성		전혀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소속기관	자원봉사센터	0	1	0	2	11
		.0%	7.1%	.0%	14.3%	78.6%
	자활후견기관	1	4	15	46	65
		.8%	3.1%	11.5%	35.1%	49.6%
	기타	0	2	2	16	12
		.0%	6.3%	6.3%	50.0%	37.5%
전체	1	7	17	64	88	
	.6%	4.0%	9.6%	36.2%	49.7%	

기회가 된다면 자원봉사에 참여할 것인가에 대한 응답에서 매우 그렇다가 24.6%, 대체로 그렇다가 46.2%로 나타나 70.8%로 비교적 긍정적으로 대답하였다. 반면에 전혀 아니다 라는 응답이 2.0%, 대체로 아니다가 10.1%로 12.1% 만이 부정적으로 응답함으로써 자원봉사의 의미나 필요성에 있어서는 대부분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3-38> 자원봉사 참여의사 여부

자원봉사 참여의사 여부	빈도	비율
전혀 아니다	4	2.0
대체로 아니다	20	10.1
그저 그렇다	34	17.1
대체로 그렇다	92	46.2
매우 그렇다	49	24.6
합계	199	100.0

조사대상자들의 응답을 좀 더 세분화해서 살펴보면 소속기관별로는 자원봉사센터가 자원봉사에 대한 참여의사가 가장 높고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자원봉사 참여의사가 높았다. 따라서 어려운 농가실정을 위해서는 자원봉사자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조직하여 농촌과 도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교류사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외부공급자와 내부 수혜자 사이에서 농사를 통해 교감을 확대할 수 있는 인센티브 프로그램이 설치된다면 이는 새로운 형태의 농촌-도시 결연사업의 가능성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농가=도시가구의 결연 등).

<표 3-39> 소속기관별, 성별 자원봉사 참여의사 여부

자원봉사 참여의사		전혀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소속기관	자원봉사센터	0	0	0	5	9	14
		.0%	.0%	.0%	35.7%	64.3%	100.0%
	자활후견기관	1	15	21	61	28	126
		.8%	11.9%	16.7%	48.4%	22.2%	100.0%
	기타	0	2	7	18	5	32
		.0%	6.3%	21.9%	56.3%	15.6%	100.0%
전체	1	17	28	84	42	172	
	.6%	9.9%	16.3%	48.8%	24.4%	100.0%	
성별	남자	1	4	8	30	12	55
		1.8%	7.3%	14.5%	54.5%	21.8%	100.0%
	여자	3	16	26	61	35	141
		2.1%	11.3%	18.4%	43.3%	24.8%	100.0%
전체	4	20	34	91	47	196	
	2.0%	10.2%	17.3%	46.4%	24.0%	100.0%	

농촌이라도 도움이 필요하다면 자원봉사자가 파견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42.1%가 매우 그렇다고 응답했고, 39.1%는 대체로 그렇다, 그저 그렇다는 13.2%로서 대다수 응답자들이 농촌에 자원봉사자가 파견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표 3-40> 농촌에 자원봉사 파견여부에 대해

농촌에 자원봉사 파견여부에 대해	빈도	비율
전혀 아니다	3	1.5
대체로 아니다	8	4.1
그저 그렇다	26	13.2
대체로 그렇다	77	39.1
매우 그렇다	83	42.1
합계	197	100.0

2) 자원봉사의 경험

<표 3-41>는 자원봉사 경험에 대한 성별, 소속기관별, 연령별 응답을 분석한 것이다. 자원봉사를 현재도 하고 있다는 응답은 21.1%, 전에 해본 경험이 있다 35.3%로 나타나 응답자의 56.4%가 자원봉사 활동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자원봉사 경험이 제일 낮은 세대는 30대이고 자원봉사 경험이 가장 높은 세대는 50대이다.

자원봉사센터의 경우 현재도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는 응답이 80%로 대부분 소속원들이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했고, 반면 자활센터의 경우 19.1%만이 현재도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자원봉사 참여율은 낮았다. 성별 자원봉사 참가율은 거의 비슷한 결과로 나타나 남성 자원봉사의 역할도 상당히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응답자들이 경험한 자원봉사 내용으로는 고아원, 양로원 방문봉사, 농촌봉사, 장애인이나 노인돌보기 등이 높았다. 이는 자원봉사 영역이 대부분 가사도우미와 관련된 경험임을 보여준다. 응답자들의 비중에서 농촌봉사 경험이 높은 것은 조사지역이 농촌지역이나 인근이라는 점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농가 가사도우미의 역할을 수행할 인력자원의 가능성은 영농도우미에 대한 지원 방식과 조건 및 체계를 적절하게 조직한다면 부분적으로 충원가능성이 보여진다(<표 3-42> 참조).

<표 3-41> 연령별, 소속기관별, 성별 자원봉사경험

자원봉사경험		현재도 하고 있다	전에 해본 경험있다	전혀 경험없다	기타	전체
연령	20대	1	4	3	0	8
		12.5%	50.0%	37.5%	.0%	100.0%
	30대	7	14	20	0	41
		17.1%	34.1%	48.8%	.0%	100.0%
	40대	14	22	27	0	63
		22.2%	34.9%	42.9%	.0%	100.0%
	50대이상	19	25	17	1	62
		30.6%	40.3%	27.4%	1.6%	100.0%
전체		41	65	67	1	174
		23.6%	37.4%	38.5%	.6%	100.0%
소속기관	자원봉사센터	12	2	1	0	15
		80.0%	13.3%	6.7%	.0%	100.0%
	자활후견기관	25	50	55	1	131
		19.1%	38.2%	42.0%	.8%	100.0%
	기타	2	12	18	0	32
		6.3%	37.5%	56.3%	.0%	100.0%
전체		39	64	74	1	178
		21.9%	36.0%	41.6%	.6%	100.0%
성별	남자	9	21	25	1	56
		16.1%	37.5%	44.6%	1.8%	100.0%
	여자	34	51	63	0	148
		23.0%	34.5%	42.6%	.0%	100.0%
전체		43	72	88	1	204
		21.1%	35.3%	43.1%	.5%	100.0%

<표 3-42> 자원봉사 경험내용

자원봉사 경험 내용	빈도	비율
고아원,양로원 방문 및 봉사	39	32.0
병원 및 보건소	10	8.2
유치원이나 놀이방에서 탁아봉사	4	3.3
구,동에서 실시하는 행사	6	4.9
농촌봉사	23	18.9
환경보전활동	2	1.6
장애인,장애아동 시설방문 및 봉사	14	11.5
학교 내 봉사	2	1.6
외로운 장애인이나 노인 돌보기	9	7.4
구청에서 실시하는 가정도우미	1	.8
기타	12	9.8
합계	122	100.0

3) 자원봉사 만족도

자원봉사에 대한 만족도는 65.4%로 조사되었다(<표 3-42> 참조). 세대별로 만족도를 보면 저연령 일수록 만족도가 높고 고연령 일수록 만족도가 낮아졌다, 소속기관별로는 자원봉사센터 소속원들의 자원봉사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자원봉사 센터는 불만족이 0%로 거의 불만족 요인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불만족 응답이 약간 높게 나타났다.

7) 자원봉사 경험에 대한 만족도 중 성별 전체 계, 대단히 만족 15.9%+만족한 편 49.5%

<표 3-43> 자원봉사 경험에 대한 만족도

자원봉사 경험에 대한 만족도		대단히 만족	만족한 편	그저 그렇다	불만족한 편	대단히 불만족	합계
연령	20대	0	2	0	0	0	2
		.0%	100.0%	.0%	.0%	.0%	100.0%
	30대	4	8	6	1	0	19
		21.1%	42.1%	31.6%	5.3%	.0%	100.0%
	40대	5	18	10	1	0	34
14.7%		52.9%	29.4%	2.9%	.0%	100.0%	
50대이상	7	21	13	0	2	43	
		16.3%	48.8%	30.2%	.0%	4.7%	100.0%
전체		16	49	29	2	2	98
		16.3%	50.0%	29.6%	2.0%	2.0%	100.0%
소속기관	자원봉사센터	6	5	2	0	0	13
		46.2%	38.5%	15.4%	.0%	.0%	100.0%
	자활후견기관	10	32	23	2	3	70
		14.3%	45.7%	32.9%	2.9%	4.3%	100.0%
	기타	1	8	1	1	0	11
9.1%		72.7%	9.1%	9.1%	.0%	100.0%	
전체		17	45	26	3	3	94
		18.1%	47.9%	27.7%	3.2%	3.2%	100.0%
성별	남자	3	12	11	2	0	28
		10.7%	42.9%	39.3%	7.1%	.0%	100.0%
	여자	14	41	20	1	3	79
		17.7%	51.9%	25.3%	1.3%	3.8%	100.0%
전체		17	53	31	3	3	107
		15.9%	49.5%	29.0%	2.8%	12.8%	100.0%

3.5.2 가사도우미의 필요성과 추진체계

1) 가사도우미 필요성

질병, 노환, 장애등으로 인해 가사 일에 불편함이 발생한 농가에 대하여 가사 일을 도와주는 가사도우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55.2%나 되었으며, 대체로 필요하다는 응답까지 포함하면 가사도우미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확률은 92.1%로 나타나 매우 높았다.

<표 3-44> 가사도우미 필요성

가사도우미 필요성	빈도	비율
전혀 필요없다	3	1.5
대체로 필요없다	6	3.0
대체로 필요하다	75	36.9
매우 필요하다	112	55.2
잘 모름	7	3.4
합계	203	100.0

한편 가사도우미가 불필요할 것이라는 응답자에게 그 이유를 물어본 결과 농촌이 힘들어서 갈려고 하는 사람이 적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자원봉사 센터의 경우 갈 도우미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50%로 매우 높다. <표 3-45>는 소속기관별, 성별, 학력별 특징에 따라 가사도우미의 불필요성에 대한 인지도를 분류해 보았다. 응답자들의 대부분이 가사도우미가 불필요한 이

유로 갈 도우미가 없을 것이다 > 필요농가를 잘 모른다> 이동의 어려움이 있다 순으로 응답하고 있다.

특히 갈 도우미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에서 자원봉사센터 소속원들이 자활후견센터 소속원에 비해 두배 가량 높은 응답을 보였고,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두배 정도 높게 나타나고, 학력별로는 중졸이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임으로써 정작 농촌지역 가사도우미 인력으로 필요한 자원봉사 인력, 여성인력의 수급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3-45> 가사도우미가 불필요한 이유

가사도우미 불필요한 이유		이동의 어려움	농촌특성 가족해결	파출부가 필요	필요농가를 모름	갈 도우미 없음	기타	전체
소속 기관	자원봉사 센터	2 33.3%	1 16.7%	0 .0%	0 .0%	3 50.0%	0 .0%	6 100.0%
	자활후견 기관	12 25.5%	5 10.6%	5 10.6%	10 21.3%	13 27.7%	2 4.3%	47 100.0%
	기타	0 .0%	2 66.7%	0 .0%	1 33.3%	0 .0%	0 .0%	3 100.0%
		14 25.0%	8 14.3%	5 8.9%	11 19.6%	16 28.6%	2 3.6%	56 100.0%
전체	4 21.1%	3 15.8%	0 .0%	8 42.1%	3 15.8%	1 5.3%	19 100.0%	
	12 24.5%	8 16.3%	6 12.2%	7 14.3%	15 30.6%	1 2.0%	49 100.0%	
전체	16 23.5%	11 16.2%	6 8.8%	15 22.1%	18 26.5%	2 2.9%	68 100.0%	
	학력	중졸이하	10 28.6%	5 14.3%	3 8.6%	5 14.3%	10 28.6%	2 5.7%
고졸이하		4 23.5%	4 23.5%	2 11.8%	4 23.5%	3 17.6%	0 .0%	17 100.0%
대졸이하		2 33.3%	0 .0%	1 16.7%	2 33.3%	1 16.7%	0 .0%	6 100.0%
대학원 이상		0 .0%	1 50.0%	0 .0%	1 50.0%	0 .0%	0 .0%	2 100.0%
전체	16 26.7%	10 16.7%	6 10.0%	12 20.0%	14 23.3%	2 3.3%	60 100.0%	

2) 가사도우미의 참여의향

가사도우미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가를 몇 가지 조건별로 조사하였다. 전반적으로 완전 자원봉사 형태에서 가사도우미로 참여할 의사는 매우 낮게 나타났고 참여할 의사가 없다는 응답이 매우 높았다. 이는 가사도우미에 대한 <표 3-45>에 대한 결과에서도 보여졌듯이 필요성과 본인의 참여의향과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즉 농촌지역의 가사도우미 역할에 대해서 기피현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3-46>은 지원조건에 따른 가사도우미에 대한 참여의사를 분류한 것이다. 조사결과를 보면 지원조건에 따라 참여자들의 참여의지가 매우 달라짐을 알 수 있다. 완전 자원봉사 형태로 참여할 의향에 대해서는 참여의사가 있거나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대답이 11.3%와 3.8%로 참여의사는

15.1%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전혀 혹은 별로 참여할 의사가 없다는 대답을 합하면 총 37.1%가 참여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교통편이 제공된다면 참여하겠다는 의사는 25.4%로서 완전자원봉사의 경우 보다 10% 높아졌다. 교통편과 점심을 제공할 경우의 자원봉사 참여의향은 적극적으로 참여가 6.1%이었고 참여할 의사가 있다가 21.2%로 참여의사가 27.3%로 교통편 제공시 보다 약간 높아졌다. 교통편과 점심, 약간의 수고료를 지불할 경우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응답이 14.3%로 매우 높아졌으며,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도 34.3%로 나타나 응답자의 48.6%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이는 교통편만 제공할 경우와 비교해 본다면 두 배가량 높은 비율이다. 따라서 가사도우미 역시 완전 자원봉사에 의한 시스템 보다는 접근성을 강화하고 기본적인 수고비가 지급되어야만 인력의 확충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표 3-46> 지원내용에 따른 자원봉사 참여의향

지원내용에 따른 자원봉사 참여의향		빈도	비율
완전 자원 봉사	참여생각 전혀 없음	37	19.9
	별로 참여하고 싶지 않음	32	17.2
	고려해 보겠다	89	47.8
	참여할 의사 있음	21	11.3
	적극적으로 참여	7	3.8
	합계	186	100.0
교통편제공시	참여생각 전혀 없음	13	7.2
	별로 참여하고 싶지 않음	35	19.3
	고려해 보겠다	87	48.1
	참여할 의사 있음	36	19.9
	적극적으로 참여	10	5.5
	합계	181	100.0
교통편과 점심제공시	참여생각 전혀 없음	12	6.7
	별로 참여하고 싶지 않음	38	21.2
	고려해 보겠다	80	44.7
	참여할 의사 있음	38	21.2
	적극적으로 참여	11	6.1
	합계	179	100.0
교통편, 점심, 수고료 제공시	참여생각 전혀 없음	7	4.0
	별로 참여하고 싶지 않음	16	9.1
	고려해 보겠다	67	38.3
	참여할 의사 있음	60	34.3
	적극적으로 참여	25	14.3
	합계	175	100.0

응답자의 소속단체별로 자원봉사 가사도우미 참여에 대해 알아본 결과, 지원이 적어도 가사도우미에 참여할 의사를 높게 나타낸 곳은 자활센터보다는 자원봉사센터이다. 자원봉사센터에 속한 응답자들은 지원이 적어도 참여할 의사가 비교적 많은데 비해 자활후견기관 소속 응답자들의 참여의사는 낮다. 이는 소속기관에 따른 응답자들의 생활수준과 조건에 의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전반적으로 가사도우미를 자원봉사로 시행하려고 할 경우 많은 점이 고려되어야 함을 암시한다.

<표 3-47> 소속별 지원내용에 따른 가사도우미 참가 의향

소속별 지원내용에 따른 가사도우미 참가 의향		참여 의향				
		참여생각 전혀 없음	별로 참여하고 싶지 않음	고려해 보겠다	참여할 의사 있음	적극적으로 참여
완전 자원 봉사	자원봉사센터	0	1	2	5	3
		.0%	9.1%	18.2%	45.5%	27.3%
	자활후견기관	31	14	58	12	2
		26.5%	12.0%	49.6%	10.3%	1.7%
기타	1	8	19	2	2	
		3.1%	25.0%	59.4%	6.3%	6.3%
교통편제공시	자원봉사센터	0	0	2	4	5
		.0%	.0%	18.2%	36.4%	45.5%
	자활후견기관	8	21	60	22	3
		7.0%	18.4%	52.6%	19.3%	2.6%
기타	1	9	14	6	2	
		3.1%	28.1%	43.8%	18.8%	6.3%
교통편과 점심제공시	자원봉사센터	0	0	2	3	4
		.0%	.0%	22.2%	33.3%	44.4%
	자활후견기관	7	28	53	24	4
		6.0%	24.1%	45.7%	20.7%	3.4%
기타	1	6	12	9	2	
		3.3%	20.0%	40.0%	30.0%	6.7%
교통편, 점심, 수고료 제공시	자원봉사센터	0	0	3	2	2
		.0%	.0%	42.9%	28.6%	28.6%
	자활후견기관	3	9	45	40	15
		2.7%	8.0%	40.2%	35.7%	13.4%
기타	1	3	12	10	5	
		3.2%	9.7%	38.7%	32.3%	16.1%
소속기관	자원봉사센터	0	0	3	2	2
		.0%	.0%	42.9%	28.6%	28.6%
	자활후견기관	3	9	45	40	15
		2.7%	8.0%	40.2%	35.7%	13.4%
기타	1	3	12	10	5	
		3.2%	9.7%	38.7%	32.3%	16.1%
전체		4	12	60	52	22
		2.7%	8.0%	40.0%	34.7%	14.7%

지원조건에 따른 참여자들의 세대별 의사변화를 조사한 결과를 <표 3-48>로 요약해 보았다. 완전 자원봉사의 경우 30대의 참여의사가 가장 높고, 교통편이 제공될 경우 전체적으로 참여의사가 향상되었다. 교통과 점심, 수고료가 지급되는 경우 40-50대의 참여율이 확연히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사도우미의 경우 인력충원에 있어서 이동수단과 일정한 정도의 일당 지원이 수반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표 3-48> 참조).

<표 3-48> 연령별 지원내용에 따른 가사도우미 참여의사

가사도우미 참여의사		전혀 없음	하고싶지 않음	고려해 보겠다	참여할 의사 있음	적극적으로참여	합계
완전 자원 봉사	20대	1 12.5%	2 25.0%	5 62.5%	0 .0%	0 .0%	8 100.0%
	30대	3 7.9%	8 21.1%	18 47.4%	7 18.4%	2 5.3%	38 100.0%
	40대	12 20.7%	8 13.8%	30 51.7%	7 12.1%	1 1.7%	58 100.0%
	50대	13	12	22	6	3	56
	이상	23.2%	21.4%	39.3%	10.7%	5.4%	100.0%
전체		29 18.1%	30 18.8%	75 46.9%	20 12.5%	6 3.8%	160 100.0%
교통 제공	20대	0 .0%	3 37.5%	3 37.5%	2 25.0%	0 .0%	8 100.0%
	30대	1 2.6%	9 23.1%	16 41.0%	11 28.2%	2 5.1%	39 100.0%
	40대	4 7.4%	11 20.4%	26 48.1%	11 20.4%	2 3.7%	54 100.0%
	50대	4	9	26	10	5	54
	이상	7.4%	16.7%	48.1%	18.5%	9.3%	100.0%
전체		9 5.8%	32 20.6%	71 45.8%	34 21.9%	9 5.8%	155 100.0%
교통 점심 제공	20대	0 .0%	3 37.5%	4 50.0%	1 12.5%	0 .0%	8 100.0%
	30대	1 2.7%	9 24.3%	12 32.4%	13 35.1%	2 5.4%	37 100.0%
	40대	4 7.3%	11 20.0%	26 47.3%	13 23.6%	1 1.8%	55 100.0%
	50대	3	10	23	9	6	51
	이상	5.9%	19.6%	45.1%	17.6%	11.8%	100.0%
전체		8 5.3%	33 21.9%	65 43.0%	36 23.8%	9 6.0%	151 100.0%
교통 점심 수고료	20대	0 .0%	0 .0%	6 75.0%	1 12.5%	1 12.5%	8 100.0%
	30대	1 2.7%	7 18.9%	13 35.1%	13 35.1%	3 8.1%	37 100.0%
	40대	2 3.6%	7 12.7%	22 40.0%	21 38.2%	3 5.5%	55 100.0%
	50대	1	1	17	19	12	50
	이상	2.0%	2.0%	34.0%	38.0%	24.0%	100.0%
전체		4 2.7%	15 10.0%	58 38.7%	54 36.0%	19 12.7%	150 100.0%

자원봉사 경험 정도가 가사도우미 참여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표 3-49>의 결과처럼 자원봉사의 경우 해본 적이 있거나 현재도 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참여도가 높았다. 그러나 경험이 없더라도 교통과 점심, 약간의 수고료를 지급한다면 자원봉사를 해보지 않았던 사람이라도 참여할 의향이 두 배로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사도우미의 인력충원에 있어서 자원봉사센터 인력의 활용과 경제적 지원이 인력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표 3-49> 자원봉사 경험별 가사도우미 지원조건에 따른 참여의사

		참여생각 전혀 없음	참여하고 싶지 않음	고려해 보겠다	참여의사 있음	적극적으로 참여	전체
완전 자원 봉사	현재도 하고 있다	2 5.3%	2 5.3%	22 57.9%	9 23.7%	3 7.9%	38 100.0%
	전에 해본 경험있다	10 14.9%	13 19.4%	36 53.7%	7 10.4%	1 1.5%	67 100.0%
	전혀 경험없다	25 31.3%	17 21.3%	30 37.5%	5 6.3%	3 3.8%	80 100.0%
		전체	37 20.0%	32 17.3%	88 47.6%	21 11.4%	7 3.8%
교통편	현재도 하고 있다	2 5.4%	2 5.4%	17 45.9%	11 29.7%	5 13.5%	37 100.0%
	전에 해본 경험있다	4 6.2%	9 13.8%	36 55.4%	14 21.5%	2 3.1%	65 100.0%
	전혀 경험없다	6 7.7%	24 30.8%	34 43.6%	11 14.1%	3 3.8%	78 100.0%
		전체	12 6.7%	35 19.4%	87 48.3%	36 20.0%	10 5.6%
교통 점심 수고료	현재도 하고 있다	1 2.8%	2 5.6%	12 33.3%	17 47.2%	4 11.1%	36 100.0%
	전에 해본 경험있다	2 3.2%	5 7.9%	29 46.0%	15 23.8%	12 19.0%	63 100.0%
	전혀 경험없다	4 5.3%	9 11.8%	26 34.2%	28 36.8%	9 11.8%	76 100.0%
		전체	7 4.0%	16 9.1%	67 38.3%	60 34.3%	25 14.3%

3) 가사도우미활동의 애로사항

가사도우미 참여활동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농가의 성격상 가사일과 농사일을 동시에 도와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40.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교통의 불편함에 대한 응답이 28.9%로 나타났다.

<표 3-50> 가사도우미로 참여하는 데 예상되는 어려움

가사도우미로 참여하는 데 예상되는 어려움	빈도	비율
가사에 영농도 도와야 함	77	40.5
집안일 하는 게 불편함	25	13.2
농촌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 불필요	3	1.6
가족이 해야할 일	7	3.7
농민과 친해지기 힘들	10	5.3
신청절차가 복잡함	4	2.1
거리가 멀고 교통 불편	55	28.9
기타	9	4.7
합계	190	100.0

가사도우미 파견시 어려움에 대해서는 <표 3-51>에서 나타나듯이 여성들의 경우 교통의 불편과 가사와 농사일을 동시에 해야 하는 문제를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하였고 남성들의 경우는 가사일과 농사일을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과 집안일을 하는 것의 불편함을 들었다. 이는 연령별 조사 결과에서도 가사일과 농사일의 동시지원과 교통의 불편을 애로사항으로 응답함에 따라서 가사도우미 파견시 가사도우미의 역할에 대한 분명한 규정과 이동수단의 제공이 필수적인 요인임을 알 수 있다.

<표 3-51> 성별·연령별 가사도우미 파견의 애로사항

가사도우미 파견의 어려운점		가사. 농 동시 지원	집안일 하는 게 불편함	농촌 스스로 해결	가족이 해야할 일	농민친화 력어려움	신청절차 복잡	교통 불편	기타	합계
성별	남자	20 39.2%	8 15.7%	1 2.0%	4 7.8%	6 11.8%	3 5.9%	6 11.8%	3 5.9%	51 100.0%
	여자	56 41.2%	17 12.5%	2 1.5%	3 2.2%	4 2.9%	1 .7%	47 34.6%	6 4.4%	136 100.0%
전체		76 40.6%	25 13.4%	3 1.6%	7 3.7%	10 5.3%	4 2.1%	53 28.3%	9 4.8%	187 100.0%
연령	20 대	3 37.5%	2 25.0%	0 .0%	1 12.5%	0 .0%	0 .0%	2 25.0%	0 .0%	8 100.0%
	30 대	17 43.6%	3 7.7%	0 .0%	1 2.6%	0 .0%	1 2.6%	12 30.8%	5 12.8%	39 100.0%
	40 대	27 48.2%	7 12.5%	0 .0%	1 1.8%	4 7.1%	3 5.4%	13 23.2%	1 1.8%	56 100.0%
	50 이상	23 40.4%	11 19.3%	2 3.5%	2 3.5%	4 7.0%	0 .0%	12 21.1%	3 5.3%	57 100.0%
	전체		70 43.8%	23 14.4%	2 1.3%	5 3.1%	8 5.0%	4 2.5%	39 24.4%	9 5.6%

4) 가사도우미 파견기관

가사도우미를 파견할 기관으로 가장 적절한 기관으로는 자활후견기관이 32.4%로 지적되었다. 응답자들은 도우미파견기관으로 가장 적절한 곳은 자활후견기관 32.4%, 읍면동사무소 23%로 나타나 영농도우미 파견과 유사한 응답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향후 가사도우미 주관기관 예정인 농협은 7.4%로 인지도가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표 3-52> 가사도우미 파견기관으로 가장 적절한 곳

가사도우미 파견기관으로 가장 적절한 곳	빈도	비율
읍면동 사무소	47	23.0
농협 축협	15	7.4
사회복지기관	27	13.2
자원봉사센터	26	12.7
농민단체	19	9.3
종교단체	2	1.0
자활후견기관	66	32.4
기타	2	1.0
합계	204	100.0

가사도우미 파견기관에 대해서는 학력과 상관없이 자활후견기관이 가장 높은 비중으로 응답되었다. 그러나 성별로는 약간의 차이를 보였는데 남자들의 경우 읍·면·동사무소가 적당하다는 응답이 여성들에 비해 높게 나타나 공식적 행정기관에 대한 의지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대별로는 50대 이상이 행정기관에 대한 의존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소속기관별로는 여전히 자활소속은 자활, 자원봉사센터 소속은 자원봉사센터를 응답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는 향후 가사도우미 인력수급에 있어서 참여자 모집과정 및 안내에 있어서 참조되어야 할 점이다.

<표 3-53> 성별, 연령별 가사도우미 파견기관으로 가장 적절한 곳

파견기관	읍면동 사무소	농협, 축협	사회복지 기관	자원봉사센터	농민 단체	종교 단체	자활후견기관	기타	합계	
학 력	중졸 이하	19 28.8%	3 4.5%	5 7.6%	5 7.6%	7 10.6%	2 3.0%	23 34.8%	2 3.0%	66 100.0%
	고졸 이하	15 22.1%	6 8.8%	11 16.2%	8 11.8%	7 10.3%	0 .0%	21 30.9%	0 .0%	68 100.0%
	대졸 이하	8 15.7%	5 9.8%	8 15.7%	11 21.6%	4 7.8%	0 .0%	15 29.4%	0 .0%	51 100.0%
	대학원 이하	1 20.0%	0 .0%	2 40.0%	1 20.0%	1 20.0%	0 .0%	0 .0%	0 .0%	5 100.0%
	전체	43 22.6%	14 7.4%	26 13.7%	25 13.2%	19 10.0%	2 1.1%	59 31.1%	2 1.1%	190 100.0%
	성 별	남자	18 32.1%	4 7.1%	9 16.1%	4 7.1%	6 10.7%	0 .0%	14 25.0%	1 1.8%
여자		28 19.2%	11 7.5%	18 12.3%	21 14.4%	13 8.9%	2 1.4%	52 35.6%	1 .7%	146 100.0%
전체		46 22.8%	15 7.4%	27 13.4%	25 12.4%	19 9.4%	2 1.0%	66 32.7%	2 1.0%	202 100.0%
연 령		20대	0 .0%	0 .0%	1 12.5%	2 25.0%	1 12.5%	0 .0%	4 50.0%	0 .0%
	30대	10 24.4%	3 7.3%	9 22.0%	2 4.9%	4 9.8%	1 2.4%	12 29.3%	0 .0%	41 100.0%
	40대	9 14.8%	5 8.2%	7 11.5%	8 13.1%	9 14.8%	1 1.6%	22 36.1%	0 .0%	61 100.0%
	50대이 상	21 33.9%	5 8.1%	5 8.1%	3 4.8%	4 6.5%	0 .0%	22 35.5%	2 3.2%	62 100.0%
	전체	40 23.3%	13 7.6%	22 12.8%	15 8.7%	18 10.5%	2 1.2%	60 34.9%	2 1.2%	172 100.0%
소 속 기 관	자원봉사센터	3 21.4%	4 28.6%	1 7.1%	6 42.9%	0 .0%	0 .0%	0 .0%	0 .0%	14 100.0%
	자활후견기관	31 23.8%	4 3.1%	9 6.9%	13 10.0%	10 7.7%	1 .8%	61 46.9%	1 .8%	130 100.0%
	기타	7 21.9%	4 12.5%	12 37.5%	3 9.4%	6 18.8%	0 .0%	0 .0%	0 .0%	32 100.0%
	전체	41 23.3%	12 6.8%	22 12.5%	22 12.5%	16 9.1%	1 .6%	61 34.7%	1 .6%	176 100.0%

가사도우미 활성화를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는 영농일에도 전문성을 갖춘 도우미가 중요하다는 응답이 22.8%로 가장 높게 나타나 응답자들이 가사도우미의 자격요건으로 농사일과 가사일을 일정정도 병행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높은 응답은 적극적인 홍보와 필요할 때 언제나 구축될 수 있는 체계의 구축이 20.8%로 동일하게 응답하였다. 특히 농민부담의 최소화라는 응답도 14.9%에 이르렀다. 이는 가사도우미의 활성화를 위해서 영농일에 대한 전문성, 지원체계의 현실화, 적극적 홍보를 동일하게 중요한 요인으로 응답함으로써 인력의 안정적 공급과 수요에 대한 대응능력으로서의 지원체계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표 3-54> 가사도우미 활성화 방안

가사도우미 활성화 방안	빈도	비율
적극적인 홍보 정보 제공	42	20.8
영농일에도 전문성 갖춘 도우미	46	22.8
신청, 선정, 배분 절차의 편리 신속함	14	6.9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수행	8	4.0
필요할 때 언제나 연결되는 체계구축	42	20.8
농민 부담비용의 최소화	30	14.9
영농 가사일 통합한 도우미 제공	16	7.9
기타	4	2.0
합계	202	100.0

가사도우미 활성화를 위한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세대별 소속기관별 견해에 약간의 차이가 드러난다. 50대의 경우 전문성과 홍보를 강조하는 반면 40대의 경우는 필요시 항상적으로 제공되는 시스템의 문제를 중요하게 지적하였다. 그러나 20대의 경우 농민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과 농사일과 가사일이 통합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자활센터의 경우 홍보와 전문성을 강조하는 반면 자원봉사센터는 필요시 항상적인 지원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농가에 가정봉사를 나가는 자원봉사센터의 경우 필요시에 적절한 봉사가 행해지지 않았을 때의 어려움에 대해 많이 접했기 때문에 이런 응답이 나왔으리라 생각된다. 자활센터의 경우 가사도우미 지원사업을 정기적으로 전개하고 있고 약간의 수당을 지급받고 있기 때문에 홍보나 전문성(일자리의 영역확보)을 더 강조하고 필요시에 대한 응답이 적은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표 3-55> 가사도우미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것

활성화 방안		홍보	전문성	절차 편리	공정성	필요시 항상	농민 부담 최소화	농사가 사통합	기타	합계
연령	20대	1	0	1	0	0	4	2	0	8
		12.5%	.0%	12.5%	.0%	.0%	50.0%	25.0%	.0%	100.0%
	30대	12	5	4	1	12	5	1	1	41
		29.3%	12.2%	9.8%	2.4%	29.3%	12.2%	2.4%	2.4%	100.0%
	40대	12	10	3	3	18	9	3	1	59
		20.3%	16.9%	5.1%	5.1%	30.5%	15.3%	5.1%	1.7%	100.0%
	50대이상	13	16	6	2	8	6	8	2	61
		21.3%	26.2%	9.8%	3.3%	13.1%	9.8%	13.1%	3.3%	100.0%
전체		38	31	14	6	38	24	14	4	169
		22.5%	18.3%	8.3%	3.6%	22.5%	14.2%	8.3%	2.4%	100.0%
소속기관	자원봉사센터	1	4	2	1	5	0	0	1	14
		7.1%	28.6%	14.3%	7.1%	35.7%	.0%	.0%	7.1%	100.0%
	자활후견기관	30	33	9	2	21	21	10	2	128
		23.4%	25.8%	7.0%	1.6%	16.4%	16.4%	7.8%	1.6%	100.0%
	기타	8	3	0	1	11	7	2	0	32
25.0%		9.4%	.0%	3.1%	34.4%	21.9%	6.3%	.0%	100.0%	
전체		39	40	11	4	37	28	12	3	174
		22.4%	23.0%	6.3%	2.3%	21.3%	16.1%	6.9%	1.7%	100.0%

4. 영농·가사도우미 추진체계 논의 및 제언

4.1 농가육구조사 및 도우미 참여예상자조사 결과

4.1.1 영농·가사도우미 육구조사 결과

영농·가사도우미에 대한 수요자의 육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전국 6개 도의 6개 면단위 지역에서 447명의 농민을 대상으로 영농도우미 및 가사도우미 육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60.37세(표준편차 11.70)로 고령화가 심화되어 있었다. 응답자의 54.0%가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으로 다소 낮았으며, 79.8%가 기혼이었다. 응답자들의 대부분은 농가였고 응답자 자신의 직업 중 농림어업이 93.7%로 나타났다. 가구원수는 평균 3.00명(표준편차 1.56)으로 적었으며, 부부가 살고 있는 경우가 32.9%로 가장 많았다. 특히, 독거노인이나 손자녀와 사는 노인, 노인부부 등 노인 취약가구와 잠재적 취약가구가 30.2%나 되었으며, 65세 노인이 포함된 가구는 모두 65.1%나 되었다.

주요 작목 1순위는 논·벼, 시설작목, 밭·보리 순이었다. 가구 소득 비중에서 농업소득이 주인 경우가 83.1%이었으며, 가구의 평균수입은 1,679만원(표준편차 1729.7)으로 나타났다. 이들 소득원 중 생활비에 대한 지출순위를 보면 1순위로는 양육·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순이었으며, 생활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월 평균 50만원 이하가 22.4%로 가장 많았으며, 100만원이 초과되는 경우도 35.6%이었다. 소득 및 지출의 비교에 따른 생활정도의 경우 6.1%만이 충분하다고 했으며, 74.5%가 부족하다고 하였다. 빚이 없는 경우는 34.6%에 불과하였으며, 평균 4,192만원(표준편차 4,669.66)이었다. 빚 진 이유로는 76.7%가 영농자금 마련 때문으로, 17.0%는 자녀 교육비로 응답하였다.

농사짓는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낮은 수입, 농가 부채 상황 등 경제 영역의 문제가 47.4%나 되었으며, 노후 보장이나 후계자 문제도 8.6%로 비교적 높았다. 농사짓는데 78.8%가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이의 해결방법으로는 경제적 지원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의료, 교육 등에 대한 요구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중 지난 3년간 사고를 경험한 가구는 25.8%로 매우 높은 숫치를 보였고 사고 경험자는 65세 이상이 사례 백분율 기준으로 48.7%로 나타났고, 사고내용 별로는 교통사고와 각종 기계류에 의한 사고가 가장 많았다. 치료 중 입원경험자가 69.8%나 되었으며, 치료기간은 평균 12.05개월(표준편차 27.817)이었다. 응답자중 후유증이 전혀 없다는 응답은 5.4%에 불과하였다. 사고 시 거동 가능 정도의 경우 50.4%가 스스로 거동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사고시 도움을 제공해 주는 이들이 전혀없다 라는 응답이 71.8%로 대부분이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사고경험자들이 받은 도움은 주로 이웃이나 가족의 지원이었으며 지원내용은 현금과 지지격려가 많았다. 그러나 적은 도움이지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의 59.4%가 도움에 만족하였다.

사고로 인해 62.7%가 농사일에 지장 받았으며, 사고가 날 경우 도움 받을 대상이 없다가 47.7%

나 되었다. 영농도우미의 필요성에 대하여 83.3%가 긍정하였으며, 불편할 수 있는 사항으로는 영농도 잘 모르고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비용이 들기 때문에, 필요할 때 영농도우미가 바로 못 올 것 같다는 응답이 많았다. 또한 영농도우미의 자격조건으로 영농일 경험자를 선호하였다. 응답자는 영농도우미 하루 이용비용으로 평균 약 3.1만원(표준편차 2.1만원)정도 부담할 의사가 있었으며, 영농도우미 사업을 주관할 기관으로는 읍·면·동 사무소(33.2%), 농협·축협(30.6%)이 많았다. 영농도우미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바로 바로 연결되는 체계구축(27.8%), 숙련되고 능숙한 영농도우미 확보(23.2%), 농민부담 최소화(19.1%) 등이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노환, 장애, 그리고 질병을 앓고 있는 가족이 없는 경우는 42.0%에 불과하였으며, 질환은 1인당 평균 1.8개이며, 관절염·노환, 좌골신경통, 고혈압이나 저혈압 등 만성질환의 비율이 높았다. 응답자 중 78.8%가 병의원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64.4%가 많이 아픈 것으로 응답하였다. 거동정도의 경우 83.4%가 혼자서 가능하다고 응답하였으며, 52.6%가 가사에 지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만약 가사도우미 필요할 경우 도움을 줄 사람이 없다가 38.2%로 가장 많았으며, 만약 도움을 받을 경우 49.4%는 가족을 선택하였다. 가사도우미의 필요성에 대하여 62.9%가 긍정하였으나, 본인이 해당할 경우라는 조건이 붙을 때는 69.5%가 필요 없다고 응답하였다. 가사도우미 이용시 불편할 점으로는 집안일을 맡기는 것과 가족내 해결, 필요할 때 못옴, 외부인에 대한 불신이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가사도우미 사업 주관기관으로는 읍·면·동 사무소(36.3%), 농협·축협(17.1%), 사회복지관(11.6%) 순이었다. 가사도우미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25.7%가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바로 바로 연결되는 체계 구축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농민부담 최소화가 16.9%로 나타났다.

4.1.2 영농·가사도우미 참여예상자 조사결과

2차 조사의 응답자는 209명이었고, 응답자의 소속기관은 자활후견기관이 70.4%, 인력관리센터 4.3%, 실업극복지원센터 5.3%, 자원봉사센터 8.1%, 농협 12%이다. 응답자는 남자가 56명 27.2%, 여자 150명 72.8%로 여성의 비율이 훨씬 높다. 응답자 연령은 평균 45세이었으며 30대 22.9%, 40대 35.2%, 50대 35.8%로 비교적 젊은 인력들이었다. 응답자중 기혼자의 비율은 92.5%로 대부분이 기혼이었다. 학력은 중졸과 고졸이 35.6%로 동일하게 나타났고 대졸이하도 26.3%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응답자의 약 절반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현실은 매우 열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응답자중 농사경험이 전혀 없다는 응답은 34.1%, 농사경험이 있거나 농사짓는 집에서 태어났거나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농사경험을 했다는 응답은 58%이다. 농촌에 살 기회가 있다면 어떻게 하겠는가의 물음에 살아보고 싶다는 응답은 27.0%이고 고려해본다는 응답은 48.0%으로 현재 살겠다는 의지는 약해도 조건에 따라서는 농촌에 살겠다는 의지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살지 않겠다는 응답은 24.0%로 낮다.

응답자들 중 다수는 농촌에 살게 될 장점으로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 30.9%, 자연친화적인 삶 37.7%으로 응답했다. 이는 응답자들의 대부분이 농촌이라는 정주공간에 대해 호의적인 생각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40대는 농촌 거주향이 33.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농촌에 대해서 농촌공간과 농촌생활에 대한 긍정성으로 특히 농촌이라는 공간이 갖는 환경자체를 높은 가치로 평가하고 있다.

응답자들이 인식하는 농촌의 어려움은 가장 크게 농가소득의 문제이다. 농촌문제에 대한 응답으로는 농가소득의 열악함 30.6%, 자녀양육 및 교육문제 17.5%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 15.5%로 비교적 농업을 주소득원으로 하는 직업적 구조에 대한 희망은 매우 적다.

영농도우미나 출산도우미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는 응답이 51.9%로 높다. 출산도우미에 대해서 33.2%만이 들어본 적이 있다. 성별로 출산도우미에 대한 인지도는 여성의 경우가 약간 높았고 남성의 경우는 영농도우미에 대한 인지도가 16.1%로 여성 12.9%에 비해 약간 더 높았다.

영농도우미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에 비해서 농가의 사고나 장애로 인해 일시 농사일이 어려워진 농가를 도와주는 영농도우미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은 87.7%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 그 이유는 주로 도우미를 구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39.3% 농촌일이 힘들어서 갈려는 도우미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17.9%로 매우 높았다. 이는 지원내용이 강화되지 않는 한 영농도우미 제도가 실행되기까지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자격요건에 대한 의견은 농촌에 대한 애정을 38.3%로 가장 높게 응답했고 그다음 응답은 농사일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23%로서 농업을 전문 직업으로 인식하는 응답이 높았다. 본인의 자격요건 준비정도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15.5%는 전혀 갖추지 않았다고 응답했고 조금, 대체로 그리고 상당히 갖추었다는 대답을 합하면 65.0%로서 응답자의 상당비율은 스스로 농가도우미로서 자격요건을 갖추었다고 생각하였다.

영농도우미에 참여할 의향에 대한 응답에서는 참여조건에 대해 자원봉사인 경우 참여할 의사는 22.9%가 긍정적으로, 30.8%는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일당 3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영농도우미로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은 16.5%, 불참할 의사를 가진 비율은 50.0%에 이르렀다. 이는 자원봉사와 달리 일당으로 환산한다면 3만원을 받고 농사일을 하고 싶지 않은 의사로 간주된다. 조사 당시 현지 노임 수준은 농번기 일손이 거의 필요 없을 때조차도 일당이 3만원 이상이고 농번기 시기에는 5~7만원 수준이었다. 영농도우미의 일당이 4만원~6만원인 경우 참여할 의사가 49.4%로 높아졌고 참여하고 싶지 않다는 응답 역시 16.1%로 대폭 감소했다. 따라서 농가도우미 제도가 실시되어 인력을 충분히 조달하기 위해서는 도우미들에 대한 차량제공과 4~6만 원 정도의 일당 지급, 농사기술에 대한 교육이 중요한 요건임을 알 수 있다.

영농도우미 참여시에 생길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농사일에 어려움을 응답으로 하는 경우가 59.5%로 높게 나타났다. 고된 일에 비해 수당이 적기 때문이라는 응답도 13.7%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거리가 멀고 편해서라는 응답이 10.7%로 영농교육과 일당수준을 조정하고 교통편을 제공한다면 영농도우미 인력확충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영농도우미 파견을 맡을 주관기관으로 가장 적절한 곳으로는 자활후견기관을 30.6%가 지적했고,

읍·면·동사무소로 응답한 비율도 23.8%로 나타났다. 영농도우미 주관기관으로 거론되는 농협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8.7%라는 매우 낮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다. 영농도우미 파견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숙련되고 능숙한 농사기술과 필요할 때 연결되는 체계구축이 23.0%로 농업적 기술과 안정적인 인력공급을 주요 항목으로 응답하였다.

우리사회와 이웃을 위해 자원봉사는 꼭 필요한가에 대한 의견에서 응답자의 84.5%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농촌이라도 도움이 필요하다면 자원봉사자가 파견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42.1%가 매우 그렇다고 응답했고, 39.1%는 대체로 그렇다, 그저 그렇다는 13.2%로서 매우 높은 비율이 농촌에 자원봉사자가 파견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응답자들의 자원봉사 경험은 현재도 하고 있다는 응답이 21.1%로 나타났으며, 전에 해본 경험이 있다가 35.3%로 나타나 응답자의 56.4%가 자원봉사 활동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이 경험한 자원봉사 내용으로는 고아원, 양로원 방문봉사, 농촌봉사, 장애인이나 노인돌보기 등이 높았다.

질병, 노환, 장애등으로 인해 가사 일에 불편함이 발생한 농가를 위한 가사도우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55.2%이고, 대체로 필요하다는 응답까지 포함하면 92.1%이었다. 가사도우미가 불필요할 것이라는 응답자의 이유를 물어본 결과 농촌이 힘들어서 갈려고 하는 사람이 적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가사도우미 사업의 인력수급에 있어서 지원내용과 지원체계에 다양한 형태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사도우미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가를 몇 가지 조건별로 조사한 결과, 완전 자원봉사 형태로 참여할 의향은 15.1%에 불과하고 참여할 의사가 없다는 응답이 37.1%이다. 그러나 교통편이 제공된다면 참여하겠다는 의사는 25.4%이었다. 교통편과 점심을 제공할 경우의 자원봉사 참여의향은 27.3%로 응답했고 교통편과 점심, 약간의 수고료를 지불할 경우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응답은 48.6%로 매우 높아졌다.

가사도우미 참여활동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농가의 성격상 가사일과 농사일을 동시에 도와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40.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교통의 불편함에 대한 응답이 28.9%로 나타났다. 가사도우미를 파견할 기관으로 가장 적절한 곳은 자활후견기관이 32.4%, 읍·면·동사무소가 23.0%로 나타나 영농도우미 파견과 유사한 응답결과가 나왔다. 향후 가사도우미 주관기관 예정인 농협은 7.4%로 인지도가 매우 낮았다.

가사도우미 활성화를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는 농사일도 할 수 있는 도우미가 중요하다는 응답이 22.8%로 가장 높고 적극적인 홍보와 더불어 필요할 때 언제나 구축될 수 있는 체계의 구축이 각각 20.8%로 응답하였다. 농민부담의 최소화라는 응답도 14.9%에 이르렀다. 농가의 가사도우미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농사일에도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갖춘 가사도우미의 확충과 더불어 가사도우미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인력의 안정적 공급이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알 수 있다.

4.1.3 도우미 관리 예상 기관 운영자들과의 면담 조사 결과

금번 조사에서는 1차 농가육구조사와 2차 도우미 참여예상자 조사에 이어 관련기관들을 방문하여 기관의 담당자들과 간단한 면담을 하였다. 익산에서는 원광자활후견기관 및 익산자활후견기관의 실무책임자, 익산시 자원봉사센터의 실무책임자를 면담하였고 가정봉사원 파견센터에 대한 전화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청원에서는 자원봉사센터 책임자, 자활후견기관 책임자, 실업극복회의 사무소 및 청주시 농협지부의 담당자, 옥산 단위농협 담당자를 면담하였다. 이들 담당자들과의 면담속에서 영농도우미 및 가사도우미의 관리기관과 추진체계에 대한 의견을 얻을 수 있었다.

1.2차 조사에서의 농가도우미 파견에 관련된 조사내용과 관련기관 방문 시의 면담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도우미 인력을 위한 교육

영농도우미에 있어서는 농사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이나 숙련에 대한 체계적인 습득을 요구하고 있다. 가사도우미에서도 영농을 겸하는 도우미를 희망하기 때문에 영농교육이 농가를 위한 도우미들에게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이에 농가도우미 관리기관은 도우미 예상자에게 영농교육을 시킬 교육기관의 기능을 가지거나 교육을 진행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농가도우미 훈련기관 선정과 더불어 농사교육이 준비되어야 한다. 특히 영농도우미의 경우는 예상되는 인력을 위한 영농 기술교육 과정을 반드시 수료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가사도우미에 있어서도 농촌의 취약농가의 경우 가사일 뿐만 아니라 목욕, 병수발의 기초적 도움, 말벗 등 종합적인 서비스 형태가 필요하기 때문에 농촌형 가사도우미의 역할에 대한 간단한 소양교육이 있어야 한다.

2) 도시 자원봉사 가사도우미의 조직화

농촌의 고령화현상과 맞벌이 강화추세로 인해 농촌에는 가사도우미로 활동할 봉사인력의 확충이 매우 어렵다. 도시부문에서 자원봉사센터나 여성단체에 속한 사람들과 연계된 네트워크를 통한 체계적 지원구조의 마련이 시급하다. 현재 가장 큰 어려움은 재정운영과 봉사인력 확보에서의 어려움이다. 농촌지역의 봉사인력을 확충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맞벌이의 증가로 인해 정기적 지원서비스 인력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인근 도시의 유희인력이나 봉사인력을 조직하여 연결하는 방안 등이 다양한 방식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3) 지원 체계들 간의 네트워크 구성

농가도우미 활성화를 위해서는 적극적 홍보활동과 더불어 지역 내의 관련된 기관간의 네트워크가 절실히 필요하다. 더구나 농가도우미의 초기 정착을 위해서는 지역인력 네트워크 추진체계 확립이 필수적이다. 농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농협은 그간 지역봉사 활동 등에 있어서 그 활동이 지극히 미미할 뿐 아니라 지역 내 봉사활동이나 인력지원기구와의 연대도 거의 없다. 또한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의 경우 본인 스스로 지원을 요청할 정보가 뒤늦기 때문에 읍·면·동사무소, 보건소 등과 복지지원체계 및 복지지원인력을 제공할 기관 사이의 긴밀한 네트워크가 절실히 필요하다. 특히 현재 농촌지역에 필요한 도우미체계는 시설이나 하드웨어적인 것만이 아니라 필요할 때 적시에 파견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 개념의 도우미가 보다 적극적으로 필요하며 지원체계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필요한 대상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연결망이 중요하다.

4) 독자적 추진기구로서의 복지기관 필요성 검토

도시에서 농가도우미를 파견할 기구의 카운터파트 기구가 농촌지역에 있어야 하는데, 이를 맡을 기관으로서 응답자들은 읍·면사무소를 지적하였다. 만일 읍·면사무소가 지역사회복지센터의 기능을 가진다면 농가 도우미 담당기관으로 적합할 수 있다. 또한 단위농협이 농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위농협도 농가도우미 담당기관으로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단위농협은 인력이 부족하고 복지전문기능을 갖추기 어렵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고 조사자가 면접한 단위농협 임원이 이 문제를 지적하였다.

농촌주민을 위한 지역사회복지관이 있다면 다양한 농촌복지 사업을 관장하고 농촌의 단위농협 및 도시 자원봉사기관과의 연계를 원활히 하면서 농가도우미를 파견하는 활동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농촌지역 내 가정복지 증진을 위해 읍·면 소재지 혹은 시의 외곽지대에 농촌종합사회복지관 시범운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5) 농가도우미 지원방식

지원방식에 있어서는 두 가지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는 지원액수에 대한 고려이고 둘째, 지원내용에 관한 것이다. 영농도우미의 지원액수에 있어서는 농사일이 고되기 때문에 액수가 지나치게 적을 경우 농가도우미 활동에 제약이 올 수 있을 것이다. 영농도우미의 경우는 4~6만원의 일당을 요구하고 있고, 가사도우미의 경우도 무료 자원봉사로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따라서 가사도우미의 경우에도 약간의 수고료 지급이나 실비 보상을 고려해야 한다. 자원봉사자가사도우미도 가능할 수 있으나 농가의 수혜자 상황에 따라 유급가사도우미도 필요할 수 있다. 점차적으로 가사도우미 지원제도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가사도우미 지원내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제기된 것은 교통편이었다. 따라서 차량을 이용한 이동서비스가 동시에 제공되어야 한다.

6) 농가도우미 활동방식

농가로의 접근성과 교통편의를 고려할 때 가사도우미와 영농도우미 활동을 개별적으로 하기 보다는 마을단위로 활동이 이루어지면 효과적일 것이다. 특히 가사도우미의 경우 한명의 자원봉사자가 한 농가를 찾아 가는 방법은 교통측면이나 도우미활동 내용으로 보아 비현실적일 수 있으며 실제로 봉사자가 기피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마을 단위로 2~3명의 가사도우미를 파견하여 한 마을에서 동시에 여러 가정을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돌보게 하거나 여러 명의 가사도우미들이 집단적으로 마을의 수혜자들을 도와주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4.2 영농·가사도우미 추진체계에 대한 논의

4.2.1 농가도우미 지원에 관한 외국사례¹⁾

외국에서도 영농인력에 대한 지원제도가 실시되고 있는바, 주요 외국의 영농인력 지원제도를 간략하게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농가도우미제도의 시행주체는 대체로 협동조합이나 민간단체인 경우가 많음. 다만 독일은 정부와 민간단체가 도우미제도의 시행주체가 되고 있음.
- 대다수 국가에서는 이용자격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음. 다만, 독일은 경영주와 배우자, 룩셈부르크는 회원 가족, 네덜란드는 단체회원들에게만 도우미 이용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 서비스 시기는 질병, 출산, 경조사, 재해 등과 같은 부정기적인 서비스에서 주말 휴식 및 정기 휴가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 도우미의 서비스내용이 나라마다 다소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
- 농작업만 서비스를 받는 국가는 미국, 덴마크, 그리고 프랑스 등이고 농작업과 가사를 함께 서비스를 받는 국가는 독일,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등임.
- 영국은 도우미서비스내용에 제한이 없으나 농작업은 민간단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사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종래 낙농 관련 농작업을 중심으로 도우미서비스가 제공되어왔으나 2000년 4월에 간호보험이 실시되어 간병, 가사분야로 서비스가 확대되었음.
- 농가도우미제도에 대한 정부지원이 이 제도의 활성화 여부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정부에서 농가도우미제도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는 국가로는 독일, 덴마크, 프랑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일본 등임.
- 덴마크의 경우 농가도우미제도가 1960년대 후반에 시작되었으나 1981년부터 정부보조금이 지급되면서 활성화되기 시작하였음.
- 덴마크의 정부 보조금으로는 병, 사고, 출산 등의 경우에 대한 헬퍼 이용료 보조, 농업인의 교육·연수 참가시 보조, 헬퍼 요원의 교육 및 연수에 대한 보조 등이 있음.
- 일본의 경우 1990년 낙농헬퍼 원활화 사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70억엔의 기금을 출연함으로써 낙농헬퍼사업을 활성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음.
- 농가도우미제도에 대한 정부 보조금이 별로 없는 국가로는 미국, 아일랜드, 영국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들 국가에서는 농가도우미제도가 별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1) 농촌생활연구소 (2001), 농가도우미제도 평가연구의 연구내용을 중심으로 요약 제시함

<표 4-1> 주요 외국의 영농인력 지원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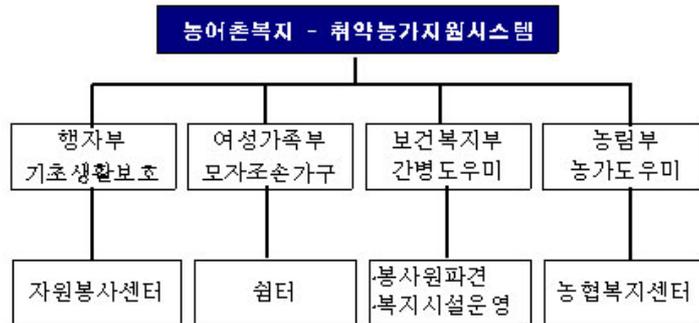
국가	시행주체	이용자격	지원사유	지원내용	기 타
네덜란드	대행서비스 전국조직	단체회원	질병, 재해, 휴가, 훈련 등	농작업, 가사 (단,농작업 없이 가사만은 불가능)	- 농업헬퍼는 단순노동자, 헬퍼, 숙련헬퍼, 농장관리자로 구분함. - 헬퍼 이용보험 - 헬퍼에 대한 농업훈련 실시
덴마크	농업자단체 연합 위원회, 독립단체	제한없음	질병, 출산, 훈련, 휴가	-	- 회원출자+정부보조 - 대행작업원 자격증 제도
독 일	정 부, 민 간 서비스단체 (교회, 조합, 복지센터)	경 영 주 와 배우자	질병, 출산, 사 고 사망 등 긴급 수요시와 휴가, 교육, 훈련시	농작업, 가사	- 질병 보험급여로 임신출산과 질병요양시 3개월까지 50%(보험금 고 100%) - 경영주 사망시는 6개월까지 지원 - 교육,훈련,휴가 3주까지 전액 국 고보조
룩셈부르크	농업인단체 “노동교환과 상호부조서클”	회원가족	질병, 사망, 재해 입원, 출산, 과도한 작업부담	농작업, 가사	- 단체운영자금 일부 정비지원
미 국	민간단체, 소규모 회사	제한없음	휴가, 경조사, 질병 등	농작업	- Farm Sitter Service (휴가시 농장을 돌보아 줌)
아일랜드	협동조합	제한없음 (비농가도 가능)	농번기과잉 작업, 질병, 휴가, 출산	농작업, 가사	- 농가에서는 경제적 이유로 거의 이용하지 않고 비농가에서 주로 이용
영 국	민간단체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 대행료가 비쌈 - 지방자치단체가 가사부조 서비스에 대한 법적책임 있으나 주로 환자, 신체장애자, 고령자 등을 위한 것임
일 본	협동조합 민간단체	제한없음	제한없음	낙농관련 농작업	- 도우미 이용 원활화 특별대책, 2000년4월 간호보험 실시(간병, 가사분야)헬퍼를 위한 보험제도
프랑스	농업자조합, 비농업자는 회사형태	제한없음	출산, 훈련 참가자 등	농작업에 한 함	- 사회보장제도와 연계 - 임신시 대행료전액 정부보조

자료: 농촌생활연구소, 「농가도우미제도 평가 연구」, 2001년 12월.

4.2.2 우리나라의 영농·가사도우미 추진체계 논의

금번의 1차 농가육구조사와 2차 도우미참여예상자 조사 및 도우미사업 관련기관들을 방문하여 기관의 담당자들과 실시한 면담내용을 중심으로 농가도우미 추진체계에 대해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현행 농어촌 복지관련 취약농가 지원시스템



(그림 4-1) 현행 농어촌 복지관련 취약농가 지원시스템

- 지원방식 - 동장과 이장을 통해서 대상자 파악(신고)
- 지원내용
 - 정기적 지원: 직접적 지원- 쌀, 교통비 등
 - 비정기적 지원: 반찬, 이미용, 목욕, 필요시 방문, 간병도우미 파견 등
- 문제점
 - 동장과 이장이 제대로 파악 신고를 안할 경우 도움이 필요해도 연결이 되지 않는다.
 - 도우미 지원 내용이 서로 중복되어 있어서 서비스를 받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연결이 되지 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정보의 미활용 등으로 인해 서비스지원에서 제외된다.
 - 지원의 주된 내용이 노환과 관련된 부분이 많거나 농촌 노인들의 경우 자존심이 매우 강하 기 때문에 실제로 응급을 요하거나 정서적 유대감이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지속적 방문이 필요하지만 지원인력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2) 도우미 인력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기관의 필요성

영농도우미에 있어서는 영농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이나 숙련에 대한 체계적인 습득을 요구하고 있다. 가사도우미에서도 영농을 겸하는 도우미를 희망하기 때문에 영농교육이 농가를 위한 도우미 들에게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이에 농가도우미 관리기관은 도우미 예상자에게 영농교육을 시킬 교육기관의 기능을 가지거나 교육을 진행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농가도우미 훈련기관 선 정과 더불어 영농교육이 준비되어야 한다. 특히 영농도우미의 경우는 예상되는 인력을 위한 영농 기술교육 과정을 반드시 수료하도록 하여야 한다.

여기서 상시 영농도우미 가능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활후견기관의 영농단 같은 새로운 사 업단 조직을 생각해볼 수 있다. 즉 도시 및 농촌인근의 차상위 계층 인구에게 기본적인 영농교육

을 이수케 하고 영농단으로 조직하여 상시적으로 영농도우미 후보인력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또한 가사도우미에 있어서도 가사도우미의 역할이 단순히 가사노동만이 아니라 취약농가의 서비스 대상에 대해 의료적 측면의 가벼운 도움, 외로움을 달래는 말벗 등 정서적, 물질적, 전문적 도움의 영역이 중첩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도우미 교육체계를 통한 영농, 가사도우미 육성과정이 필요하다.

○ 영농, 가사도우미 교육 가능형태

- 군단위 농업기술센터
- 인력양성 기관(기술교육- 노동부 소속)
- 보건소나 보건지소 등을 활용한 교육
- 여성농민센터나 자활훈련센터 등 민간위탁 일자리 관련기관 활용

○ 도시의 경우 생활관리사 형태로 민간기관의 일정한 수료 자격증이 있는 경우 일자리 사업에 인력이 투입되고 있음.

3) 도시 자원봉사 가사도우미의 조직화

농촌의 고령화현상으로 농촌에는 가사도우미로 활동할 인력이 충분치 않다. 도시부문에서 자원봉사센터나 여성단체에 속한 사람들은 자원봉사자 가사도우미로 활동할 가능성이 있다. 이때 도시의 자원봉사센터가 농가파견 자원봉사자를 조직, 관리하거나 농협 시지부 등이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모임'이나 조합원 중심으로 농촌파견 자원봉사자를 모집, 파견할 수 있을 것이다. 여하튼 도시부문에서 체계적으로 농가를 위한 가사도우미의 발굴과 배치를 할 기관이 있어야 한다.

특히 가사도우미 조직방식에서 도시-농촌 교류의 일환으로 농촌 1농가 도시 1가구 자매결연 추구 등 다양한 방식의 일촌 1가구 맺기 운동 등이 지속될 필요성이 있다. 이는 정기성을 갖지 위한 방법에서 중요하다.

4) 영농·가사도우미 지원방식

지원방식에 있어서는 두 가지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는 지원액수에 대한 고려이고 둘째, 지원내용에 관한 것이다. 영농도우미의 지원액수에 있어서는 영농일이 고되기 때문에 액수가 지나치게 적을 경우 농가도우미 활동에 제약이 올 수 있을 것이다.

영농도우미의 경우는 4~6만원의 일당을 요구하고 있고, 가사도우미의 경우도 무료 자원봉사로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실제로 현재 실시되고 있는 축산헬퍼의 경우 축협이나 낙협이 실시하는 헬퍼제도의 경우 헬퍼의 일당은 소 10마리당 3만원을 기본급으로 하여 10마리를 초과할 경우 낙농의 경우 1마리 추가시 마리당 5,000원, 비육우의 경우 3,000원을 지급하고 있다. 만약 축협이나 낙협을 이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도우미를 고용할 경우 70,000원 일당에 10마리 초과시 동일한 조건으로 추가비용 지급을 해야 한다. 단 축산헬퍼와 취약농가의 차이점은 축산농가의 경우 개별적으로 헬퍼를 요청한다는 점이고 일반농가의 경우 지원대상이 제한되어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따라서 가사도우미의 경우에도 약간의 수고료 지급이나 실비 보상을 고려해야 한다. 자원봉사자 가사도우미도 가능할 수 있으나 농가의 수혜자 상황에 따라 유급가사도우미도 필요할 수 있다. 점차적으로 가사도우미 지원제도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가사도우미 지원내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제기된 것은 교통편이었다. 따라서 차량을 이용한 이동서비스가 동시에 제공되어야 한다.

5) 농가도우미 활동방식

농가에의 접근성과 교통편의를 고려할 때 가사도우미와 영농도우미 활동을 개별적으로 하기 보다는 마을단위로 활동이 이루어지면 효과적일 것이다. 특히 가사도우미의 경우 한명의 자원봉사자가 한 농가를 찾아 가는 방법은 교통측면이나 도우미활동 내용으로 보아 비현실적일 수 있으며 실제로 봉사자가 기피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마을 단위로 2~3명의 가사도우미를 파견하여 한 마을에서 동시에 여러 가정을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돌보게 하거나 여러 명의 가사도우미들이 집단적으로 마을의 수혜자들을 도와주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영농도우미의 경우 주변의 농사일이 적은 비교적 숙련된 노동력을 영농도우미단으로 조직하여 항상적으로 노동력 제공이 가능하도록 활용하거나 재촌 농민의 도우미 등록(가사, 출산, 영농 등)으로 필요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항상적인 인력확충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6) 지원 체계들 간의 네트워크 구성

농가도우미 활성화를 위해서는 적극적 홍보활동과 더불어 지역 내의 관련된 기관간의 네트워크가 절실히 필요하다. 더구나 농가도우미의 초기 정착을 위해서는 지역인력 네트워크 추진체계 확립이 필수적이다.

농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농협은 그간 지역봉사 활동 등에 있어서 그 활동이 지극히 미미할 뿐 아니라 지역 내 봉사활동이나 인력지원기구와의 연대도 거의 없다. 따라서 농가도우미의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은 지역 인력 풀을 가동하는 자원봉사센터나 자활후견기관, 실업종합센터 등 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있는 기관과 협력하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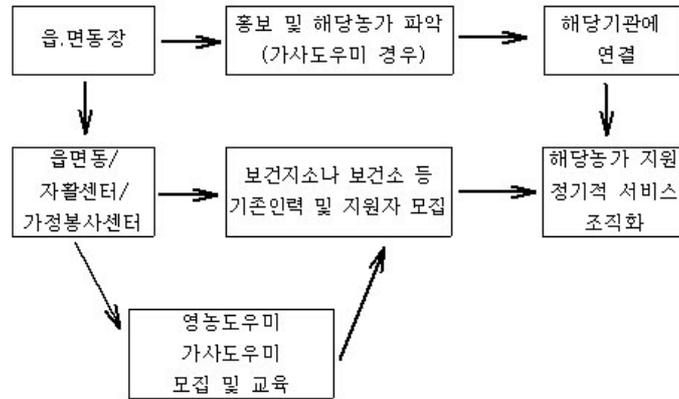
7) 독자적 추진기구로서의 복지기관 필요성 검토

도시에서 농가도우미를 파견할 기구의 카운터파트 기구가 농촌지역에 있어야 하는데, 이를 맡을 기관으로서 응답자들은 읍·면사무소를 지적하였다. 만일 읍·면사무소가 지역사회복지센터의 기능을 가진다면 농가 도우미 담당기관으로 적합할 수 있다. 또한 단위농협이 농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위농협도 농가도우미 담당기관으로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단위농협은 인력이 부족하고 복지전문기능을 갖추기 어렵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고 조사자가 면접한 단위농협 임원이 이 문제를 지적하였다.

농촌주민을 위한 지역사회복지관이 있다면 다양한 농촌복지 사업을 관장하고 농촌의 단위농협 및 도시 자원봉사기관과의 연계를 원활히 하면서 농가도우미를 파견하는 활동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농촌지역 내 가정복지 증진을 위해 읍·면 소재지 혹은 시의 외곽지대에 농촌종합사회복지관 시범운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8) 추진체계 모델

이상의 연구를 종합하여 취약농가 지원 체계 모델을 제시하면 (그림 4-2)와 같다.



(그림 4-2) 취약농가 지원 체계 모델

4.3 제언

농가는 급격한 초고령화로 인해 영농 인력이 부족하고 불안정하다. 농촌에서 가족해체는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노인 포함가구의 비중이 매우 높고, 가구원수도 작아 언제나 사고, 질병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그러나 사고나 질병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으로 영농을 돕거나 가사 일을 도와 줄 수 있는 사회적 지지망도 도시에 비해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또한 농가의 사고 빈도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농가의 사고와 장애가 발생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영농도우미의 필요성은 매우 높다.

정부의 보조금 지원과 더불어 시·군 농협지부 등 농민을 위한 공공조직에서 적극적으로 영농도우미 파견 사업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영농도우미 활용에서 영농도우미가 영농을 모르거나, 비용이 많이 소요되거나, 바로 못 올 수 있는 것과 같은 문제가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파견 나갈 농가의 작목에 따라 차별화된 영농도우미를 지원하며, 영농도우미에 대한 사전 교육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축산·시설작목의 경우 일정 수준의 숙련도가 요구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

영농도우미에서는 바로 바로 연결되는 즉각 지원 시스템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계절적 수요요인은 물론 당일 교통편 및 인력 규모 등에 있어서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운송체계에 이르기까지 통합적 지원망이 고려되어야 한다.

농가 가족원의 고령화·가족해체 등으로 인해 농가의 가정생활은 안정적이지 못하고 취약하다. 특히, 많은 노인들은 질병을 앓고 있으며, 가사생활에 불편함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들 취약농가를 위한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가사도우미가 필요하다. 더우기 노인가구, 조손가구, 한 부모가구의 증가 등과 아울러 가사도우미의 필요도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농촌복지라는 보다 큰 시각에서의 중장기적 계획의 수립과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지역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네트워크 전달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전국 농협의 시·군지부의 조직력과 읍·면·동의 행정조직간의 유기적인 연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매개로 자활후견기관, 자원봉사센터, 가정봉사원파견센터 등을 연계하는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활동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내 다양한 사회복지 자원 및 유희인력을 파악하는 사전준비작업과 함께 지역단위들을 광역으로 여러 개의 농협 지부와 읍·면·동사무소를 묶어주는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조정 관리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보다 유용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광역 코디네이터 역할의 사회복지 전문 인력의 배치가 필요하다.

둘째, 지역특성에 맞는 인력양성 및 신속하게 파견하고 인력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체계의 마련이 시급하다. 도시와 농촌간의 연계일 경우 이동시간과 교통편의 문제 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소형 승합차량과 연계를 담당할 수 있는 별도의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이는 기본적인 전달체계 인프라 구축이라고 할 수 있으며, 농협 지부내의 기존 차량을 활용하는 것도 방안이나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위해서는 별도의 독자적인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지역에 따

라 시설작목이 중심이거나 과수가 많다거나 혹은 논영농이나 밭영농 중심이라는 특성들을 고려한 사전준비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농민들에게 쉽게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홍보에는 단순히 사업을 한다는 의미 이상으로 농민들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어떤 역할들이 농협지부와 읍면동사무소, 그리고 사회복지 관련 기관들이 수행해야 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농민들의 인지도가 높아지면, 이웃에 있는 고령의 농민들을 살펴보거나 영농·가사도우미의 수요나 필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거나, 연계해 줌으로 보다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의도화된 계획과 입소문과 공동체 지향 마케팅을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넷째, 영농도우미에 대한 체계적인 모집과 교육, 그리고 관리가 필요하다. 기초적인 농법 등에 대한 교육은 물론 축산이나 시설작목의 경우도 지역적 특성에 따라 세분화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경우 광역 단위의 지역별로 담당자를 훈련시켜 순환제 방식으로 활동하게 한다면 더욱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사고농가의 58%가 65세 이상의 노인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와 관련된 사전교육이 적극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가사도우미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자원봉사의 참여 가능성은 다소 낮으며,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인센티브는 물론 농촌에서의 가사도우미의 역할, 농민과의 신뢰감 형성 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조사지역의 경우에도 일반농가의 89%가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가구원으로 포함되어 있으므로, 단순한 가사도우미 교육 뿐만 아니라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간단한 간병의 실시, 의료상식의 전달, 말벗 도우미와 같은 보다 심도 깊은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여섯째, 직할제와 위탁제의 시범사업을 통하여 효과적인 영농·가사도우미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간다. 영농도우미 사업의 경우 자활후견기관이, 가사도우미 사업의 경우 가정봉사원 파견센터나 자원봉사센터 등이 경험이 많으며, 농협지부보다는 효율적으로 인력을 수급, 관리할 가능성이 높다. 사전 교육에 대한 부분에서도 이미 광역단위로 교육훈련 등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전 교육에서부터 이들 민간복지기관과의 연계를 통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연계의 방식은 직할제와 위탁제로 구분하여 볼 수 있는데, 직할제의 경우 농협지부가 직접 영농·가사도우미를 관리하며, 이들 기관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형식이다. 위탁제의 경우 영농·가사도우미 사업에 소요되는 총비용을 각 지역의 자활후견기관이나 자원봉사센터 등에 위탁방식으로 지급하여 이들로 하여금 파견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경우 농협지역본부는 광역체제로 이들을 조율하고 정보를 제공하여 원활한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시범사업을 통하여 영농·가사도우미 파견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들을 모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시범사업과 아울러 이 사업의 효과와 의미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경덕 (2004), 농촌·농가인구 및 농업노동력 증장기 전망과 정책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정미 (2004), 여성의 농업참여 역할 확대에 따른 지원대책 연구,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자원개발연구소·공주대학교·농협대학.
- 김주숙·김은영 (2003), 도·농복합시 농촌주민의 갈등요인과 해결방안연구, 한국농촌사회학회;농촌사회 13(1), pp 85~114
- 김주숙·김은영 (2004), 도·농 복합지역 농촌주민의 사회·문화적 갈등요소과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농촌진흥청
- 농림부·미디어리서치 (2004), 농림어업인등에 대한 복지실태등 조사
- 농림부 (2004),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해설
- _____ (2005), 농림통계연보
- 농촌생활연구소 (2001), 농가도우미제도 평가연구
- 농촌자원개발연구소 (2005a), 농촌·도시 노인의 삶의 질 비교 분석
- _____ (2005b), 농촌생활지표 조사보고서
- 박대식 외 (2001), 농촌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_____ 외 (2003), 농협의 농촌복지사업 추진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정화·한경혜·박공주·이한기 (2002), 사회적 환경으로서의 지원망 특성이 농촌노인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 한국농촌계획학회;농촌계획 9(3), pp 1~7
- 이정화·한경혜 (2003), 농촌노인의 일과 여가활동이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농촌사회학회;농촌사회 13(1), pp 209~238
- 차승은·한경혜·이정화 (2003), 농촌 노인의 지각된 건강과 신체·정신·사회적 건강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회;한국노년학 22(1), pp 173~190
- 정명채·박대식 (1999), 농가 도우미제도 도입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조영숙 외 (2004), 농촌생활지표 조사보고서, 농촌진흥청.
- 조홍식·김태성·남기철 (2001), 농촌지역 사회복지실태 및 욕구조사, 서울대학교사회복지연구소.
- 조홍식 (2004), 참여정부의 농어촌복지정책의 진단과 대책 - 사회보장정책을 중심으로-, 농업·농촌 종합대책 및 삶의 질 특별법을 중심으로 노무현 정부 농정 평가,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 통계청 (2004), 농업기본통계조사보고서
- _____ (2004), 어업기본통계조사보고서

부 록

부록 1. 취약농가 실태 및 영농(농업)·가사 도우미 필요도 조사 설문지

부록 2. 취약농가 지원 농업·가사도우미 참여 조사 설문지

부록1. 취약농가 실태 및 영농(농업)·가사 도우미 필요도 조사 설문지

취약농가 실태 및 영농(농업)·가사 도우미의 필요도 조사

안녕하십니까?

농촌 현장에서 아름다운 땀을 흘리고 계신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본 조사는 농림부의 의뢰를 받아 실시하는 **취약농가 실태 및 영농(농업)도우미 및 가사도우미**에 대한 필요도 연구입니다.

사고, 질병, 장애로 인하여 영농짓는데 불편함을 겪는 농가나 연세가 많아 생활하시기 어려운 농촌가구를 돕기 위해 어떠한 도움이 필요한가에 대한 조사이오니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응답하신 의견은 농촌실정에 맞는 복지사업을 추진하는데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또한 **설문조사의 결과는 통계로만 사용되며 개인적인 의견과 정보는 외부로 유출되지 않습니다.** 안심하시고 설문에 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5년 9월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주숙 교수

ID		코딩 완료		입력 완료		조사원	
----	--	----------	--	----------	--	-----	--

___⑦ 농업 낮은 수입, 저소득

___⑧ 기타(내용:)

13. 위의 12번 문항에서 선택한 문제의 어려움 정도는 어떻게 됩니까?

- ___① 전혀 어렵지 않다 ___② 대체로 어렵지 않다 ___③ 그저 그렇다
- ___④ 대체로 어렵다 ___⑤ 매우 어렵다

14. 위의 12번 문제의 개선, 해결을 위한 방법이나 우선적으로 필요한 과제나 제도는 무엇입니까?

15. 귀하는 영농(영농)도우미나 출산농가도우미 제도에 대하여 알고 계십니까?(모두 표시)

- ___① 전혀 모른다 ___② 출산도우미에 대해 안다
- ___③ 영농(영농)도우미에 대해 안다 ___④ 출산도우미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

다음은 귀댁 가족들의 사고 경험에 관한 문항입니다.

16. 귀댁의 가족 중에서 지난 3년간 사고로 인하여 조금이라도 다친 경험이 있는 가족이 있습니까?

- ___① 없다(☞문항 19번으로 이동) ___② 있다

17. 귀댁의 가족 중에서 사고 경험자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번호	(1) 사고유형	(2) 사고 내용 및 피해정도	(3) 치료방법	(4) 치료기간	(5) 현재휴우증	(6)당시 거동정도	(7) 도움준이	(8) 도움내용	(9) 만족도	(10) 아쉬운 점
가족 형태에 서의 일련 번호	① 교통사 고 ② 영농도 구사고 ③ 농기계 사고 ④ 화재사 고 ⑤ 가정폭 력사고 ⑥ 폭행폭 력사고 ⑦ 천제지 변재해 ⑧ 기타(내 용기록)	* 왜, 어디를, 어 떻게, 어느 정 도 다쳤는지 구체적으로 기 록 EX1) 경운기 타 고가다 뒤에서 차량이 들이받 은 교통사고로, 다리 골절로 김스하고, 장애 4급 진단 받음	① 입원 + 통원 치료 ② 입원치 료 ③ 통원치 료 ④ 약국치 료 ⑤ 자가 치 료 ⑥ 기타 (내용기 록)	년,개월수 로 표시 영구장 애 및 치 료가 요하 는 경우에 는 99년 으로 표시	① 전혀 없다 ② 거의 없다 ③ 약간 있다 ④ 많이 있다 ⑤ 매우 많 이 있다	① 불가 ② 부족 시 가능 ③ 도구 사용 시 가 능 ④ 혼자 서 가능	① 읍면 사무소 ② 농협 ③ 복지 기관 ④ 농민 단체 ⑤ 종교 단체 ⑥ 이웃 주민 ⑦ 기타 (내용) ⑧ 없음	① 현금 (돈) ② 현물 (물품) ③ 정보 제공 ④ 지지 격려 ⑤ 수급 권혜택 ⑥ 의료 ⑦ 기타	도움에 대한만 족도 ① 매우 불만 ② 불만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사고 당 시 불편 하였거 나, 아쉽 거나, 부 족한 것 에 대한 서술
				년 개월						
				년 개월						
				년 개월						
				년 개월						

메모: 영농도구는 낫, 칼 등 전통도구에 의한 사고, 농기계는 비료주는 기계, 경운기 등 각종 기구나 기계류에 의한 사고

18. (사고 경험 농가만 응답) 현재 사고로 인하여 불편하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귀댁의 영농일에 어느 정도 지장이 되고 있습니까?

- ___① 전혀 지장이 없다 ___② 대체로 지장이 없다 ___③ 약간 지장이 있다
___④ 대체로 지장이 있다 ___⑤ 매우 지장이 있다

19. 만약 사고 등으로 영농일에 지장이 생겼을 경우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 ___① 전혀 없다 ___② 부모, 형제, 자매 ___③ 자녀, 손자녀
___④ 동네사람, 이웃 ___⑤ 농협/축협 ___⑥ 읍면동사무소
___⑦ 농민단체, 주민조직 ___⑧ 사회복지기관 ___⑨ 기타(누구:)

20. 사고로 인한 불편함이나 장애가 해소되기 전까지 영농일을 도와주는 영농도우미의 필요성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고농가가 아닌 경우 그런 상황을 가정하고 응답해 주십시오.

- ___① 전혀 필요가 없다 ___② 대체로 필요하지 않다 ___③ 대체로 필요하다
___④ 매우 필요하다 ___⑤ 잘 모르겠다

21. 만약 영농(영농)도우미를 이용하는데 불필요하거나 불편할 경우 왜 그럴 것이라 생각하십니까?(하나만 선택)

- ___① 영농도 잘 모르고 도움 안될 것 같아서 ___② 비용이 들기 때문에
___③ 이웃 도움으로 충분히 극복가능해서 ___④ 가족내에서 해결할 수 있어 불필요하므로
___⑤ 외부인을 신뢰하기 힘들어서 ___⑥ 신청절차가 복잡할 것 같아서
___⑦ 필요한 때 바로바로 못 올 것 같아서 ___⑧ 기타(내용:)

22. 영농(영농)도우미는 주로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하나만 선택)

- ___① 영농일에 대한 지식, 이해를 갖춘 자 ___② 농촌에 대한 사랑과 애정을 가진 자
___③ 영농일을 경험한 경험자 ___④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 자
___⑤ 친밀감 있고 성격 좋은 자 ___⑥ 기타(내용:)

23. 만약 귀댁에 영농(영농)도우미가 오게 된다면,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① 어떤 역할 (자격/사전준비)	
② 필요한 시기 (구체적으로)	

24. 만약 귀댁에서 영농(영농)도우미를 이용한다고 했을 때, 하루 이용비용은 대략 어느 정도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경우 부족분은 정부에서 제공해 주므로 농가부담분만을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만 응답)

- ___① 1만원 미만 ___② 1만원 - 2만원 미만 ___③ 2만원 - 3만원 미만
___④ 3만원 - 4만원 미만 ___⑤ 4만원 - 5만원 미만 ___⑥ 5만원 이상
___⑦ 잘 모르겠다 ___⑧ 기타(자세히:)

25. 영농(영농)도우미의 파견 주관 기관으로 가장 적절한 곳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하나만 선택)

- ___① 읍면동사무소 ___② 농협/축협 ___③ 사회복지기관
___④ 자원봉사센터 ___⑤ 농민단체 ___⑥ 종교단체
___⑦ 자활후견기관 ___⑧ 기타(어디:)

26. 영농(영농)도우미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하나만 선택)

- ___① 적극적인 홍보, 정보제공 ___② 숙련되고 능숙한 영농(영농)도우미의 확보
___③ 신청, 선정, 배분 절차의 편리, 신속함 ___④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수행

32. 현재 귀 닥에서는 가사일을 도와드리는 가사도우미가 필요하십니까?

- ① 전혀 필요가 없다 ② 대체로 필요하지 않다 ③ 대체로 필요하다
 ④ 매우 필요하다 ⑤ 잘 모르겠다

33. 만약 가사도우미를 이용하는데 불필요하거나 불편할 경우 왜 그럴 것이라 생각하십니까?(하나만 선택)

- ① 가사 뿐만 아니라 영농도 도와야 해서 ② 집안일을 맡긴다는 것이 불편해서
 ③ 이웃 도움으로 충분히 극복가능해서 ④ 가족내에서 해결할 수 있어 불필요하므로
 ⑤ 외부인을 신뢰하기 힘들어서 ⑥ 신청절차가 복잡할 것 같아서
 ⑦ 필요한 때 바로바로 못 올 것 같아서 ⑧ 기타(내용: _____)

34. 가사도우미의 파견 주관 기관으로 가장 적절한 곳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하나만 선택)

- ① 읍면동사무소 ② 농협/축협 ③ 사회복지기관 ④ 자원봉사센터
 ⑤ 농민단체 ⑥ 종교단체 ⑦ 자활후견기관 ⑧ 기타(어디: _____)

35. 가사도우미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하나만 선택)

- ① 적극적인 홍보, 정보제공 ② 영농일에도 전문성을 갖춘 도우미
 ③ 신청, 선정, 배분 절차의 편리, 신속함 ④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수행
 ⑤ 필요할 때 언제나 연결되는 체계구축 ⑥ 농민 부담비용의 최소화(정부부담)
 ⑦ 영농, 가사 등을 통합한 도우미 제공 ⑧ 기타(어디: _____)

* 마지막으로 영농(영농)도우미나 가사도우미 제도와 관련하여 어떻게 하면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가 정착될 수 있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취약농가 지원 농업·가사도우미 참여 조사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연구실에서 농업기반공사의 의뢰를 받아 취약농가 지원을 위한 농업도우미 및 가사도우미 참여에 관한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가 중에서 사고나 장애로 인해 일시적으로 영농일이 어려워진 가정에서 이웃이나 다른 사람을 불러 영농일을 잠깐 맡길 수 있습니다. 이때 영농을 돕는 이를 영농(농업)도우미라고 부릅니다. 이 영농도우미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아보기 위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 단독가구나 혹은 할머니와 손 자녀만 사는 가정, 장애인 가정 등 취약한 농가의 살림을 도와주기 위한 가사도우미가 있습니다. 이 가사도우미제도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농도우미나 가사도우미는 농가를 돕기 위한 제도로써 앞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본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답하신 의견은 농촌실정에 맞는 제도를 만들기 위한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또한 설문조사의 결과는 통계로만 사용되며 개인적인 정보는 외부로 유출되지 않습니다. 안심하시고 설문에 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5년 11월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주숙 드림

ID		코딩 완료		입력 완료		조사원	
----	--	-------	--	-------	--	-----	--

※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성 별	___① 남자 ___② 여자	연 령	만_____세
혼인여부	___① 미혼 ___② 기혼 ___③ 기타()		
학력(중퇴포함)	___① 중졸이하 ___② 고졸이하 ___③ 대졸이하 ___④ 대학원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___① 수급자 ___② 조건부수급자 ___③ 비해당(일반/기타)		
소속단체	___① 자원봉사센터 ___② 자활후견기관(___사업단) ___③ 기타(어디:_____)		

1. 귀하의 현재 직업은 무엇입니까?

- ___① 전업주부 ___② 가판, 영세자영업 ___③ 자영업(가게)
 ___④ 일용직 ___⑤ 경영직, 관리직 ___⑥ 판매직, 서비스직
 ___⑦ 전문직, 자유업 ___⑧ 사무직, 행정직 ___⑨ 기능직, 기술직
 ___⑩ 학 생 ___⑪ 무 직 ___⑫ 기타_____

1-1) 귀하의 이전 직업은 무엇이었습니다? 위 1번에서의 직업 번호를 적어주십시오. ___번

2. 귀하는 영농을 지어본 경험이 있습니까?(중복대답)

- ___① 전혀 없다 ___② 봉사차원에서 경험했다 ___③ 농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다
 ___④ 영농짓는 집에서 자랐다 ___⑤ 현재 영농을 짓는다

3. 귀하가 만약 농촌에 살게 될 기회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___① 절대 살지 않겠다 ___② 가급적 살지 않겠다 ___③ 고려해보겠다
 ___④ 가급적 살아보겠다 ___⑤ 꼭 농촌에 살고 싶다

4. 귀하는 농촌에 살게 될 경우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하나만 선택)

- ___① 쾌적하고 깨끗한 자연환경
 ___② 비경쟁적이고 여유로운 전원생활
 ___③ 땅과 함께하는 자연친화적 삶
 ___④ 정부의 각종 지원정책 및 제도
 ___⑤ 건강하게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
 ___⑥ 규칙적이고 건강한 생활
 ___⑦ 이웃과 함께하는 공동체적 생활
 ___⑧ 기타(내용:_____)

5. 귀하는 현재 농촌의 가장 어려운 점(걱정거리)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하나만 선택)

- ___① 영농지를 후계자 문제 ___② 농가 부채 상환 문제
 ___③ 농민들의 의료, 건강문제 ___④ 농민 자녀의 결혼 문제
 ___⑤ (손)자녀 양육 및 교육문제 ___⑥ 정부 정책 (농산물 수입등)
 ___⑦ 낮은 농산물 가격, 저소득 ___⑧ 기타(내용:_____)

6. 위의 5번 문항에서 선택한 문제의 어려움 정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___① 전혀 어렵지 않다 ___② 대체로 어렵지 않다 ___③ 그저 그렇다
 ___④ 대체로 어렵다 ___⑤ 매우 어렵다

7. 귀하는 영농(영농)도우미나 출산농가도우미 제도에 대하여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모두 표시)

15. 영농(영농)도우미 파견 활성화를 위하여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하나만 선택)
- ___① 적극적인 홍보, 정보제공 ___② 숙련되고 능숙한 영농(영농)기술 훈련
 ___③ 신청, 선정, 배분 절차의 편리, 신속함 ___④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수행
 ___⑤ 필요할 때 언제나 연결되는 체계구축 ___⑥ 영농..가사 등을 같이 할 도우미 훈련
 ___⑦ 기타(내용:_____)

* 이번에는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 여쭙어보겠습니다.

16. 일반적으로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사회와 이웃을 위해 자원봉사는 꼭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기회가 된다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3) 농촌이라도 도움이 필요하다면 자원봉사자가 파견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17. 귀하께서는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있으십니까?

___① 현재도 하고 있다 ___② 전에 해 본 경험이 있다 ___③ 전혀 경험이 없다

17-1. 위 17번에서 ①②로 응답한 경우) 활동 경험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 ___① 고아원, 양로원 방문 및 봉사 ___② 병원 및 보건소(말벗, 안내 등)
 ___③ 유치원이나 놀이방에서 탁아봉사 ___④ 구, 동에서 실시하는 행사(안내, 보조 등)
 ___⑤ 농촌봉사(농촌 일손돕기 등) ___⑥ 환경보전활동(환경정화, 환경감시, 캠페인 등)
 ___⑦ 장애인, 장애아동 시설 방문 및 봉사 ___⑧ 학교내 봉사(통학로 교통안전, 특별활동지도 등)
 ___⑨ 외로운 장애인이나 노인분들 돌봐드리기 ___⑩ 구청에서 실시하는 가정도우미 참여
 ___⑪ 기타(구체적으로 _____)

18. (현재 하고 있거나 경험이 있는 경우만 응답) 해보신 자원봉사활동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___① 대단히 만족한다 (만족했다) ___② 만족한 편이다 ___③ 그저 그렇다
 ___④ 불만족한 편이다 ___⑤ 대단히 불만족이다 (불만족했다)

* 이번에는 가사도우미 활동에 대해 여쭙어보겠습니다.

19. 질병, 노환, 장애 등으로 인해 가사 일에 불편함이 발생한 농가에 대하여 가사 일을 도와주는 가사도우미의 필요성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___① 전혀 필요가 없다 ___② 대체로 필요하지 않다
 ___③ 대체로 필요하다 ___④ 매우 필요하다 ___⑤ 잘 모르겠다

20. 위 19번에서 ①②로 응답한 경우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___① 농가까지 가사도우미가 가기 어렵다(이동)
 ___② 농촌특성상 가족내에서 해결하기 때문이다
 ___③ 가사도우미가 아닌 파출부가 필요하다
 ___④ 실제 필요한 농가를 알 수가 없어 갈수 없다

- ___⑤ 농촌이 힘들기 때문에 갈 도우미가 없다
 ___⑥ 기타(내용메모:_____)

21. 귀하는 농가의 질병, 노환, 장애 등으로 인해 요청되는 농가가사도우미에 참여할 의향이 있습니까? 다음 각각의 상황에서 대답해주시시오

	참여생각 전혀 없다	별로 참여 하고싶지않다	고려해 보겠다	참여할 의사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1) 완전 자원봉사로 참여	①	②	③	④	⑤
(2) 자원봉사로 (교통편 제공시)	①	②	③	④	⑤
(3) 자원봉사로 (교통편과 점심 제공시)	①	②	③	④	⑤
(4) 자원봉사로(교통편, 점심, 수고료 제공시)	①	②	③	④	⑤
(5) 기타(어떤 경우?_____)	①	②	③	④	⑤

22. 만약 귀하가 농가의 가사도우미로 참여하는데 생길 수 있는 어려움이 있다면 무엇인지 하나만 응답해 주십시오.

- ___① 가사 뿐만 아니라 영농도 도와야 해서
 ___② 집안일을 해준다는 것이 불편해서
 ___③ 농촌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 불필요해
 ___④ 그런일은 가족이 해주어야 하므로
 ___⑤ 농민과 친해지기가 힘들어질 것 같아
 ___⑥ 신청절차가 복잡할 것 같아서
 ___⑦ 거리가 멀고 교통 불편해서
 ___⑧ 기타(내용:_____)

23. 농가 가사도우미의 파견을 맡을 기관으로 가장 적절한 곳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하나만 선택)

- ___① 읍면동사무소 ___② 농협/축협 ___③ 사회복지기관
 ___④ 자원봉사센터 ___⑤ 농민단체 ___⑥ 종교단체
 ___⑦ 자활후견기관 ___⑧ 기타(어디:_____)

24. 농가 가사도우미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하나만 선택)

- ___① 적극적인 홍보, 정보제공 ___② 영농일에도 전문성을 갖춘 도우미
 ___③ 신청, 선정, 배분 절차의 편리, 신속함 ___④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수행
 ___⑤ 필요할 때 언제나 연결되는 체계구축 ___⑥ 농민 부담비용의 최소화(정부부담)
 ___⑦ 영농, 가사 등을 통합한 도우미 제공 ___⑧ 기타(어디:_____)

25. 마지막으로 영농도우미나 가사도우미 제도나 농촌발전을 위한 의견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 의

1. 이 보고서는 농림부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농업기반공사 농어촌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의 내용은 농어촌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발 행 처

안정된 농촌생활유지를 위한 취약농가 인력지원방안 연구	
발 행	2005. 12
발행인	정 병 호
발행처	농업기반공사 농어촌연구원
주 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1031-7번지 전 화 031 - 400 - 1754 FAX 031 - 409 - 6055
■ 이책의 내용을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단, 이책의 출처를 명시하면 인용이 가능합니다.	

[외 표 지 - 후 면]



농 립 부



농 업 기 반 공 사